



4

199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1. 4호

(루게 522)



◆◆◆◆◆◆◆◆◆◆ 차 례 ◆◆◆◆◆◆◆◆◆◆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서의 작가의 혁명적 본분과 사명을 다하자.....	4
호수가의 새벽	8
크나큰 박수	9
나도 받고싶어라 (외 1 편)	10
걸자, 이 길을	10
만경대의 노래	11
새로운 별	12
그이의 모습	12
빛나는 로정	13
옛 정	15
사랑과 행복의 끝은 어디에	27
《반드시 년월일을 새겨넣어야 합니다》	31
김정일 동지를 우러르노라	32
영원한 동행자로	33
백두밀영의 봄밤에	33
백두산의 봄	34
당의 혁명업적에 대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은 현시기 작가들앞에 나선	
중요한 요구	35

열 매	39
사랑하노라 공지와 맹세로.....	48
우리 군대, 우리 인민	49
영예군인의 노래	50
건설자들속에서	51
건설장의 달	57
가촌벌의 새 전설 (외 1 편).....	58
봄날을 주고가셨네	58
우리는 기다리지 않았다.....	59
사랑하는 나와 어머니.....	60
건설장이 다 아는 처녀	61
앵두익는 프락에서	67
난알은 어떻게 익는가.....	68
제철소의 겨울 (외 1 편)	73
후배들에게	73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74
인민군절의 아침에	76
고전소설 《옥린몽》의 사상예술적특성에 대하여.....	77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서의 작가의 혁명적 본분과 사명을 다하자

오늘 우리 작가들은 최대의 영예와 신임을 받아 안고 끝없는 공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사상과 예술의 영재이시며 우리 작가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난해 12월 27일 조선문학창작사 시인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받아보시고 한없는 사랑과 믿음에 넘치는 회답서한을 보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작가들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내세워주시는것은 우리가 받아안을수 있는 영예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최대의 영예이며 우리가 지닐수 있는 사랑과 믿음 가운데서 가장 값높고 귀중한 사랑과 믿음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회답서한에서 지적하신 이 명제는 당적작가의 지위와 역할, 그 사명과 임무를 가장 완벽하게 밝혀준 고전적정식화이며 령도자의 작가, 령도자와 지식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밝힌 철학적인 명제이다.

일찌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문학예술이 노는 기능과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혁명투쟁의 힘있는 무기로 되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제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예술을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무기의 하나로, 우리 작가들을 문학작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주체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혁명가로, 당사상전선의 초병으로 내세워주시었다. 그리고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과 배려로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당과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당적작가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번 회답서한에서 우리 작가들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내세워주시므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성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우리 작가들의 지위와 역할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워주시였으며 작가들에게 당적작가의 끝없는 자부심과 긍지감을 안겨주시었다.

지금 우리 작가들은 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더욱 고무되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할 불타는 결의를 안고 사색과 탐구, 창작적정열을 다 기울이고있다.

우리 작가들이 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성과 효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의 영

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높은 정치사상적품도를 갖추어야 한다.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된다는것은 당에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된다는것을 말한다. 작가들은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멀고 험난한 혁명의 한길에서 당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영원한 동행자가 되여야 한다. 작가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린다고 하여도 오직 당을 받들어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당의 위업,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견결한 로동계급적립장을 가지고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 된다는것은 당의 의도와 구상,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며 당의 위업을 실천적성으로 받들어나가는 믿음직한 협력군으로 된다는것을 말한다.

작가들은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으로써 당의 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충실한 방조자가 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변함없는 자세로 관철해나가는 당정책의 열렬한 지지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여야 한다. 그리고 당을 위한 하나의 심장만을 가지고 창작에서 당의 뜻을 남먼저 꽃피우겠다는 투철한 각오를 가지고 창작실천투쟁에서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당의 의도와 요구를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당이 안타까와하고 해결하자고 하는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여 창작함으로써 당정책관철에로 사람들을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당의 훌륭한 조언자로 된다는것은 당의 위업의 정당성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과 방도를 제기하는 당의 정열적인 사색가, 적극적인 활동가로 된다는것을 말한다. 작가들은 당의 위업을 객관적으로 보는 관망자가 아니라 주인다운 립장에서 당의 위업을 진심으로 받들어나가는 문학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우리 당의 조언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민감하여야 하며 우리 로동당시대를 열렬히 공감하는 뜨거운 긍정의 열정을 가지고 현실을 대하며 창작하여야 한다.

여기에 바로 우리 작가들이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영예를 참답게 빛내이는 길이 있으며 당적작가의 숭고한 사명과 임

무를 다하는 근본담보가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작가들은 당과 혁명을 따르는 길에서 영광의 자욱, 충성과 효성의 빛나는 자욱을 새겨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오면서 우리 작가들은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서 변함없는 자세로 줄기차게 달려왔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혁명시인 김혁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압제속에서 삼천리강토에 암흑의 장막이 무겁게 드리웠던 때에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령도자로, 조선의 운명을 구원하고 광명을 안아올 새 별로 우러르며 《조선의 별》을 격조높이 노래하였고 혁명시인 리찬은 광복된 조국땅우에서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맞은 전인민적감정을 담아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창작하였다.

그리고 혁명시인 조기천은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서사시 《백두산》에 담아 격동적인 화폭속에서 웅건한 서정으로 힘있게 노래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가렬한 지난 전쟁의 나날에도 당과 수령의 부름을 따라 적탄알이 비발치는 불타는 고지와 전호에서 투쟁의 노래를 불렀으며 당을 따라 불타는 강을 건느고 진펄길,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변함없이 달려왔다.

우리 당과 함께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영원한 동행자로서의 우리 작가들의 면모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수행되고있는 오늘날에 와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우러러 모시고 당을 따라 천만리, 수령을 따라 천만리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우리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온 세상이 진감하도록 힘있게 구가하고있다.

한편의 시를 읊어도 당의 목소리로 읊고 한편의 작품을 써도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쓰며 당과 함께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는것, 이것은 오늘 우리 작가들의 가장 궁지롭고 빛나는 모습이다.

당은 작가들을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믿고 작가들은 당을 영원한 삶의 품, 영생하는 정치적생명 은 키워주는 어머니의 품으로 믿고 일심동체가 되어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이 자랑스러운 모습은 로동당 시대, 독특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볼수 있는것이다.

참으로 당과 수령의 가장 높은 신임에 의하여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의 영예를 지닌것은 우리 작가들만이 누릴수 있는 최대의 긍지이고 자랑이고 특전이다.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우리 당에서 안겨주신

이 최대의 신임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해야 할 시대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작가들에게 베풀어주신 이 크나큰 신임에는 위대한 령도자의 가장 숭고하고 뜨거운 믿음과 함께 우리 작가들이 당과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여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리라는 기대가 깃들어있다.

믿음에는 충성과 의리로 보답해야 하며 기대에는 당과 수령이 바라는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것으로 보답해야 한다.

우리 문학이 우리 당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90 년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하여 근로자들을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어야 한다.

그 어떤 문학예술도 시대와 사회제도들 떠나서는 인간을 시대의 전형으로 그릴수 없으며 력사발전의 본질을 체현한 전형적인 생활을 그릴수 없다. 인간과 생활을 시대와 사회제도와와의 관계속에서 그린 문학예술작품만이 시대와 생활의 참다운 거울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고무자로 될수 있다.

우리 문학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 세차게 굽이치고 주체의 혁명위업에 대한 확고한 승리의 신심이 차넘치는 90 년대의 새로운 요구를 훌륭히 반영함으로써 격동하는 시대의 첨예한 정세속에서도 변함없이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있게 전진하며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시대정신은 시대와 생활의 기본지향이며 문학의 념이며 생명이다.

문학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시대가 제기하는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고 그에 정확한 해명을 주어야 한다. 그것은 문학이 혁명발전과 시대의 요구를 옹계 반영하여 시대정신을 구현할 때에만 이루어질수 있다.

시대정신은 우리 문학으로 하여금 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튼튼히 서서 시대가 절실하게 해결을 바라는 문제를 찾아쥐고 정확한 해답을 줄수 있게 한다. 이것은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문제가 문학의 근본문제, 그 사명 및 역할과 관련된 관건적문제라는것을 말해준다.

문학은 시대정신을 옹계 구현하여야만 강한 예술적견인력과 감화력, 그 생명력을 가질수 있다. 그러므로 참다운 문학예술의 발전과정은 시대정신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부단한 탐구와 모색의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문학이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서의 영광의 길을 걸어온 과정은 시대정신을 투철히 구현하기 위한 승리의 로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문학은 항일혁명투쟁을 비롯하여 주체혁명위업수행을 위

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반영하는 작품에서는 물론 지난 력사적생활을 반영한 작품들도 시대의 지향과 미학적요구에 맞게 생활과 인간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시대정신을 구현한다.

오늘 우리의 주체적인 문학이 시대정신의 구현을 생명으로 하고있는것은 그만큼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혁명적문학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문학이 시대정신을 투철히 구현하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 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 모든 창작적관심을 돌리고 사색과 탐구, 열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라는 사상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면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옹기 인식하도록 하는것은 문학작품창작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구현하는데서 근본책으로 된다.

이것은 특히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에 의하여 사회주의가 엄중한 시련을 겪고있는 때에도 우리 나라에서만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사회주의기치를 고수하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로부터 나서는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문제이다.

우리 문학작품에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더욱 깊이있고 감동적으로 형상하는 여기에 우리 문학이 90년대의 시대정신을 투철히 구현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작가들은 지난 시기에 당과 수령의 위대성형상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그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감으로써 당적작가의 근본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전면적으로 형상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작가들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오시면서 쌓아올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노래하여야 한다. 특히 당의 위대성을 노래하는데서 특출한 기여를 한 시가문학의 창작적성과를 더욱 일반화함으로써 소설, 아동문학, 희곡 등 문학의 모든 분야들에서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창작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문학작품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구현함에 있어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특성을 깊이있게 형상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특별히 관심을 돌리고 창작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작품을 더 훌륭히

더 많이 창작하는것이다.

문학예술의 시대정신은 현실생활에 대한 반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사회적으로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도 당의 정책과 로선이 관철되고있는 현실생활속에 있으며 우리의 시대정신도 당의 정책과 로선이 구현되고있는 현실속에서 뜨겁게 약동하고 있다. 당의 정책과 로선에 철저히 의거하고 그것이 빛나게 관철되고있는 현실속에서 인간문제를 찾고 현실에 대한 진실한 반영을 통하여 그에 옳은 해답을 주는것은 우리 문학이 현실주체의 작품을 가장 옹기바르게 창작할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이다.

작가들은 사회주의현실주체의 작품창작에서 어떠한 시대의 변천과 정세의 파동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의 혁명적현실을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특히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자주성이 확고히 담보되고 삶에 대한 신심과 랑만을 가지고 누구나 다 식의주에 대한 근심걱정 없이 무료교육,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으며 고르게 살고있는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특성을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진실성을 보장함으로써 그 예술적설득력을 더욱 강화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생활로 깊이있게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현실주체의 작품창작에서 우리가 힘을 들여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리 시대의 긍정적주인공의 형상을 더 훌륭히 창조하는것이다.

우리 문학은 현실궁정의 문학이다. 우리 문학에는 사회주의현실에 대한 뜨거운 궁정의 열정이 세차게 굽이쳐야 하며 현실에 대한 옹호의 정신이 일관되어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긍정적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학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자기의 사상미학적목적을 실현한다. 어떠한 주인공을 내세우는가 하는것은 문학의 사명과 관련된 문제이며 주인공의 형상에 따라서 문학의 시대적 성격과 특징이 규정된다.

우리 문학이 내세우는 주인공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효성을 지닌 충신의 전형이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참다운 혁명가이다. 우리는 이러한 참다운 충신, 진짜배기혁명가들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참다운 인간의 생활과 가장 보람있는 삶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어 그들처럼 일하며 생활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어떤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을 따라 나아가는 신념이 투철한 인간전형,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진심으로 받들어모시는것을 혁명전사의 마땅한 본분으로, 참된 도리로 여기고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충신, 효자의 형상을 더 훌륭히,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자기의 영예와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문학작품들의 정치사상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의도와 구상이 깃들어있고 그것이 현실로 관철되고있는 주제분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기여할수 있는 적극적인 주제분야를 창작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것을 당의 사상과 로선에 맞게 형상함으로써 문학의 정치사상적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작품의 형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문학은 문학으로 혁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문학이 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길은 작품의 형상수준을 높여 그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있다.

우리 작가들은 90 년대의 현실발전과 우리 시대 인간들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문학작품들의 형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며 다양한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혁명적인 랑만과 신심이 약동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형상수법들을 부단히 탐구하고 혁신하여 우리 식 문학을 더욱 풍만하고 다채로운 꽃으로 장식하여야 하며 그 예술적전인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작가들 자신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충신과 효자로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문학작품창작에서 사상론을 구현할것

을 강조하고있다. 작품은 작가의 사상의식의 반영이다.

작가들 자신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적작가로서의 정치사상적준비를 갖추어야 당이 요구하는 작품을 쓸수 있으며 당의 참다운 협력군이 될수 있다.

작가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며 주체적문예사상을 뼈와 살로 만들고 오직 주체적문예사상의 요구대로만 창작하는 참된 당의 문예전사가 되여야 한다.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친위대가 되여야 하며 언제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의 사상만을 옹호하고 보위하는 결사대로 되여야 한다.

창작적기량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한 결정적인 담보이다.

작가들은 부단히 탐구하고 사색하며 창작적정열을 불태우며 혁명적으로 생활하며 창작하여야 한다.

특히 들끓는 현실속에서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일하며 창작하는것을 사활적인 요구로 제기하고 90 년대의 시대정신이 나래치는 사회주의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신임과 사랑을 받으며 창작하는 우리 작가들처럼 궁지에 넘치고 보람찬 창작생활을 누리는데는 작가는 이 세상에 없다.

모두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지니고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자

호수가의 새벽

박대설

새벽

안개는 태고연한 수림을 흐르는데
백두산에 노을이 타오른다

안개 걷힌다

삼지연 맑은물 쓰다듬으며
새벽안개 걷힌다

수림이 와스스 술렁이고

숲속의 새들
잠에서 깨어나 노래한다 조선의 아침을
순간 오색의 령롱한 빛발
호수를 덮는다

못잇을 사연안고 설레는

삼지연!
거울같이 맑은 물우 저 멀리
백두의 웅자 그림처럼 펼쳤는데

허리에 품은 권총

한손에 묵직히 쌍안경 드신
오, 항일의 령장 **김일성**장군

우주의 빛발 한몸에 지니시고

그이께서는 여기 높이 서계시도다
불멸하는 위업을 안고

거룩하신 그이 모습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그 높이 하늘가에 닿고
더듬으면 더듬을수록
가슴은 바다처럼 부풀어라

마치도 내가 딛고 선 자리
세계의 한복판인듯
시대와 력사의 장엄한 뒤흔들
예 모여와 찬연한 언덕을 이룬듯

인간자주의 시원이 열리던
노래의 노래가 시작되던
력사의 그 아침을 비껴안고
고요히 설레이는 삼지연

삼지연, 너는 조선의 거울
백두산과 백두의 령장
그 거룩한 모습
영원히 비껴담은 영광으로
천년을 만년을 빛을 뿌리리라

크나큰 박수

전병구

현란한 무리등 불빛아래
청아한 음률이 흐르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
막은 오르고 내리고

벌써 몇번째로 찾아온
영광의 이 축전무대이라
진정할줄 모르는 감격을 안고
베네수엘라의 너배우,
일본의 미쓰코도 축원의 노래를 부르고

꿈속처럼 기다린듯
수령님을 모신 격정으로
감격의 눈물속에 노래를 부르던
미주의 교포도
그만 울음을 터뜨리는데

아득한 수륙만리에서 찾아온
조선의 너배우 웃음어린 그 모습을
쌍안경을 드시고 익혀보시던 수령님
박수를 보내신다
크나큰 박수를 보내신다

이 땅을 떠나 살아도
민족의 넋만은 잃지 않는
조선옷차림의 그 모습에서
나라없던 수난의 세월을
생각 깊이 읽고계시는 수령님

눈물겹던 《아리랑》 노래를 안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부평초처럼 흩어져 갔던

그 부모들의 자식들이
《아리랑》 노래를 다시 안고 온
격동의 이 순간

자애로운 수령님을 우러러
소리없이 흐느끼는 배우들모두를
다 안아주시려는듯
큰손 높이 흔드시며
보내시는 박수 박수

아 하늘과 땅
온 세상이 다 듣고있는가
조선사람으로 태어난
그 긍지, 그 자랑이
크나큰 그 박수갈채에 다 비껴있지 않느냐

노래를 불러도
우리 노래를 부르면
피멍이 들도록 맞아야 하던
그 세월엔
이 땅을 떠나 살아야만 하던
우리 민족이
오늘은 위대한 그 손길에 받들려있지 않느냐

기빠라, 기빠라
조선민족이여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신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

끝없이 올려가는
위대한 그 박수갈채에
인간의 참다운 새 세계가 꽃피어나라

나도 받고싶어라 외 1 편

주광남

아직은 우리 태어나기전
반일투사들을 맞으시던 그날처럼
다름이 없으시구나
만경대초가집 사립문은 오늘도 열려있고
숨엄히 트랙에 들어서는 마음속에
환하신 영상으로 반겨맞으시는
혁명일가의 뜨거운 인정

행주치마에 젖은손 문지르시며
강반석녀사께서 마주 달려나오실듯
어서 들어가자고
다정히 내 어깨 떠밀어주실듯

방문을 여신 김형직선생님
붓을 드신채
구면인듯 손 저으시며
나를 부르시는것만 같아

후더움에 젖어
선뜻 걸음 못떼는 이 가슴에
울려와라 부엌에서는
리보익녀사의 낮은 기침소리
들릴듯말듯 솔뚜껑 열리더니
끓는 죽가마에
물 한바가지 더 붓는 소리

아, 나도 받고싶구나
가정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고난속에도 늘 웃음으로 맞아들이며

투사들을 그토록 아껴주시던
혁명일가분들의 고귀한 사랑
철철 고인 그 죽물 한사발!

홀홀 불며 마시고싶구나
목메여 눈굽 흠치던
그날의 반일투사들처럼
마시면 한생토록 이 가슴에 고여
혁명가의 삶을 꽃피우는
자양분이 될 그 진정

준엄한 혁명의 먼먼 길
눈보라 가시덤불 그 아무리 험해도
진함 모르는 힘이 되어 솟고
굴함 모르는 열정이 되어 끓을
한없이 고결한 그 사랑

당을 따라 한생
변함없이 가고 갈 마음,
행복 넘친 오늘이기에
시련 모르는 새 세대이기에
더 간절해지는 생각이어

아, 마시고싶구나
투사들의 심장 사랑으로 덥혀
의리로 한생 뜨겁게 끓게 하던
혁명의 고향집 그 죽물 한사발
물 한바가지 더 부은
그 죽물 한사발!

걸자, 이 길을

걸자 이 길을
벽찬 파업으로 어깨가 무거울 때
어려움앞에 간혹 의기 꺾지려 할 때

누구든 스스로 이 길을 걸자
걸자 이 길을

우리 마음 조이던 요란한 기대소리
오히려 좋으신듯 환히 웃으시며
아버이수령님 걸으신 직장구내길

첫순간엔 만나뵙는 영광에 부풀던 가슴
얼마나 깊은 생각에 젖어들었던가
백두산의 눈빛인듯
그이 머리우 석연한 흰서리에...

문득 눈앞에는
때아닌 백두의 눈보라
항일의 대오 이끄시며
눈보라 헤치시는 젊으신 그이 영상

아, 뜨거움에 젖어 다시 우러르니
그날의 그 고난의 흰눈
아직도 다 녹이지 못하신듯
그렇건만 오늘도 그 길 이어가시는 모습!

걸으시여라
승벽내기의 일숨씨들 대견하시여
새로 태어난 우람한 채탄기들
그것이면 만족이고 기쁨이시여
수령님 웃으시며 즐거움에 넘치시여

조국의 무궁한 번영만이
인민의 더 큰 행복만이
한생의 뜻이고 의지이시기에
열정에 넘치시여
안고오신 새 구상 펼쳐주신 길

세멘트로 다져 반듯하여도
우리 수령님 딛고오신
백두의 흰눈이며 전선의 흙먼지
폐허의 재가루며 대건설장 불모래
승엄한 마음속에 다 밝히는 이 길

걷자 이 길을
그이 한평생 이어가시는
거룩한 혁명의 자욱 따라짚으며
이 길에 뜨거이 짓든
그이 숨결로 큰 호흡하며

짚어가는 한자욱에
한생의 삶이 집약되는 길
혁명전사의 성스런 발걸음 새롭게 떼며
오, 이 길을 걷자!
너나없이 걷자 이 길을!

만경대의 노래

(중국) 설덕감

만경대의 수수한 초가집
그것은 수수한 초가집이 아니노라
그 집에서 위대한 인간 탄생하시였어라
그 집에서 민족의 태양 솟아올랐어라

썰매바위, 군함바위, 만경봉...
원대한 뜻을 지니신 수령님
몸과 마음 다지신곳
산들바람에도 강물에도 무지개에도
광복의 길 비껴있노라
만경대의 갈림길에는
수령님 강선으로 다녀가신 발자국 찍혀있어라

그 길을 이어가시며
자욱한 초연을 밀어내고

다시 새 조선을 꽃피우셨나니
온 나라 인민들 만경대에
일편단심 붉은 마음 바치여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벗들
깊은 경의를 보내여라

아, 푸른 솔숲 갯가지 꽃밭속에
파묻힌 아름다운 만경대
천리마로 달리며 꽃피운 사회주의
만경대를 더더욱 빛내여주어라

아, 그것은 수수한 초가집이 아니여라
그 집은 수령님의 끝없는 예지를 펼쳐주어라
그 집은 주체사상과 더불어 길이길이 빛을 뿌리리

새로운 별

세주 방갈리 깨이따

어두운 밤하늘에 못별이 반짝여도
지구의 한쪽만을 비치건만
1912년 4월 15일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서
위대한 별 솟아올라
온 누리에 빛을 뿌리네

우리모두 우리르네
우주를 밝히는 찬란한 그 별을
그 별빛아래 사람들 자기 운명의 주인되고
빛나는 앞길 개척해가네

그 빛발은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

위대한 그 별
대를 이어 인류의 앞길 밝히네
지배와 예측 쓸어버리며

영광을 드리노라

제국주의와 온갖 사회악 이겨나갈 힘
우리에게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떨게 하거니

김일성 그이는

억압받는 인민들의 등대
정의의 위업의 수호자
사랑과 예지로 빛나는 그이
3세계인민들 마음속에 영원히 제시리

오, 자애로운 아버지
그이의 위훈에 영광을
그이의 업적에 감사를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하노라
탄생기념일을 축하하노라

(필자는 기네 **김일성** 농업과학연구소
연구사임)

그이의 모습

최정용

아침에 저녁에 깊은 한밤에
그리네 친애하는 그이의 모습
인민의 기쁨을 마련하시고
새날을 맞으시는 숭엄한 모습
언제나 떠오르네 마음속에
아, 자애로이

가슴에 안겨진 봄빛이런가
그리네 친애하는 그이의 눈빛
꿈같은 미래를 안아오시며

예지로 빛나시는 일정의 눈빛
어데가나 안겨오네 마음속에
아, 해빛처럼

그 음성 들으며 천년을 살리
그 손길 잡고서 만년을 살리
한생을 모시고 우리 살아도
순간도 그리워 달려가는 마음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하리
아, 그이 모습

빛나는 로정

리창록

뽕얀 비발이 안개마냥 온 공간을 자욱히 덮는다.
보슬비라고 별치 않게 여겼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발은 점점 굵어져 비웃입은 아래도리가 축축해지고 온몸이 으시시 떨린다. 제다가 길은 왜 이 모양인지 누런 진창이 한발자국 내디디고 쳐들면 한키로그램씩이나 달라붙어 가뜩이나 힘든 걸음을 더디게 해준다.

가도가도 끝이 없을 길, 락타등같이 구불구불한 산등성이 달구지나 드나들 정도의 길 량옆으로는 새로 갈아엮은듯한 발이 끝없이 펼쳐졌다. 곳은 날씨탓인지 사람하나 볼수 없는 태고연한 이 산간오지에서 오직 나혼자만이 진창길과 씨름을 하고있었다.

(친구의 도리를 지키기란 참...) 실은 한 부서에 있는 친구가 출장지에 있다는 자기 형을 꼭 찾아가달라고 한 부탁을 받은터였다.

《아직도 마을이 먼가?》

뽕얀 안개는 가서질줄 모르고 점점 더 짙어갔다.

나는 연신 목을 빼들고 보이지 않는 앞을 쏘아보며 기계적으로 발을 놀렸다.

골바닥을 거슬러 또 한등성이 올라섰을 때였다.

나는 저만치 앞쪽에 희옅스름한 물체가 우뚝 서있는것을 보았다. 사방 강냉이밭뿐인 여기에 대체 무엇일까? 나는 호기심을 안고 바빠 다가갔다.

하얀 조약돌로 정히 둘러싸여있는 그리 크지 않은 재밋 대리석비문이었다.

비문을 읽는 나의 가슴은 몽클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현지도도 하신곳

1955. 7. 25》

순간 비물에 한결 더 빨강게 살아난 글자들과 하얗게 씻긴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거대한 인력을 가지기라도 한듯 나를 끌어당긴다. 내가 딛고 선 이 길에 우리 수령님께서 서계시였다고 생각하니 이 길이 더없이 소중하게 여겨진다. 아니 평범한 이 길이 그 어떤 거대한 의미를 띠고 안겨왔다.

나는 방금전에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다. 산릉선을 따라 우불구불 치달아오른 크나큰 사변을 안은 이 거룩한 길은 지금 너무도 조용히 누워있지 않는가.

나는 영광의 이길에 발걸음을 내딛기 저어하며 조심조심 사적비 돌레를 돌아보았다. 그날의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찾아내기라도 할것처럼...

불현듯 가슴속 깊은곳에 소중히 간직된 잊을수

없는 추억이, 흰눈우에 찍혀진 두줄기 바퀴자욱이 생생히 떠오른다.

내가 7 살때일가. 그랬다. 장난이 제일 세차다고 말할수 있는 나이때라고 기억된다. 나는 아침부터 코끝이 빨강게 되어가지고 강가에서 썰매타기에 어찌나 열중했는지 지구가 거꾸로 돈다해도 아마 느끼지 못했을것이다.

갑자기 우리들또래의 한 아이가 강둑에서 소리쳤다.

《애들아, 아버지원수님께서 오셨대!》

병병해있던 우리는 급기야 타던 썰매도 팽개치고 저마끔 와- 달려갔다.

나는 제일 선참으로 달려가야만 아버지원수님의 품을 독차지할수 있다는 그 한가지 생각으로 큰 아이들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종주먹을 부르짖고 뛰고 또 뛰었다. 어른들이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그속을 마구 뚫고 나왔으나 우리는 아쉽게도 한발 늦었다.

저멀리 하얀 눈이 깔린 제방길에 뚜렷이 찍힌 두줄기 바퀴자욱이 유난히 나의 눈굽을 쿡 찔렀다. 이 바퀴자욱을 따라 달리고 달리면 아버지원수님의 품에 안길수 있을것만 같았다...

나에게는 그때의 그 길이 어쩐지 지금의 이 길과 비슷해보였다. 아니 서로 깊은 인연을 가지고 하나로 이어져있는것만 같다. 내 가슴속에 깊숙이 간직된 어린시절의 그 길은 저 멀리 북변의 압록강기슭이어서 지금 내가 딛고선 위대한 사연을 안은 이고장과는 비록 멀리 떨어져있건만,

나는 이런 느낌이 들었다. 하긴 지하철도에 찾아가도 수령님 다녀가신 지하역, 상점에 들릴라치면 수령님 다녀가신 매대, 또 친구의 집을 찾아 계단을 오르다보면 수령님 다녀가신 집, 빠스와 전차, 식당과 백화점...

그러고보면 수도 평양의 넓고 넓은 길우에 찍힌 현지도도의 로정은 나의 어린시절 추억이 깃든 조국의 한끝에로, 여기 깊고깊은 산간오지로 잇닿아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우리 수령님께서 가보지 않으신 고장, 그이의 은정이 미치지 않은 마을이 어디 있으랴.

인민들이 사는곳이면 다 가보아야 한다시며 걷고 걸으신 현지도도의 그 길은 끝없이 련련히 곳곳마다에 뻗어 우리 나라의 지도들 무수한 선들로 덮여리,

어찌 우리 나라뿐이라, 세계혁명을 위하시여 대

륙과 대양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로 이어졌으니 이 짧은 지면에서 그것을 어찌 일일이 다 꼽을수 있으랴.

생각해보면 우리 수령님 걸으시는 현지지도의 그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던가.

해방의 감격으로 들끓던 잇을수 없는 그해, 20 년 만에 다시 보는 그리운 고향집을 지척에 두시고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찾아주신 그 갈림길에서부터 일가... 알수 없구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한평생 혁명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시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공산주의자의 귀감이다.》

나는 여기로 떠나오기 얼마전에 흙깔이정형을 취재하러 강동군에 나갔다가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한 일군을 만났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의 별에 끄스 겹스레한 얼굴은 웬일인지 침중해보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던 그날의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듭되는 청에도 무관하고 고개를 수긋한채 말없이 앉아만 있는것이였다. 그러다가 갈린 목소리로 《기자동문 나이가 몇이요?》 하고 물었다. 《서른다섯이라... 그러니 아직 잘 모를테지.》

(무엇을 모른단말인가? 대체...)

《내 나이 예순이 다 돼오지만 아직도 구실을 하자면 멀었소.》

《?》

《그날 찬바람 부는 포전길에서 우리 수령님을 뵈옵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 전보다 머리칼은 더 희어지셨는데 그이께서 받고랑사이를 걸으실 때 어떻게나 송구하던지...》

글쎄 우리 수령님 년세가 올해 어떻게 되시나. 응, 그런데 오늘까지... 얼마나 먼길을 걸어오셨소. 그리두 고생 많으신 수령님을 쫓주단우에 모시지는 못할망정... 안될 말이지, 정말이지 자식된 도리를 지키자면 멀었소. 내가 이럴진대 자네같은 젊은이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눈굽은 확 달아올랐다.

한평생을 현지지도의 길우에서 보내시는 우리 수령님!

몽클해지는 가슴속에 수령님께서 하신 간곡한 가르치심이 되새겨지였다. 자신께서는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려는 우리 인민의 념원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신다고,

인민들이 잘 살게 되면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게 될것이며 자신께서도 장수할수 있다시던 그 말씀...

인민의 행복은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의 좌우명이고 리념이며 소원이시다. 그렇다, 인민을 위한 원대한 뜻과 위대한 사랑으로 일관된 아,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

나는 생각해본다. 끝없이 뻗어있는, 아니 끝없이 이어지고있는 영광의 로정을 두고.

력사에는 일생을 탐방과 려행으로 기록을 세운 사람들이 적지 않다. 모험심에서 시작되고 명예로 끝난 그 길이 제아무리 길다한들 그 거리를 측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것이다. 땅우의 일정한 너비의 공간에 대한 계산에 지나지 않을것이기.

하지만 우리 수령님 걸으시는 현지지도의 그 길을 이렇게 길이의 단위나 시간으로만 재일수 있단 말인가.

영광으로 수놓아진 빛나는 로정의 그 한메터 한메터가 낳은 위대한 기적과 변혁, 현지지도의 길에서 흘러간 그 한시간, 한시간이 안아온 거창한 창조물들, 이 나라 모든 가정의 포근한 행복과 아이들의 밝은 미래로 된 그 거룩한 자욱자욱을...

길... 그러고보면 길이란 단순한 지리학개념만은 아닌 시간과 공간이라는 보다 립체적인 폭과 무게를 가진 숭고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언젠가 나는 사적부문의 한 일군으로부터 아버지 수령님께서 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놓으면 지구를 몇바퀴 돌고도 남을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적이 있다. 그러나 그런 수학적계산으로서도 우리 인민을 위해 바쳐오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로고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얻어내기는 어려울것이다.

하루를 한세기 맞잡이로 맞고보내시는 우리 수령님의 사색과 실천, 매순간마다 겪으시는 로고와 심혈의 깊은 의미를 어떻게 헤아릴수 있단말인가.

그것은 그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가셔도, 그 어떤 완전무결한 지능의 컴퓨터로써도 결코 산출할수 없을것이다.

다름아닌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의 행복의 진가가 있는것이며 빛나는 로정의 참된 의미가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영광의 로정을 따라 걸음을 옮기는 나의 앞길에 우리모두의 행복과 기쁨으로 된 큰길이 곧게 끝없이 이어지는것이였다.

옛 정

백남룡

1964년 초가을이다.

담청색하늘에서는 여름물기를 채 말리지 못한듯 가장자리가 터실터실한 구름송이들이 한가로이 해별을 쪼었다. 그밑으로 제비들이 분주히 날아다녔다. 날개죽지가 튼튼치 못해가지고도 엄지를 따라 창공높이 욱망껏 날아올랐던 새끼제비 한마리가 지쳐서 떨어질듯 내려오더니 전선줄을 거머쥐고 숨을 토했다.

쭉새풀과 수염풀, 엉성퀴마위의 잡초들이 무성한 둔덕너머로는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골개강인 중덕천의 소연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더위를 실은 미풍이 난알 영글어가는 구수한 냄새와 독이 오른 풀들의 싱그럽고 뚝은 냄새, 들꽃의 향기를 듬쭙듬쭙 안아왔다. 막물이 지는 참외의 달작지근한 냄새가 물씬 코를 찌른다.

새초지붕을 하고 갈대를 결어 서늘하게 사방을 둘러막은 원두막이 참외밭귀퉁이의 돌무지옆에 엉겨주춤 서있다. 알심있게 세우지 않아서 옆으로 기울사했지만 참외밭을 지키는 초소막의 위엄은 그대로 보존하고있었다.

원두막안에는 농립모를 이마덕까지 눌러쓴 오십대의 농장원이 가마니침상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내륙의 바람과 벌에 찢는 수수떡빛의 얼굴, 서덜밭고랑처럼 패인 이마의 주름살, 흐린 구름조각마냥 생기를 잃은 눈동자... 그는 원두막지기 강진삼이었다.

하늘갯은 푸르고 산천은 가을정취가 무르녹고있었지만 강진삼의 마음속에는 쓸쓸한 고독감이 밀려들었다.

진삼은 그것이 집을 아직 못잡아 늙은 안해와 막내딸을 데려오지 못하는 서글픈 애수에서 오는 감정만은 아니라는것을 알고있었다. 《원두막지기령감》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작업반장파만 의논하고 참외를 팔라파서는 저울에 달구기 바쁘게 가버리는 손님들때문에 그런 고독감이 오는것은 아니었다.

하긴 참외밭에는 그의 짜져온 땀방울이 스며있었다. 반년전에 고향읍에서 가까운 이 농장에 주저앉은 진삼이가 농산반일을 하면서 스스로 궁리해낸것이 참외밭이었다.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향수병에 걸린 지친 몸을 끌고온 강진삼은 고향물을 마시자 그래도 힘이 솟아 이 버려둔지 오랜 쑥대밭을 일구고 막돌을 취내고 단침의를 심었다.

진삼은 사람들이 참외밭에 바친 《원두막지기령감》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것을 별로 섭섭히 생각지는 않았다. 그들이 옛날 자기네고장사람을 몰

라보는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겼다. 그는 늙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고향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더 빛이 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죄스러움에 시달리곤 하였다. 진삼은 마치 고향사람들이 너는 해방전에 읍거리 《객주집》에서 편안히 살더니 어디로 피해갔다가 왔는가? 늙으니 고향이 그리워, 죽어묻힐 땅을 찾아왔단말인가? 하고 질책하는것만 같아 늘 괴로웠다.

강진삼은 울적한 심사를 달래려고 담배쌈지를 꺼내어 엽초를 말았다. 푸른 우유빛의 독한 썩래기연기는 진삼의 폐장을 태우고 검컴한 얼굴을 그슬려 감쌌다가는 무더운 바람에 몰려 새초이영새로 빠져나갔다.

원두막지기의 습관적눈길은 참외밭두리와 강변 둔덕쪽을 살폈다. 오늘도 아이들은 참외밭에 그림자조차 없진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적할 때는 차라리 애들의 성화라도 받았으면 마음이 편할지도 몰랐다. 그는 아이들을 혼내운것이 못내 후회되었다.

...참외밭에는 농장마을아이들보다 읍거리아이들이 더 기여들곤했다. 애녀석들은 진삼이가 헛눈을 파는 사이에 재빨리 개바자를 비집고 들어가 가랭이끝을 줄라맨 바지안에 참외를 수북이 채워가지고 냅다 도망치는것이였다. 아이들은 헤덤비며 황망히 참외를 따느라 넌출을 마구 짓밟아놓아 오히려 공순히 따가게 하는편이 나올 정도로 손실이 컸다.

작업반장은 참외밭을 푹푹히 지켜내지 못하는 그를 두고 책망이 잦았다. 농장부수입이 낮아진다는 것이였다. 반장은 그더러 어떻게든 한녀석을 붙잡아 혼내우라고 일켰다. 그러면 다른 애녀석들도 겁을 먹고 참외밭에 없진거리지 못한다는것이다. 하지만 산토끼처럼 날쎈 애녀석들을 어떻게 붙잡는단 말인가.

진삼은 두루 궁리하다가 어느날 한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짚뽕치에 자기의 옷저고리를 입히고 헌 농립모를 씌워서 원두막침상에 척 눕혀놓았다. 멀찌기서 보면 태평스레 낮잠을 자는것 같았다. 그사이에 진삼은 아이들식으로 온몸을 나무잎사귀와 풀로 위장하고 참외밭울타리옆의 수수밭속에 숨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싶었지만 도꼬마리잎을 따서 우물우물 씹으며 근기있게 기다렸다.

이윽고 아이들의 속삭이는듯한 말소리와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뒤미처 풀숲을 헤치는 잣은 발걸음소리가 그를 긴장시켰다. 참외밭개바자와 수수밭사이길로 머리에 풀방구리를 쓴 여라문명의 애들이 조심성없이 다가왔다. 아마 참외막지기령감이 원두막에서 낮잠에 곯아떨어졌으니 안심하

는 모양이었다.

틀림없이 그를 늘 골탕먹이는 읍거리 애녀석들이었다. 이마에 젖은 머리칼이 착 달라붙은 키가 그중 커보이는 아이는 풀방구리를 뒤통수에 눌러썼다. 그 애의 풀방구리는 개버들가지들로 엮었는데 크로 바꽃장식을 하고 긴 창포잎을 하나 새기처럼 멋지게 꽃았다. 화려한 풀방구리를 보아서도 《두목》녀석이라고 짐작되었다.

아이들은 지난 가을에 찍어둔 아카시아대들로 열기설기 엮은 개바자를 쭈시고 들어가려고 푸석거렸다.

진삼은 수수밭속에서 큰기침을 짓고 나왔다. 아이들은 뜻밖의 참외막지기령감의 출현에 그만 아연해져서 달아날념을 못하고 그자리에 뿌리박힌듯했다. 당황과 공포와 잘못에 대한 용서를 바라는 애들의 순진한 얼굴을 보느라니 차마 붙잡고싶지는 않았다. 그래도 막지기의 본분을 저버릴수는 없었다.

진삼은 《두목》녀석에게 다가가 술뚜껑같은 손으로 그 애의 어깨죽지를 움켜쥐었다. 그제야 편뜻 정신을 차린 다른 애녀석들은 헤덤버치며 수수밭속으로, 풀숲길로 노루새끼들처럼 내뒹였다.

《이놈들 게 쫓겨라!》

진삼은 발을 굴러 뛰는 애녀석들의 뽕무늬에 불을 지저놓았다. 그러고나서 붙잡은 아이의 풀방구리를 벗기고 격지손으로 골통을 그닥 아프지 않게 쥐여박았다.

진삼은 아이를 원두막으로 끌고갔다. 골통을 뜯겨준것으로 벌써 화김이 싹 빠져버렸다. 하지만 인차 놓아주지는 말아야 했다. 애녀석들의 버릇을 굿혀놓을수 있었다. 그는 아이의 바지에서 혁띠를 뽑아냈다.

《바지피춤을 붙잡고 원두막밑에 꼼짝 말구 서있거라. 부모가 널 데리러 오기전에는 밤중까지도 못간다.》

피약벌이 내리쬐이는 참외밭주변에서 원두막밑은 유일한 그늘이었다.

두어시간이 지났는데 작업반장이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농장관리위원회에 전화가 온것이다.

붙잡힌 아이는 뜻밖에도 군인민위원장의 막내아들이었다...

강진삼은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먼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아이들을 너그러이 대하지 못한데서 오는 응당한 결과였다. 이러나저러나 그의 옛고향읍거리아이들이 아닌가. 비록 아이들이 개바자를 쭈시고 참외를 따갔지만 그래도 허술한 참외막지기를 상대하는 사람은 아이들인것이다. 참외가 먹고싶어 그랬을 아이들을 영 쫓았으니... 진삼은 씨래기담배연기가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무더운 바람이 원두막의 새초이영새로 나들었다. 바지랑대끝에 앉은 고추잠자리들이 등배기가 따가운지 날개를 바짝 접어 몸을 가리웠다. 한낮의 고요

속에 산들이 줄고 멀리 풀밭에서는 배부른 소의 외로운 영각소리가 뜨문히 울린다.

불시에 아이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참외밭 처켄 최뚝길로 여러문명의 아이들이 지나가고있었다. 읍거리아이들이 분명했다. 중덕천에 미역감으러 가는 모양이었다. 풀방구리를 썼던 그 애도 있는것 같았다. 아버지한테 줄경을 치렀을 그 애를 만나 참외 몇알이 아까와 붙잡은것이 아니라고 화해하고싶었다.

《애들아!-》

진삼은 손을 흔들었다.

아이들은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보더니 쓰거운듯 돌아서 강변둔덕쪽으로 걸어갔다. 마치도 진삼이가 이세상사람이 아닌듯 외면했다.

진삼은 마른 침을 피롭게 삼켰다. 그는 나무꼬챙이로 가슴을 찔리운듯한 아픔을 느꼈다.

아이들이 강둔덕너머로 사라지는것을 멍하니 바라보던 진삼은 힘없이 원두막사다리를 내려왔다. 그는 싸리팡주리를 옆구리에 끼들고 참외밭으로 들어갔다. 그는 왁새걸음을 하며 참외를 골라랐다. 배꼽이 노랑고 달콤한 향기가 코를 찌르는 큰참외들이었다.

진삼은 참외팡주리를 안고서 강둔덕길로 향했다. 그러나 중덕천의 여울물이 보이는 풀숲에 이르자 차츰 걸음이 떠졌다.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차버릴것 같아 걱정이 들었다. 아닌게아니라 아이들은 벌써 한차례 미역을 감고 모래밭에서 몸을 덥히면서도 강변풀숲길에 서있는 진삼이쪽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참외팡주리를 안고 고목처럼 박혀있는 진삼의 난감한 처지를 다행히 승용차소리가 구원해주었다.

읍쪽에서 먼지를 뽀얗게 일구며 달려온 승용차는 참외밭옆의 길가에 멈춰섰다. 작업반장이 먼저 내리고 뒤따라 몸집이 뚱뚱한 사람이 앞자리에서 힘들게 내려섰다. 곁에 옆주머니가 달린 소매긴 흰샤쓰를 입은 풍채좋은 그 사람은 군인민위원장이었다.

진삼은 두려운 존경심과 함께 송구한 생각이 들었다. 아이를 붙잡고 쥐여박은 일때문에 온것만 같은게 불안스러웠다.

그들은 원두막쪽으로 가려다가 강쪽에 서있는 진삼이를 보자 서둘러 걸어왔다. 작업반장의 기쁨에 뜬 얼굴색을 보니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긴것 같기도 했다.

진삼은 참외팡주리를 내려놓고 접이칼처럼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음, 동무가 참외막지기구만...》

군인민위원장은 빙글썩 웃었다. 자기 아들을 혼썰내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모양이다.

《이름이 강진삼입니까?》

《예...》

《왜정때 우리 중덕읍에서 살았습니까?》

《예...》

《〈객주집〉에서요?》

《그…렇습니다.》

진삼은 가벼운 불안에 싸여 고개를 숙였다.

《농장관리위원장동무가 아니었다라면 진삼동무를 찾지 못했겠습시다.》

군인민위원장의 기빠하는 말에 진삼은 의아쩍어 얼굴을 들었다.

미역감던 애들이 어느새 보고 달려왔는지 그들을 둘러싸고있었다. 진삼에게 붙잡혔던 소년은 아버지가 있어선지 호기심어린 아이들뒤에 반쯤 몸을 숨기고있었다.

《저… 무슨 일이?…》

진삼은 격정절반해서 조심스레 물었다.

군인민위원장은 한걸음 다가와 그의 손을 부여잡았다.

《진삼동무, 수령님께서 읍에 오셨습시다.》

《야!-》

아이들이 먼저 환성을 질렀다. 눈치빠른 애들몇은 벌써 읍쪽으로 장달음을 놓았다.

강진삼은 멍하니 눈을 크게 떴다. 부풀어오른 기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는 가까이 선 아이를 끌어당겨 머리를 쓰다듬었다. 파도마냥 안정을 잃고 몽롱한 환희에 뜬 진삼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몇해전에 청년발전소준공식에 참석하시었고 도내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 군에 찾아오셨다는 인민위원장의 흥분어린 말소리를 겨우 가늠해들었다.

《수령님께서 진삼동무를 찾고계십니다.》

《저를요?!…》

진삼은 한순간 주위의 들판과 산들이 핑그르르 도는 감을 느꼈다. 심장이 메질을 하고 흥분에 어질어질해져 땅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서있기 어려웠다. 《〈객주집〉 사연으로 부르시다니?… 정말 아득히 흘러간 세월에 있은… 그 일들로 해서 찾으실가?… 그러자 마음속깊이 가보처럼 수십년간 소중히 간직했던 추억이 깨어나 설레기 시작했다.

옷통을 벗어 어깨에 걸친 아이들이 존경과 부러움이 담긴 눈길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끌려주던 허술한 참외막지기령감을 진짜 수령님께서 찾으셨을가 하는 의혹의 눈빛들도 있었다.

《자, 어서 차에 갑시다. 수령님께서 읍거리에 있는 왜정때 객주집마당에서 기다리고계실겁니다.》

군인민위원장이 재촉했다.

《이런 차림으로요?》

진삼은 구김살이 잡히고 무릎이 나온 자기의 스프리작업옷을 황망히 내려다보았다.

작업반장이 허둥거리는 진삼의 구겨진 옷자락을 퍼주고 흰 농립모를 벗겼다. 그는 주머니에서 빗을 꺼내주며 호기심을 참지 못해 물었다.

《진삼아바인 언제 수령님을 만나뵈웠습니까?》

진삼은 기쁨에 젖은 눈을 슴벅이며 곁에 세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래전 일이지요. 내가 아홉살이었으니까… 이에만할 때지요… 저, 반장동무, 애들에게 참외를 줄 주어도 되겠지요?》

《어서 그러십시오. 아바이가 가꾼건데…》

강진삼은 땅에서 참외광주리를 집어 끌어안고 단 참외를 아이들한테 나누어주었다.

《너석들, 어서 먹어라. 날 욕하지 말구 래일부터 참외밭에 오너라.》

강진삼은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차가 흠칫 떨며 앞으로 움직이자 진삼은 자기가 진정 수령님한테로 간다는 현실적행복감을 깨달았다. 그는 서리진 머리를 쓸어들렸다. 젊음이 되돌아온듯 가슴이 설렘었다. 그는 속눈썹을 적시는 눈물을 닦고나서 작은 손들을 흔들며 바래주는 아이들을 내다보았다. 어느덧 아이들의 모습은 강변의 나무들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자 풀들과 들꽃이 핀 중덕천기슭에 서있는 자기의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다.

아홉살의 소년, 다리부러진 소와 조상전래의 유물인 발마지기를 팔아 읍거리에 겨우 차려놓은 초라한 객주집, 영업수지가 맞지 않아 늘 한숨짓던 아버지… 일본놈들의 박해와 착취로 정든 조국을 버리고 이국땅으로 밀려가는 류랑민들의 주머니에서는 돈이 아니라 염초부스레기와 닭은 강냉이알밖에 나오는것이 없었다.

그래도 객주집에는 웃음과 활기가 돌았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와계시였기때문이었다.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나오신 그분께서는 객주집을 거처로 정하시고 독립운동자들과 애국지사들을 만났고 공작원들을 파견하시였다.…

진삼의 깊어진 추억은 45년전의 그 초가을날을 불러냈다.

…뜻을 이루지 못한 이 나라 민족의 독립만세절규가 고향을 부르며 사라지지 않아선지, 강토에 흘린 겨례의 피가 증발해서인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질게 드리웠고 차거운 곳은비가 내렸다.

그 비를 맞으며 김형직선생님을 따라 마당에 들어선 일가분들, 머나먼 길의 피로가 어린 강반석어머님과 두 아드님… 토목바지저고리를 단정히 입고 미투리를 신은 큰 아드님이 진삼에게 다가와 정답게 말을 건넸다.

《난 성주라고 한다.》

진삼은 여덟살의 그 소년을 어깨동무하고 대문밖으로 놀러 나갔다. 그는 새로 사귄 친구가 장차 민족의 수령으로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저 김형직선생님의 일가가 자기네 객주집의 사랑채에서 살게 되고 아버지가 그분네들을 도와주는 것이 무등 기쁘기만 하였다.

진삼은 어린 수령님과 마을의 송아지동무들처럼 놀았다. 다른 아이들이랑 함께 자치기를 했고 압록강이나 중덕천에 나가 낚시질을 하기도 했다. 돌아올 때는 산기슭에서 구름나무열매와 찔팡이, 그리고 서리를 맞지 않아 살이 뽕뽕한 돌배를 따먹기도

했다.

랭기도는 초가을밤들, 머리우 검푸른 하늘에 들꽃마냥 수놓은 별들을 세여가며 숨박꼭질하던 일들이 떠오른다. 자치기를 하는 그에게 일본놈순사의 덩지큰 아들 《말벌》이 트집을 걸며 사꾸라나무지팡이를 휘둘러 때리던 일은 아득한 추억속에서도 어제일처럼 생생했다.

진삼은 매를 피하려고 자라목을 하고 어깨를 움츠렸다. 《말벌》은 승기가 나서 지팡이를 휘둘렀다. 그는 어깨와 잔등이 바스러지는것 같은 아픔에 울면서도 순사의 세력과 큰 몸집에 기가 눌러 양처럼 공순히 굴욕적인 매를 받았다.

그때 급하게 달려온 어린 수령님께서 손을 뻗쳐 순사 아들놈이 내려치는 사꾸라나무지팡이를 받았다. 그것을 두손에 든듯히 거머쥐신 어린 수령님의 눈에서 증오의 불길이 황황 일었다. 굴함없는 도전을 당한 덩지 큰 순사 아들놈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이 허둥거렸다. 어린 수령님께서 불시에 지팡이를 힘껏 나꾸채시었다. 《말벌》은 그만 지팡이를 뺏기고 앞으로 꼬꾸라졌다. 모여섰던 아이들이 함성을 질렀다. 순사 아들놈은 어부채기를 치며 일어섰지만 어린 수령님의 서리발같은 기상과 불이 이는 눈초리에 여기가 질려 한걸음 물러섰다. 어린 수령님께서 사꾸라나무지팡이를 무릎에 대고 똑 꺾어서 그놈의 머리우 멀리로 집어던지시었다. 《말벌》은 두고보자고 울러대며 비실비실 쫓겨갔다.

어린 수령님께서 진삼을 부축하여 일으키시었다. 진삼은 눈물겹도록 고마왔다. 자기보다 한살아래인 그이가 어떤 거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겨우 얼굴을 들었다. 멀리 달아나는 순사 아들놈을 보느라니 굴욕감을 참으며 지팡이매를 맞은것이 부끄러웠다.

진삼은 아픔을 위로해주느라 자기의 어깨를 묵묵히 어루만지는 그이의 손을 퍼들고 보았다. 웅이진 지팡이를 감쳐잡았던 손바닥은 껌질이 벗겨지고 뽕겉게 피가 배나왔다. 그이께서는 손가락을 모아 주먹을 쥐어 상처자리를 감추시었다. 그리고는 팬찮다는듯 웃음을 지으시었다.

김형직선생님일가가 림강으로 떠나는 날이 닥쳐왔다.

오시던 날처럼 작별의 시각에도 찬비가 뿌려졌다. 일본놈들에게 짓밟힌 조국이... 민족이 흘리는 눈물과도 같은 비였다.

압록강 기슭의 물에 나무기둥을 박은 중덕나루터의 잔교우에는 칼을 찬 순사놈들이 버티고 서서 류랑민들의 몸과 짐을 뒤졌다. 기운 바가지를 얹어놓은 피나리보짐을 뒤지다가는 구두발로 차서 압록강물에 떠내려보내기도 했다.

어린 수령님께서 작은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고 그놈들을 노려보시었다. 검은 구름이 낀 하늘같은 어두운 얼굴에서는 금시 번개불이 일고 우

뢰가 터질듯싶었다.

땀에 식은 베적삼을 걸쳐 양상한 어깨가 드러난 사공아바이가 나루배 떠난다고 알렸다.

어린 수령님께서서는 바래주러 나온 진삼의 곁으로 다가오시었다.

《진삼아, 울지 말어... 우리가 헤어지는것도... 저 류랑민들이 떠나가는것도 다 왜놈들때문이다. 저놈들이 우리 나라를 뺏아서 그래. 우리가 울면 저놈들이 좋아한다. 눈물을 닦아. 일없어. 영 헤어지는게 아닐게다. 만나게 될거야. 너 《말벌》이한테 다신 매맞지 말아. 맞서라. 힘보다 굳센 마음이 이긴다.》

어린 수령님께서서는 바지주머니에서 나무권총을 꺼내어 눈물이 그렇게서 코물을 삼키는 진삼의 손에 쥐여주시었다.

진삼은 그이의 체온이 땀 파스한 나무권총을 배허벅에 찰러넣었다. 그리고 손에 들었던 베보자기꾸레미를 그이께 내밀었다.

《반어, 호떡이야. 가다가 배고프면 먹어.》

베보자기안에서 고소한 호떡냄새가 물씬 풍겼다. 진삼의 어머니가 밀가루가 있어 강냉이와 귀밀을 방아에 찼어 팔소를 넣고 숯불에 구운것이였다.

《고마워...》

그이께서는 호떡꾸레미를 받았다.

어린 수령님께서 나루배에 오르시자 사공은 가랑비 떨어지는 물속에 철썩 노대를 박았다. 널판자를 덧대서 기운 낚은 배는 빠그덕거리며 잔교를 떠났다. 강폭이 넓은 압록의 수면에서 잔물결이 일었다. 물이 밀리는 거대한 중압소리, 강바닥의 모래와 바위자갈에 부딪는 소연한 강물흐름소리가 맞붙은 두 나라 하늘공간에 들어찼다. 강을 덮은 안개구름을 꿰치르고 맞은켄 대안의 절벽과 들쭉날쭉한 산봉우리들이 배길을 가로막듯 솟아올랐다. 한점 빛도 온기도 없는 거치른 이국땅으로 김형직선생님의 일가는 떠나가고있었다.

배전에서 누군가 구슬픈 노래를 불렀다.

일천구백십구년 삼월 일일은
이내 몸이 압록강을 건넌 날일세
...

...
압록강의 푸른 물아 조국산천아
고향땅에 돌아갈 날 과연 언젠가

어린 수령님께서서는 배전에 기대서서 진삼을 향해 손을 흔드시었다.

진삼은 불쑥 코마루가 쟁하도록 설음이 북받쳐 나루배를 따라 강기슭을 달려갔다. 허전하고 쓸쓸한 외로움이 그의 가슴에서 출렁거렸다. 스무날동안 자기와 다정하게 놀던 어린 동무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굳세고 부드럽고 정깊은 보호

자가 곁을 떠나는것만 같은것이였다.

《성주!-》

진삼은 목매여 부르며 멀어지는 나루배를 쫓아 물가를 정신없이 달렸다. 강물이 정갱이까지 차오르자 더는 가지 못하고 손만 저었다,

《갈… 가라!-》

《진삼아- 다시 만나자-》

진삼은 비물과 눈물이 뒤엉킨 얼굴을 손으로 문댔다. 바지춤을 휘둘리고 코물을 흘쩍 삼켰다.

노대의 삐거덕소리도 멀어지고 나루배는 비안개 구름속에 형체가 희미해져갔다. 진삼이가 애타게 물가에 서있건만 나루배는 압록의 푸른 물우에서 영 자취를 감추었다. 강물은 안개와 내리덮인 비구름을 핏으며 아무일없듯 태고연한 흐름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 리별로부터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강진삼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수령님을 그리워했던가… 수령님의 자애넘치는 모습이 신문에 실릴 때마다 그는 흥분해서 오래오래 사진을 들여다보며 어린 시절의 모습을 련상하곤했었다. 그러면 나라 없던 그 시절에 놀던 사품치는 중덕천과 들판, 찰팡이가 많은 산기슭이 떠올랐고 못잇을 고향산천에 대한 본능적향수가 가슴을 저리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진삼은 이 농장에 몸을 붙인날 저녁늦도록 낮익은 강기슭과 들길을 걸었고 멀리 불빛이 흐르는 고향읍거리를 애모쁜 마음으로 바라보았었다.…

승용차는 누런 석비레를 깔아 탄탄하고 깨끗한 읍거리를 달려갔다.

×

강진삼은 군인민위원장의 뒤를 따라 오래되어 진물이 낡은 《객주집》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연회색의 수수한 여름사썩을 입으시고 마당가에 서계시였다. 채양이 넓은 밀짚모자의 그늘이 얼굴을 서늘히 가리웠다. 그이의 면방직바지가랭이와 구두에는 흙이 붙어있었다.

《수령님!…》

진삼은 목이 메여 짧은 인사말도 채 못하고 허리를 깊이 굽혔다.

수령님께서는 서둘러 진삼이한테로 다가오시였다.

《동무가 강진삼이란말이지?!…》

그이께서는 진삼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어깨를 부축하여 일으켜세우시였다.

《어디 보지요! 얼굴을 들라구… 동무가… 진삼이 옳소?!… 응?…》

수령님의 눈에 맑은 눈물이 핑 고였다. 처녀애처럼 눈매곱고 볼이 복숭아빛이던 소년이 허리 구부러진 늙은이가 되였다. 손은 마른 나무뿌리처럼 되고 얼굴피부엔 거뭇한 로인반점이 내돋았다.

《동무가 이제 선네티이지?... 곁났었구만… 고생을

했겠소.》

주름살 가득한 진삼의 거칠한 두볼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거친 목소리는 감격에 메여 두간두간 끊어졌다.

《수령님!… 전, 별로… 고생을 안했습니다.… 세월이… 헤여진지… 마흔다섯해가 되지 않습니까.》

수령님께서는 옆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여 눈구석을 찍으시였다.

《그래… 세월이 많이도 흘렀지… 강산도 변하고… 사람도 늙고… 자연의 법칙이라고 봐야지. 눈물을 닦으라구.》

수령님께서는 손수건을 진삼에게 내밀었지만 그는 황황히 돌아서서 피줄돈은 손등과 팔소매에 눈물매닥질을 했다.

《이제보니… 어렸을 때 모상이 기억나는구만. 눈매도 그렇구… 그때 마을애들이 턱에 기미가 붙은 동무를 〈팔기미〉라고 놀려대던 생각이 나오?》

《!!…》

진삼이자신도 잊어버린 기미였다.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손으로 기미를 만져보았다. 수령님의 기억속에 자기의 소년시절 모습이 간직되어있다는것만으로도 그는 무등 행복했다.

《진삼동무, 그동안 어데 있었소? 응… 내가 사방 얼마나 찾은줄 아오? 강진삼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십명은 되는데… 나이가 비슷하구 여기 중덕마을이 고향인 사람은 없더라말이요. 해방돼서 인차 여기를 떠났더구만…》

《!…》

진삼은 가슴한가득 차오르는 감사의 정을 안고 수령님을 우러렸다.

그이께서는 따뜻이 물으시였다.

《인젠 고향에 아주 왔소?》

《예…》

《농장에서 무슨 일을 하오?》

《참외막지기를 하고있습니다.》

《참외막지기…》

수령님께서는 진삼의 어깨를 다정히 부여잡으시고 군인민위원장과 수원들쪽에 돌아서시였다. 못내 기쁘고 자랑스런 표정이 시였다.

《이 강진삼동무가 내 어린 시절의 친구입니다. 우리 함께 저 다락에도 올라다니고 읍거리에서 놀았습니다. 중덕천에서 낚시질도 했습니다.》

진삼은 행복하고 당황해서 몸둘바를 몰라했다. 자기가 수령님의 친구라는 사실이 너무도 놀라왔고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인생의 한 시기도, 시절도 못되는 스무날이라는 짧은 순간에 맺어졌던 송아지우정이 아니던가…

《이 동무의 아버님인 강선생은 우리 아버님의 혁명사업을 성심껏 도와주었습니다. 강선생은 나라의 독립사업을 위해 정력을 바치고 돈을 많이 쓰신분입니다.》

강진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불을 타고 흘러

내렸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세월속에 묻혀 사라졌던 자기 가문의 작은 공적을 수령님께서 발굴하여 고향사람들앞에 내놓아주시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진삼을 돌아보며 나무라듯 말씀하시였다.

《진삼동무는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소?... 내가 동무있는곳은 몰라도 동무야 나를 찾을수 있지 않소.》

《자나깨나 수령님을... 뵙고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애국을 좀 했다고... 수령님을 찾아간다는 건...》

《왜 그렇게만 생각하오. 고생끝에 만나서 옛친구의 회포를 나누면... 그이상 기쁜 일이 어디 있겠소.》

《수령님... 압록강 기슭에서 헤어질 때... 수령님께서서는 저한테 나무권총을 주시며 곳곳이 살라고 당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철이 들어가지고도 객주집울타리안에서 화로불을 끼고앉아 먹고 사는데만 급급했습니다. 수령님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유격대를 거느리구 만주산관에서 싸우신다는 소문을 들으면서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일본놈들을 미워하면서도 마을에서 아무런 반일운동도 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 해방이 됐을 때 읍거리사람들 보기가 부끄럽고 죄스러워 고향을 떠났습니다.》

《진삼동무, 해방전에 동무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요? 일본놈들의 식민지로 된 조국땅에서 먹고 살자니 그랬겠지요. 비록 싸우지는 못했지만 그놈들한테 등을 돌려대고 조선사람의 뉘를 잃지 않고 살지 않았소. 난 그때 압록강의 중덕나루터에서 동무와 헤어지던 일이 생생하오. 그날... 찬비가 내렸는데... 진삼동무는 호떡보자기를 찢지 않게 품속에 안고 나왔다가 내게 주었지요.》

《수령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 호떡은 강냉이가루와 귀밀을 섞어 구운 뽕뽕한 꼬장떡이였습니다.》

《아니, 난 그걸 단순히 호떡으로 생각지 않았소. 어린 마음에도 그 호떡을 나라를 빼앗긴 조국인민이 싸준 정성으로 생각했소. 그래서 중국동북땅에서 일제와 어려운 싸움을 하면서도 동무생각을 자주 했소. 압록의 물가에서 손을 흔들며 울음을 삼키던 어린 동무의 모습과 나루배에 탄 헐벗은 조국류랑민들을 잊어버릴수 없었소. 아마 그런것이 기어이 나라를 찾으려는 내 마음을 더 굳게 해주었던것이요.》

수령님께서서는 널판자가 삐걱거리는 마루에 허물없이 앉으시고 강진삼을 옆에 앉히셨다.

《가죽을 아직 못데려왔는지?》

《...》

《집이 없소?》

배허벅에 두손을 모두어잡고 잠자코 서있던 군인민위원장이 한결을 나셨다.

《수령님, 집이 있습니다. 이 동무한테 읍농장에 새로 지은 문화주택을 한채 주겠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무거운 표정으로 군인민위원장을 쳐다보셨다.

《집을 벌써 줄걸 그랬소. 나많은 사람을 농장학숙에 반년씩이나 있게 한다는건 도덕이 없는 일이요.》

중키의 부관이 수령님께 다가와 떠나실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서는 서쪽의 오덕산마루에 걸린 해를 바라보시였다.

《도당협의회를 아침에 소집했소?》

《예, 아홉시입니다. 이제 가서야 밤에 좀 쉬시고 회의에...》

부관은 수령님의 표정에서 다른것을 읽은듯 말끝은 흐리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노을이 물드는 하늘아래로 흘러간 산발들을 바라보셨다. 여러 시간을 가야 하는 산협길이 그 산발들을 감고 뻗어갔을것이였다.

《새벽 일찍 떠나지요. 수십년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대로야 헤어지겠소.》

수령님께서서는 랑해를 구하듯 너그럽게 미소를 지으시였다.

두손을 마주잡고 어쭈게 서있던 군인민위원장이 활기를 띠였다.

《수령님, 그럼 저녁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소. 위원장동무... 난 사실, 동무네 군의 뽕발들을 돌아보았을 때는 기분이 나빴는데 옛친구를 만나니 다 내려갔소. 허, 그런데 요란스레 차릴 생각은 마오. 진삼동무와는 허물없는 사이니 풋강냉이와 감자같은 이고장 음식이면 되오.》

군인민위원장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대접하게 되었다는 행복감으로 하여 얼굴이 환해졌다.

×

산촌에 어스름이 깃들었다.

마당에서 태우는 모기쭈대가 방안에 흘러들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갈대문발을 드리운 검소한 러관의 장관온돌방에서 진삼이와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으셨다.

둘레가 크지 않은 상에는 군인민위원장이 짧은 시간에 성의껏 차린 음식들이 올랐다. 삶은 풋강냉이와 언감자떡도 있었고, 막두부치지개와 마늘쪽을 넣고 찐 장보시기는 상변두리에 놓였다.

강진삼은 수십년만에 찾아오신 수령님을 푸대접하는것만 같아 피로왔다. 자기가 이 고향에서 떳떳이 보람있게 살았더라면 온 읍거리사람들에게 소리치며 큰 잔치를 차렸을게 아닌가!

진삼은 상앞에 나앉지 못하고 엉거주춤 드리운 손으로 바지주머니에 든 술병을 웅색스레 만졌다. 아까 러관으로 오다가 슬그머니 뒤에 떨어진 그는

부리나케 상점에 들러 리터술을 한병 사넣었었다. 판매원처녀가 커다란 술독에서 퍼넣어줄 때는 수령님께 자기 손으로 술을 부어드릴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에 흥분했었지만 지금은 차마 상표도 없는 막술병을 선풫 꺼낼수 없었다.

《허 진삼동무, 이거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그러오? 송구해말고 나았소.》

수령님께서는 그앞에 초물방석을 밀어놓으셨다.

《내 진삼동무가 집이랑 받아 오בות이 살 때… 레년쯤에 다시 오겠소.》

《수령님!…》

진삼은 울먹였다.

《정말 오시겠습니까?》

《도에 올 때마다 꼭 들리겠소. 이젠 친구를 찾았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소.》

강진삼은 웅색함에서 벗어나 한결 위안을 느꼈다. 그는 초물방석에 앉았다. 그리고 술병을 조심조심 꺼내었다.

주방쪽에 나갔던 군인민위원장이 목이 황새목처럼 긴 술 두병과 잔들을 담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수출상표가 붙은 하얀 병에는 수정처럼 맑은 《백로술》이 불빛에 반짝였다.

진삼은 무안해서 자기 술병을 술그머니 등뒤로 감추었으나 수령님의 눈에 띄고말았다.

《가만… 진삼동무, 그제 술병이 아니요?… 감추지 말고 내놓소.》

수령님께서는 넌지시 건너다보시었다.

《저… 이젠… 도토리술입니다.… 맛이 없구, 냄새가…》

진삼은 옆에서 군인민위원장이 놀래고 당황해서 못마땅한 눈길로 자기를 보는것을 알지 못했다.

수령님께서는 진삼의 송구스런 마음을 풀어주길라도 하듯 소탈히 웃으시었다.

《도토리술이 어떻다고 그럼니까. 어디 봅시다. 상점에서 파는거겠지요?》

수령님께서는 진삼의 손에서 술병을 받아 전등불빛에 비쳐보시었다. 잘 정제하지 못해선지 술이 맑지 못했다. 그이께서는 마개를 열고 냄새를 맡아보시었다. 그리고 환히 웃으시며 진삼에게 술병을 넘겨주시었다.

《쓸쓸한 참나무향기가 풍기는게 괜찮겠소. 산골 술맛이 나겠소. 위원장동무. 이걸 마시지요. 옛친구의 술을.》

《수령님, 어떻게 그런 술을…》

군인민위원장은 자책으로 말을 잊지 못했다.

수령님께서는 그를 따듯이 나무라시었다.

《위원장동무, 너무 걱정 말고 상에 나았소. 내각수상이 도토리술을 마시면 뭐라고?… 인민이 마시는 술이 아니요. 난 동무가 이렇게 뜻강냉이도 삶고 언감자떡과 된장찌개를 차려놓은걸 아주 고맙게 생각하오. 옛친구를 만난 기쁨이 갑절 커졌소. 이런 토배기음식들은 어쩐지 흘러간 어린 시절을 추억

케 한단말이요. 우리 일가가 진삼동무네 집에 함께 있을 때… 언감자떡에다 갓김치를 곁들여 자주 먹군했소. 갓김치는 물이 발강고 쟁한 맛이 좋았소.》

강진삼은 뜨거운것이 전류처럼 온몸으로 흘러드는것을 느꼈다. 그는 도토리술병을 들어 수령님앞에 놓은 잔에 먼저 부었다. 수령님께 술을 부어드리는 행복감으로 하여 그의 손은 떨렸다. 술방울이 식탁에 떨어졌다.

수령님께서는 진삼이와 군인민위원장과 더불어 술잔을 기울이시었다.

《음. 도수가 있구만.》

그이께서는 소탈히 말씀하시고 저가락으로 마늘 쪽을 집어 보시기된장을 찍으시었다. 맛을 보시는 수령님의 얼굴에 놀라운 기쁨이 확 떠오르시었다. 그이께서는 다시금 맛보시고 저가락끝으로 보시기가장자리를 다독이시었다.

《어, 이거 장맛이 여간 야인데?… 위원장동무, 이젠 군에서 담근 장이 맞소?》

《웁습니다. 수령님, 우리 군식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장입니다.》

《맛이 유별스레 좋구만, 좋아… 도에서는 장맛이 그중 제일이었소. 진삼동무 어떻소?》

강진삼은 조심스레 장맛을 보았다. 뜻밖에 처음 먹어보는 장이었다. 달큰하면서도 구수하고 향긋한 맛이 풍겼다. 당분과 함께 콩이 많이 들어가고, 장균발효와 가공이 잘된것이 알렸다. 농장합숙에서 먹는 시큼하면서도 짜거운 장에는 비교할수 없었다.

수령님께서는 진삼의 얼굴표정을 살펴보시고는 무언가 짐작하시는듯 묵묵히 술병을 들어 그의 빈잔에 술을 부으시었다.

《위원장동무, 군내 인민들이 다 이런 장을 먹소?》

《예… 대체로…》

군인민위원장은 버젓한 대답을 못했다. 그는 수령님의 부드러운 눈빛이 발산하는 진실의 엄한 요구앞에서 사뭇 당황하여 얼굴을 붉혔다.

수령님께서는 진지한 표정을 강진삼에게 향하시고 조용히 물으시었다.

《진삼동무네 농장에서선 어떤 장을 먹소?… 이런 장이 공급되오?》

강진삼은 군인민위원장의 긴장한 얼굴을 얼핏 보았다. 그를 난처하게 만들어서는 안될것 같았다. 더구나 하찮은 장문제를 가지고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릴수는 없었다. 진삼은 눈길을 떨구고 떠들떠들 말씀드렸다.

《수령님 저희들 농장에서도… 괜찮은 장을 먹습니다.》

《정말이요?》

《예…》

강진삼의 나직한 목소리는 입안에 잦아들었다.

수령님께서는 몹시 서운한 눈길로 그를 건너다보시었다. 강진삼의 순박한 얼굴에 나타난 꾸며진 표

정이 그이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다.

《섭섭하오. 난 그래도 진삼동무가 나한테는… 옛 친구한테는 진실을 터놓으리라 생각했소. 글썄 이 위원장동무는 내각수상한테 〈걱정〉을 끼칠가봐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지만 동무야 그래선 안되지. 친구의 정은 서로 진심을 나누는데 있는게 아니겠소. 난 어린 시절에 압록강을 건느는 내게 호떡을 먹으라고 주던 동무의 그 소박한 진심을 잊지 않고 있소. 그 밤을 가지고 동무를 찾았고, 이렇게 술상을 마주한게 아니요. 동무는 내게 허물없이 도토리술을 부어주면서도 간격을 두는구만… 참외막지기를 하는 동무나 군내 인민들이 어떤 장을 먹는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정치를 바로 할게 아니요.》

《!!…》

강진삼은 고개를 숙였다. 눈곱에 뜨거운것이 솟아올랐다. 자책감보다도 그 어떤 말못할, 인생에 체험해보지 못한 후더운 진정이 가슴을 파고 들었다.

방안에는 무거운 고요가 흘렀다. 모기쭈 타는 냄새가 간간히 실려오는속에서 삶은 풋강냉이와 언감자떡냄새, 구수한 장냄새가 풍겼다.

수령님께서 산골청취가 도는 그 음식들중에서 풋강냉이 한이삭을 집어 알이 촘촘히 배긴것을 물끄러미 여겨보시더니 이삭꼭대기에 붙은 자지빛수염오리를 뜯으시었다. 이삭흙타기에 배긴 수염오리는 잘 잡히지 않았다.

군인민위원장은 불안스레 몸을 쭈뼛거리더니 겨우 입을 열었다.

《수령님, 사실… 이 장은 생산량이 적어서… 일부 주민들한테만…》

고개를 떨군 군인민위원장의 목덜미는 수수떡빛이었다.

수령님께서 음성을 낮추시었다.

《이런 맛있는 장을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 먹어야 안되지. 그런데 왜 많이 생산하지 못하고?… 애로를 감추지 말고 털어놓소.》

《수령님, 저… 장에 넣을 당분이 부족됩니다.》

《쫄소. 사탕가루는 협의회때 도의 일군들과 토론해서 보내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되겠소? 다른 애로는 없소?》

《없습니다.》

수령님께서 군인민위원장의 대답에서 확신을 느끼지 못하싯듯 진삼이쪽에 묻는 눈길을 보내시었다. 아까와 같이 부드럽고 진지한 표정이시었다.

강진삼은 수령님께 진실을 말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수령님께서 방금전에 그리도 절절히 친구의 의리를 깨우쳐주신것이 아닌가. 일군이든, 평범한 그 누구든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를 안고 살면서 그이께 진실을 감춘다는건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가. 자식은 어느때든지 자기를 길러준 부모를 속여서는 안되는것이다.

강진삼은 옆에 앉은 군인민위원장이 민망스레 여겨졌다. 수령님께서 당부하시는데 어째서 애로를

죄다 말씀드리고 해결받지 못하는가, 그래서 군인민위원장이 아닌가… 진실로 수령님의 걱정을 덜어드린다는 의미를 그가 과연 깨닫지 못했을까?… 엄연히 결함이 있는데도 수령님의 기분을 좋게 해드려야 한다고 사실을 감추고 우점만 보고드린다면 그는 충실한 일군이 아니다. 그시 정황은 무난히, 때로는 기쁘게 면할수 있어도 국가와 인민을 속였으니 후날에는 꼭 수령님 앞에 진실이 드러날것이다. 그때 묵인된 결함이 자라서 더는 감출수 없게 되고 대수술을 받아야 할 병집으로 끌어타지는것이다.

강진삼은 결연히 말씀드렸다.

《수령님, 제 생각엔 당분보다도 콩이 문제입니다.… 콩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조선장은 콩장인데 군내주민들이 먹는 장은 이 장처럼 콩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군인민위원장의 얼굴은 삽시에 컴컴해졌다. 그는 바늘방석에 앉은듯 안절부절못했다.

수령님께서 피로우신듯 조용히 긴숨을 쉬었지만 어쩔지 책망하지는 않으셨다. 퍼그나 진지하고 갈린 음성이지었다.

《위원장동무, 왜 장콩이 부족되오?… 공예작물발이 적었소?》

《그…령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너무 가물어서 콩이 잘되지 않았습다. 거기서 두부와 콩우유를 생산하다보니…》

《콩을 심을만한 묵은 땅은 없소?》

《없습니다. 몇해째 새로 일군 땅들은 뽕밭을 조성하고 알곡작물을 심었습니다.》

《음, 일단말이지…》

수령님께서 무거운 낫빛을 지으셨다. 그이께서는 손가락으로 조용히 상에 방아를 놓으시었다.

방안에 서린 공기마저 무덤고 침침하게 느껴졌다. 군인민위원장은 움쭉 일어나 갈대문발을 감아서 문설주에 걸쳐놓았다. 밖에서 한결 서늘하고 신선한 밤공기가 흘러들었다.

강진삼은 자리에 앉은 군인민위원장의 어두운 낫빛을 보자 묵묵히 눈길을 피했다.

수령님께서 두사람의 침울한 기분을 짐작하셨는지 저가락을 소리나게 집고 호방스레 말씀하셨다.

《내가 장문제를 끄집어내서 분위기가 어두워졌구만… 리해하오. 난 인민생활문제는 작은거라도 스쳐지나지 못하고. 도토리술에도… 콩장에도 다 정치가 배여있는게 아니겠소… 위원장동무, 술을 드오. 진삼동무도… 그리구 식사를 하지요.》

강진삼은 물기어린 눈을 습벅이며 고개를 숙였다. 군인민위원장은 송구스레 두손을 주무르지만 할뿐 술잔을 들지 못했다.

수령님께서 강진삼이 앞에 메밀국수그릇을 당겨놓아주며 부드럽게 말씀하시었다.

《진삼동무, 이번에 나를 만난김에 평양으로 올라가 사는것이 어떻소?》

《수령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진삼은 이슬기가 맺힌 눈을 내리깔고 떠들거리며 말을 이었다.

《저는… 이 고향마을에 그냥 있겠습니다.… 오래 전에 수령님과 일가분들의 발자취가 깃든 고장이구… 아버지의 유골이 묻혀있는 땅인데 저는 아무런 보탬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향을 위해 강냉이 한 포기 심어가꾸지 못했습니다. 수십년을 타고장을 떠다니며 살다보니 그게 죄스럽습니다. 고향산천을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수령님, 이 진삼동무는 서덜밭을 일구어 참외를 많이 심었습니다. 농장부수입을 높였다고 관리위원회에서 평가가 좋습니다.》

군인민위원장이 말쑥드렸다. 강진삼은 얼굴을 붉히고 고집스레 뇌이였다.

《아닙니다. 참외는… 아이들 입살이도 온전히 못합니다. 저는 여기 중덕땅에서 살면서 수령님의 말씀대로 뽕나무를 많이 심어 가꾸구… 그리구 참외 밭도 늘구구…》

《다음엔 또 무얼하겠소? 허허… 내 진삼동무심정을 알겠소. 친구를 따라 강남간다는 말이 있지만… 태를 묻고 자란 산천도 중하지. 자기를 낳은 고향산천을 사랑해야 의리심이 깊어지고 옛우정을 더 소중한 여길거요.》

방안에 숨었던 정적이 깃들었다.

×

강진삼은 초가을의 이밤에 경애하는 수령님과 한 방에서 자게 되었다. 살자리를 칸 널직한 러관방바닥에 흰 팜목이부자리를 깔고 모포를 덮었다.

귀뚜라미가 울었다. 모기쭈대는 다뭇다뭇 사라지고 고산지대의 서늘러운 밤바람이 불어들었다. 낱알이 여우는 뉘새와 들꽃의 향기, 신선한 풀냄새같은 것이 방안에 가득했다.

반쯤 말아놓은 갈대문발너머로 검푸른 아득한 공간속에 반짝이는 작은 꽃송이같은 별들이 초롬이 떠있는것이 보였다. 멀리 들쭉날쭉 시커먼 산들의 어디선가 소쩍새가 가늘게 울었다. 읍거리쪽에서 프락프르가 밤의 고요를 깨치며 통탕거리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강진삼은 엷은 취기와 달콤한 피곤, 꿈같은 행복감, 추억속에서 밤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했다. 그한테는 기억에 회미하거나 세월의 갈피속에 묻혀버려 망각된 일들까지 수령님께서 생생히 추억하시였다.

중덕천에서 털뉘시로 큰 산천어를 잡은 일이며, 다락방에 올라가 김형직선생님한테서 애국명장들의 이야기를 듣던 일, 마을아이들과 같이 독립운동자들을 지도하시는 아버님의 련락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때는 찢팡이열매를 따던 일… 들까지 회고하시였다.

강산에 피로, 불길로 타번지던 독립만세의 절규가 메아리되고, 겨레의 원한과 분노의 눈물이 콧은 비로 내리는 력사의 그날들이 어제일처럼 떠오른다. 침통히 흐르는 압록의 물, 노호하며 사뭇치는 중덕천의 여울물, 기운 쪽박과 피나리보짐을 차고 가랑잎같은 배에 기구한 운명을 싣고 떠가던 류랑민들… 반세기전의 그 고난에 찬 머나먼 력사의 흔적들이 수령님의 추억세계속에 뚜렷이 간직되어있었다. 안해와 딸을 데리고 타고장에서지만 걱정없이 오בות이 살아온 진삼은 벌써 그때의 많은 일들을 잊어버렸지만 수령님께서서는 기억하고계셨다. 압록강 나루에서 헤어진후 지나간 세월 눈비와 불길속을 헤쳐 조국을 광복하셨고 민주러전을 다지고 미국놈들과 전쟁하고… 강산을 덮은 재더미를 헤치고 나라를 복구하고, 건설하고, 혁명을 하면서도, 세계를 안고 계시면서도 수령님께서서는 어린 시절의 그 일들을 잊지 않으셨다. 십년이면 변한다는 강산이 네 번넘게 모습을 바꿨는데도 수령님의 기억속에는, 마음속에는 송아지친구인 소년의 모습과 따스한 옛정이 불씨처럼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것이다.

강진삼은 팜목이부자리에 반쯤 기대여 이야기를 하시는 수령님의 인자하고 소박한 모습을 우려했다. 그는 수령님의 표정이 풍부한 안광, 활기있는 몸가짐, 미소, 부드럽기도 하고 격앙되기도 하는 음성, 추억세계에 심취되고 끝없이 매혹되었다.

한순간 그는 자기가 협동농장의 참외막지기가 아니고 마치 지난날 혁명을 크게 해온 일군같은 생각이 들어 얼굴이 붉어졌다. 자기가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그는 가슴부푸는 자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위대한 수령님과 어린 시절의 다감한 회포를 나누는 이런 행복이 과연 누구에게 차례질수 있단말인가.

강진삼은 술기운이 오르고 행복에 취해서 온몸이 구름처럼 폈다. 그는 눈자위가 무지개빛에 감싸여 수령님의 생각에 잠긴 진중한 모습을 가려보지 못하였다.

《진삼동무는 중덕천에 자주 나가보군하오?》

《수령님… 어린 시절에 놀던 강인데도… 참외밭에서 멀지 않은데도 더위를 피하려나 이따금 나가군합니다.》

《내 중덕천이 물값을 바꾼것 같아서 묻는거요.》

《수령님께서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낮에 차를 타고오면서 보니 중덕천이 옛날 흐름과는 달라진것 같더라말이요.》

《웁습니다. 흐름이 변했습니다. 수년전 장마철에 넘쳐난 물줄기가 맞은편 산굽이를 파고 드러누웠답니다.》

《음… 그래서 중덕천 기슭에 그전에는 없던 묵은 잡초밭이 생겼구만…》

수령님의 지나가듯한 회고의 말씀속에 깃든 의미를 강진삼은 깊이 새겨들지 못했다.

진삼은 수령님을 모신 이 꿈같은 밤이 지새지 말

았으면 하고 소원했다. 이밤이 끝나지 않기를... 시간과 공간속에 멈춰서 영원하기를 기원하면서도 그는 어떻게 잠들었는지 알지 못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에 안겼을 때처럼 수령님의 부드럽고 다정한 음성속에 만시름과 피곤이 따듯이 녹아들었다. 자기도 어찌할수 없는 줄음이 연당이처럼 눈시울에 달리고 온몸이 동화속의 신비세계로 떠가는듯하였다. 술곳이 잠에 든 그는 코를 골았고 철부지 시절처럼 단꿈을 꾸었다.

×

새벽잠이 없는 강진삼은 일찍 일어났다. 수령님께서는 벌써 방에 계시지 않았다. 창문에는 어둡컴컴한 새벽하늘갓이 드리워있었다. 마당가에서 가벼운 인기척이 들렸다. 강진삼은 잠기가 싹 날아나서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안개비가 얼굴을 산득산득하게 했다. 비에 초득초득 젖은 마당가를 거니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진삼에게 반가운 눈길을 돌렸다.

《왜 좀 더 쉬지 않고 일어났소?》

《수령님,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진삼이가 허리를 굽히자 수령님께서서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톡 치고 웃으시었다.

《허, 잠이 다 무어요. 난 동무가 코를 고는 바람에 겨우 눈을 붙였댔소. 토끼잠에 들었다가 서까래 무너지는 소리가 나기에 깨나보니 그냥 코를 골더라말이요.》

《!!...》

진삼이가 송구해서 뒤통수를 긁적거리자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팔을 다정히 잡으셨다.

《새벽공기가 좋구만. 우리 강변쪽으로 좀 산보하지 않겠소?》

《수령님, 기온이 참니다. 비까지 내리는데... 이런 날씨엔 감기드십니다.》

《괜찮소. 안개비를 서늘히 맞지요. 난 중덕천에 나가보고싶소. 어린 시절에 놀던 물굽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싶소.》

《그럼, 우산을...》

《그만두오. 좀 젖으면 뭐라오. 사람들을 깨우느라면 소란해지오. 둘이 조용히 가보기요.》

《!!...》

새벽잠에 취한 읍거리를 벗어나 강냉이밭과 수수밭사이의 풀숲에 가리워진 최쪽길로 한참 걸었다.

이슬비에 씻긴 청신한 공기가 샘물처럼 흘렀다. 읍교외의 어느 집에선가 새벽닭이 선목청을 뽐다가 푹 멎어버렸다.

강진삼은 수령님의 앞에서 길안내를 하며 이슬과 안개비에 젖은 풀숲을 헤쳐드리느라 애썼다. 그러나 강변에 이르기도전에 수령님의 신발과 면방직바지가랭이는 푹 젖었다.

안개구름이 드리운 하늘은 재빛으로 어두웠다. 아득히 멀리 산발너머로 동녘하늘쪽에서 희뵤한 빛이 서렸다. 려명이 트고있었다. 차츰 비살이 서갔다. 강변쪽에서 여울물소리가 들려왔다.

《중덕천이구만!...》

수령님께서서는 팔을 허리에 짊으시고 감개무량한 듯 말씀하셨다.

재빛하늘아래 두터운 명주필처럼 드리운 안개구름이 서서히 떠오르며 산골강이 자태를 드러냈다. 중덕천은 시위를 당긴 활처럼 드러누웠다. 수은빛 물우에서 고르롭지 못한 잔물결이 일고 군데군데서 흰거품이 튀겨올랐다. 쉼없는 물비린내가 풍겨왔다.

수령님께서서는 강기슭으로부터 이쪽 물황칠나무들이 있는곳까지 펼쳐진 드넓은 공지를 눈여겨보시었다. 해를 묵은 새초들과 개버들, 이릅모를 잡초따위들이 무성한 공지는 강을 따라 하류로 뻗어갔다. 그이께서는 혼자말씀처럼 조용히 뇌이시었다.

《중덕천이 과연 물굽을 바꿨구만... 산천이 변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소.》

《그렇습니다. 45년전에 수령님께서 와계실 때는 강이 저 물황칠나무들앞을 지나 흘렀댔습니다.》

《어린 물황칠나무들이 아릅드리가 났구만... 생각나오. 우리가 놀 때는 강기슭에 자갈밭이 조금있었을뿐이지... 진삼동무, 어떻소? 장마가 지면 강들이 이 잡초밭을 넘어나겠지?》

《예, 언젠가 여러번 큰물이 났는데 상류의 흙탕물이 어떤 때는 잡초줄기를 뿌리채 뽑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덕천이 맞은켠 산굽이에 점점 깊이 자리를 잡아선지 이 몇해 어간에는 그리 물이 넘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강진삼은 오랜 세월 대자연의 거창한 변화에 저절로 흥분을 느끼며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서는 생각에 잠겨 멀리 중덕천의 하류쪽과 여울물이 거품을 일으키는 산기슭쪽을 가늠해보시었다.

이슬비는 멎지 않았다. 어둡시그레하던 하늘갓이 연한 재빛을 띠어갔다. 강변우에 시루김처럼 엉킨 안개구름이 산허리를 감싸며 기여올랐다.

강진삼은 밀짚모자를 쓰신 수령님의 어깨주위와 옷자락이 안개비에 젖는것이 안타까왔다. 그는 원망스레 하늘을 쳐다보았으나 우산도 없이 수령님을 모시고나온 자신을 탓하는수밖에 없었다.

《수령님, 그만 들어가십시다. 비발이 굵어집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진삼의 걱정을 흘려들으신듯 묵은 새초와 개버들이 뒤엉킨 강변의 풀밭으로 들어가시었다. 엉정귀와 도꼬마리, 키큰 잡초들이 수령님의 바지가랭이에 감겨들었다.

수령님께서서는 허리를 굽혀 새초와 개버들을 헤치고 바닥에서 흙을 한웅큼 손에 떠드시었다. 그이께서는 흙에서 마른 풀과 잔뿌리들을 골라내시고 손

가락으로 비벼보시었다. 문득 그이의 얼굴에 만족한 기색이 피어올랐다.

《이걸 보오. 모래흙이긴 해도 그만하면 땅이 걸구만.》

《?!...》

강진삼은 무언가 가슴에 마쳐오는것이 있어 수령님의 손에 떠들린 흙을 지켜보았다. 그제야 그는 수령님께서 단순히 중덕천을 보고싶어나온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수령님의 손가락잡으로 시커먼 모래흙이 부슬부슬 떨어졌다. 그이께서는 서둘러 말씀하시었다.

《진삼동무, 저아래강변도 이런 흙인지 어디 시료를 좀 따오오.》

강진삼은 거의나 달려다니다싶이하며 풀숲을 헤치고 흙을 떠왔다. 다 건 흙모래땅임을 보자 수령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시었다.

《진삼동무, 고향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나 발기해보지 않겠소?... 이 강변의 목은 땅을 일구자고 말이요.》

《!!...》

진삼은 별안간 가슴이 몽클해났다.

《군인민위원장한테 제기하고... 읍내 주민들한테도 호소하시오. 도와줄거요. 저 옷쪽 바위산 기슭에서부터 강쪽으로 휘여들게 제방공사를 하면 장마가 저도 물이 넘지 않을거요. 물길이가 끝나지게 되어 제방에 힘도 덜 받을테니까.》

《!...》

《어렵더라도 자연을 다스려야 새땅이 생기고. 목은 잡초밭이 몇정보는 잘되겠소. 하루로 내려가면서는 더 많겠고... 래년에 여기다 콩을 심기요. 그래서 기름도 짜고 맛있는 콩장을 넉넉히 생산해서 군내 인민들한테 공급할수 있을거요.》

《수령님!!...》

강진삼은 크나큰 걱정예 눈곱이 젖어올랐다. 뿌잇한 땅막속에서 도꼬마리씨들이 달라붙고 흙이 묻은 수령님의 젖은 바지가랭이가 안겨왔다. 그의 가슴속에는 인민들의 생활을 위해 잠도 잇고 새벽비를 맞으며 온 마음을 바쳐 헌신하시는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가 무척히 차올랐다.

《수령님!... 강변의 이 목은 땅을... 수십년간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것을...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해 잠깨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수령님께서 발기하신 일을 제것으로 하겠습니까.》

《허허, 웅졸한 생각을 하는구만. 그러니 진삼동무는 아직 송아지시절의 그 순수한 옛정을 가지고 나를 대하지 못하는구만...》

《수령님!...》

진삼은 목이 메여 울먹였다.

수령님께서는 그의 옷자락에 붙은 털가막사리씨들을 뜯어주시었다.

《진삼동무, 난 어제 퍼그나 걸눕고 죄진 사람처럼

얼굴에 그들이 진삼동무를 보고 피로왔댔소. 반나절사이에 동무를 다 리해할순 없었겠지만... 내가 친구한테서 불만스레 느낀건... 나약한 성격이요. 어렸을 때 가지고있던 그 위축된 성격이 오늘도 흔적으로 남아있는것 같소.》

《!...》

《고향을 위해 보탬을 해야지... 하지만 동무는 군센 정신과 의지를 가지는게 더 중요하오. 군인민위원장님이 두려워 할말도 제대로 못해서야 되겠소?...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오늘 당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던가, 그 누가 당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에는 주저없이 말하고 비판해야 하오. 진실과 정의의 사랑하며 불위는 참지 못하고 투쟁하는 사람, 참대처럼 곧고 강철처럼 군센 친구가 되여주오. 그러면 고향산천이... 사람들이 동무를 알아줄거요.》

《!!...》

강진삼은 폭풍을 안은듯 설레는 가슴을 부여안고 수령님을 우려했다. 그는 자기의 시든 성격, 의식속에 풀썩처럼 나약히 박혀있던 의지가 구름을 뚫고 산발처럼 거연한 기상으로 솟아오름을 느꼈다. 새 인간으로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것만 같았다. 진삼은 정신도 인격도 다른 자신을 창조하고싶은 욕망에 불타올랐다.

안개비는 멎었다.

최죽길로 군인민위원장이 풍채좋은 몸을 무겁게 헐썩거리며 반달음쳐왔다. 그는 강변에 서계시는 수령님을 보자 황급히 손으로 흠어진 머리를 쓰다듬고 옷매무시를 바로했다. 그의 얼굴은 당황과 자책감으로 하여 벌겋게 상기되어있었다. 수령님앞에 이른 그는 정중히 허리를 굽혔다.

《수령님, 밤새 안녕하셨습니다니까... 제가 그만... 늦잠을 자서...》

수령님의 진중한 얼굴에 엷은 미소가 비졌으나 이내 사라졌다. 그이의 음성은 무거웠다.

《위원장동무, 난 간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소. 콩장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소.》

《?!...》

군인민위원장은 수령님의 젖은 옷과 손에 든 흙을 보자 무언가 짐작했는지 얼굴이 컴컴하게 죽어서 몸둘바를 모르고 섰다.

수령님께서는 묵묵히 그의 팔을 잡으시고 물항철나무들쪽으로 데리고 가시었다.

강우에서 흠어지는 안개발을 이윽히 바라보시는 수령님의 얼굴에는 근엄한 빛이 어렸다.

《내 한가지 묻기요. 위원장동무나 군내 간부들은 다 어제저녁에 먹은 그런 장을 공급받겠지?》

《...》

군인민위원장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손은 바지혼술에 붙어 굳어졌다.

수령님의 음성은 새벽대기속에 낮으나 준절히 울렸다.

《내 어제저녁에... 어찌다 수십년만에 친구를 만난 자리여서 동무한테 더 말을 못했소. 가슴이 아프고 분이 솟구쳐 밤에 잠을 이룰수 없었소. 위원장동무, 두가지 장을 만드는 이유가 뭐요? 장의 가치를 높이자는 좋은 생각에서였소?... 동문, 참외막지기를 하는 저 동무나 군내 인민들이 먹는 장맛을 알고있소?... 맛을 보지도 않았겠지.》

《...》

《가만 보니 위원장동무는 인민앞에 솔직하지 못해. 점잖게 모르쇠를 하거든... 어째서 그런 차이를 두고도 량심가책을 받지 않는거요? 인민을 지도하는 간부라고 자기를 무슨 특권계층처럼 생각하는게 아니요?!》

새벽빛에 수령님의 안광은 날카롭게 번뜩이셨다. 그이께서는 무척 피로우신듯 한동안 말쑤를 못하고 서고 멀리서 강변풀밭을 다니며 잡초를 뽑아보고 흙을 만져보는 강진삼의 모습을 바라보시었다.

은회색가지를 무성히 걸친 물황철나무들, 비에 젖은 풀밭, 안개피는 산밭, 새벽음영이 가시지 않은 골짜기는 고요속에 잠겼다. 우주앞에서 청렴하고 속임을 모르는 진실한 자연도 숙저위하며 귀를 기울이는듯싶었다.

《위원장동무, 내가 룡장에도 정치가 있다고 한말이 생각나오?... 주민들은 구수한 룡장으로 국을 끓이면 되지만 일군인 동무는 정치적, 도덕적관점에서 룡장을 대해야 하오. 아낙네가 술갈로 떠내는 장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아무렇게나 만들고 처리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요. 우리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 같은 인간적, 인격적 차별이 없는 사람중심의 사회를 건설했소. 그런데 일군들속에 그런 비사회주의적온상이 자란다는것은 참을수 없는 일이요. 동무가 그런 걸치레사업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군내 사람들의 마음속 지지를 받을수 있겠소.》

습하고 싸늘한 강바람이 불어와 수령님의 젖은 옷자락을 들추었다.

《위원장동무는 우리 인민이 어떤 인민이라는걸 모르는것 같소. 동무가 책임지고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이백분의 일의 땅에서 사는 보통 주민들이라고 실무적으로 생각지 마시오. 그들은 수천년 세월 봉건통치배들과 착취계급한테 짓밟히고 인간차별을 당해온 인민의 후손들이요.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피눈물나는 고생살이를 해왔소. 해방돼서 인간

답게 평화로이 사는가 했는데 또 전쟁을 강요당했소. 미국놈들한테 부모처자와 형제자매들을 잃어버렸소. 인민은 조국강산을 지켜 자기의 피와 목숨을 바쳤소. 허리띠를 졸라매고 복구건설을 하고 공장을 돌리고 농사를 지었소. 정신과 육체의 모진 상처를 입으며 불속을 헤쳐나온 우리 인민의 마음은 수정처럼 맑고 깨끗하오. 한점 티도 없고 사심도 없소. 순박하고 겸손하오. 온 나라 인민이 당을 믿고 한집안식구처럼 뭉쳐서 살려는 지향밖에 없소. 이렇게 좋은 인민의 마음에 누가 감히 그들을 지을수 있단말이요? 누가 신성한 그들의 인격을 홀시할수 있단말이요? 군인민위원장이요?! 내각수장이요?!》

강바람조차 멎고 주위에는 천년정적이 깃든듯 고요하였다.

군인민위원장은 겨우 고개를 쳐들고 뼈저린 자책감으로 하여 띠엎띠엎 말했다.

《수령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는 실한 몸집을 부자연스레 굽히고서 까딱 움직이지 못했다. 잘못을 씻을수 있다면 한생을 그렇게 서있을듯싶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부드러운면서 엄한 눈길로 그를 지켜보시었다.

《고치오. 군내 주민들이 동무의 사업에 대해 불만을 내놓고 말하지 않는것은 그래도 아직 자기네 위원장의 진정을 믿기때문인거요.》

《...》

《동무는 이고장 태생이지?》

《예...》

《그러니 옛친지들과 수많은 고향사람들이... 군내 인민들이 동무의 진심을 기다리고있을거요.》

강바람이 수령님의 옷자락을 날렸다. 황철나무잎사귀들에 맺혔던 물방울들이 후드득 떨어졌다.

큰길쪽에 승용차가 소리없이 달려와 멎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군인민위원장의 잔등을 가볍게 떠미시었지만 속마음은 산을 짊어진듯 무거우시었다.

그이께서는 이제 수백리 산협길을 가시어 소집하실 도당위원회의 협의회에서 그 어떤 경제정책문제보다도 일군들의 인민에 대한 관점문제를 회의 첫째 안건으로 상정시킬 결심하시었다.

새벽안개는 걷히고 비에 씻긴 청신한 산천이 노을빛에 물들고있었다.

사랑과 행복의 끝은 어디에

김시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애가 아주 강하고 우리 당 중앙위원회를 보위하려는 사상이 강한 영예군인들은 전시에 는 피로써 조국을 지켰으며 오늘은 보람찬 로동으로써 조국의 번영과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감히 바랄수 없는 행복에 접하면 사람들은 꿈만 같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전국영예군인예술소조공연에 참가하여 꿈속에서조차 그러보지 못한 크나큰 행복과 영광을 체험하였다.

이제는 어느덧 추억으로 된 그날의 그 가슴뜨거운 사연을 적고자 붓을 들었으나 글에 앞서 감격의 눈물부터 솟아오른다.

(1) 꽃다발

산에 들에 신록이 짙어가던 지난해 6월 어느날 이였다. 그날 우리 부부는 뜻밖의 놀라운 소식에 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조국을 위하여 잘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이 더 늘기전에 보고싶다고 하시며 친히 전국영예군인 예술축전무대를 마련해주시었으니 우리 부부도 그 축전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사연이였다.

세상에 이런 별일도 다 있는가? 오랜 세월 침상에 누워 운신못하는 사람을, 제발로 문전출입도 못하는 불구의 이 몸을 전국예술축전무대에까지 불러주시다니... 선뜻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경사여서 나도 안해도 그저 놀라기만 했을뿐이였다.

우리 부부는 실화이야기 《내 삶의 소원》을 준비하여 축전무대에 올리기로 하고 연습을 시작하였다. 연습의 나날은 말그대로 흥분과 격동으로 엮어진 날과 날들이였다. 드디어 기다리던 공연의 날이 다가왔다.

1990년 12월 6일.

그 전날밤 나는 너무도 흥분되어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부상당한 스물한살 애젊은 시절부터 귀밀에 흰서리가 비낀 예순살까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깊은 사랑만을 받아오면서 감사의 인사 한번 변변히 올려보지 못한 죄송함

에 늘 안타깝던 내가 이번에 몸가까이 모시고 직접 큰절을 올릴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종시 잠을 이룰수 없었다. 그러한 심정은 안해도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안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믿음속에 전국의 영예군인 안해들을 대표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만수축원의 꽃다발을 올리게 된 무한한 감격때문에 도무지 진정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긴밤을 꼬박 새운 우리는 날이 밝자 예술축전장소인 2.8 문화회관으로 갔다.

정각 아홉시반, 환영곡이 높이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동지들과 함께 공연장소로 나오시였다.

오매불망 얼마나 뵈옵고싶던 어버이수령님이신가. 주시기만 하는 그 사랑에 감격의 눈물 지으며 얼마나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고싶던 친어버이이신가.

만면에 자애로운 웃음을 지으시고 활달한 걸음으로 들어오시는 어버이수령님께 먼저 영예군인대표가 꽃다발을 올리였다. 뒤이어 안해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와 함께 다함없는 흠모와 만수축원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을 정중히 드리며 이렇게 말씀올렸다.

《어버이수령님!

저는 30년전 영예군인 김시권동무와 결혼할 때 수령님께서 친히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첫날옷감과 이부자리까지 갖추어주신 권순희입니다.

저와 남편은 영원히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받들고 충성과 효성을 다하겠습니다.

어버이수령님,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올리는 축원의 인사를 기쁘게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때까지 잡고계시던 안해의 손을 다시 한번 힘있게 흔들어주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고맙소! 고맙소!》

그러신 뒤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인차 헤어지기 아쉬운듯 다른 영예군인대표들과 함께 안해를 접견실로 데리고 가시며 따뜻하고 은정넘치는 담화를 나누시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의 접견을 받고 분장실로 돌아온 안해는 뜨거운 이슬이 젖은 눈언저리를 손수건으로 씻으며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저를 친팔처럼 반갑게 맞아주시며 저의 이 손을 잡고 오래동안 계시었어요. 수령님께서 저의 이 손을 오래오래 뜨겁게 잡고 계시면서 제가 올리는 말씀을 기쁘게 다 들어주시었어요.》

나도 가슴이 너무나 몽클하여 눈에 뜨거운것이 맑게 고여오르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잡아주시었던 안해의 손에 아직 남아있는 그이의 따뜻한 사랑의 체온을 안고싶어 안해의 손을 잡았다. 오래오래 놓지 못하며...

(2) 사랑의 무대

걱정과 환희의 파도가 온 무대에 가득찬속에 우리 영예군인에술소조종합공연의 막이 서서히 올랐다.

나는 안해와 함께 이름할수 없는 마음의 긴장속에 출연시간을 기다렸다.

출연할 순서가 점점 가까와오며 따라 나는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공연을 한다는것자체가 꿈속의 환상세계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내앞에는 엄연한 현실의 눈부신 조명빛 쏟아지는 무대가 있고 객석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앉아계시었다.

얼마나 고대하던 영광의 시각이 눈앞에 온것인가.

젊은 병사때 포화몽개치던 돌격전의 언덕을 총창 높이 쥐고 달려가면서도, 병상에 누워 전등빛아래서 밤깊도록 붓을 쥐고 글을 쓰면서도, 귀밑머리 희여진 긴긴세월 그 어느 순간에도 그리워 눈앞에 그려보던 어버이수령님... 몸가까이 뵈옵게 되기를 것처럼 갈망하던 소원이 이제 얼마후이면 풀리게 된다는 생각으로 나의 작은 가슴은 온 세상을 안은듯 무한대한 감격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종목이 바뀔 때마다 출연하는 영예군인들의 부상정도와 건강상태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었고 공연을 잘한다고 환하신 웃음을 보이시며 치하의 말씀도 하시었다.

드디어 시간이 박두하여 우리 차례가 되었다.

소개자의 말이 끝나자 나의 소원을 안은듯 막이 은은한 선물의 흐름을 타고 올랐다.

안해가 조용히 밀어주는 사륜차에 몸을 싣고 무대로 천천히 나오자 그 누구보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박수를 쳐주시었다. 뒤이어 전체 관람자들의 우렁찬 박수가 오래 계속되었다.

이윽고 공연이 시작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날 우리의 공연을 보시며 젖어드시는 눈가에 손수건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쌍안경을 드시어 우리들의 모습을 눈여겨 새겨보기도 하시다가 김시권동무의 나이가 올해 몇인가고 물으시었다 한다.

옆에 있던 일군이 저의 나이를 말씀올리자 수령님께서 벌써 예순한살인가라고 하시며 몹시 서운한 안색을 지으시었다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말씀을 전달받을 때 나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포화속을 헤쳐온 한 전사가 늙어가는것이 마음 씩우시여 벌써 예순한살인가고 외우시는 그 사랑!

하늘땅의 크기에도 비길수 없는 이 위대한 사랑이 있어 나는 예순이 되었어도 그리도 젊음에 넘치고 정열과 기상이 온몸에 솟구쳐 시인의 목소리를 시대의 대공에 울리며 오늘은 무대우에서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올리는 역세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것이 아닌가.

《어버이수령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버릇없이 누운채로 인사를 드리는 이 아들을 부디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실화이야기의 대사라기보다 진정 그렇게 밖에 달리 표현할길 없는 나의 심장의 토로였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안해는 무대앞으로 나가 어버이수령님께 정중히 무릎을 꿇고 앉아 정히 큰절을 올리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부부가 드리는 큰절을 고맙게 받아주시며 박수를 보내주시었다. 다른 관람자들 역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부부의 이 다함없는 충성의 인사에 오래오래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또 보내었다.

그 무대는 나의 소원인 감사의 큰절을 올리게 된 행복의 자리였다.

공연이 끝난후에는 기념촬영이 있었다.

나는 사륜차에 몸을 싣고 누워있는 형편이여서 기념사진만은 찍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의 뜻을 받든 일군들이 벌써 밤을 지새워 내가 서있을수 있게 특별히 키큰 의자를 만들어온것이였다. 나는 바로 그 의자에 서서 안해와 나란히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을수 있었으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 불초한 전사를 위해 마음을 쓰신 일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여 마음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삼키었다.

(3) 결혼식과 60 돌상

인간의 생활사는 불행한 운명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며 사랑한 이야기들을 전하고있지만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처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처럼 인류의 심장을 감동시키며 울려주는 전설같은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있다.

1968년 2월 8일은 우리 부부가 어버이수령님의 배려로 하여 전설같은 사랑을 받아안은 축복받은 결혼식날이다.

나로서는 안해가 내 운명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병상곁에 찾아와 이성의 사랑을 준것만도 행복하였고 더 바랄것이 없었다.

그런데 안해의 이 아름다운 소행을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그 영예군인 동무의 결혼식을 조금도 섭섭하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고, 결혼식상도 훌륭하게 차려주고 신랑신부의 옷감들과 이부자리들, 새살림에 필요한 가구들도 다 마련하여 보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당시 내각사무국의 해당 일군으로부터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았을 때 나와 안해는 너무나 크나큰 감격에 휩싸여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그 일군만을 쳐다보았다.

그 일군은 밝게 웃으며 저와 안해에게 이제 며칠 후 뜻깊은 결혼식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나는 그 일군이 돌아간후 가슴벅찬 감격을 누를 수 없이 안해에게 말했다.

《나는 어버이수령님의 은정깊은 사랑을 받아안기엔 지난 전쟁때 너무나 공훈도 없이 일찍 부상당한 평범한 영예군인이요.》

안해도 조용히 듣다가 자신의 심중깊은 말을 했다.

《시련동무, 내가 동무의 침상곁으로 찾아온것은 전쟁을 이긴 이 나라 녀성의 도의예요.

나는 다만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예군인들의 장래문제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시여 잠을 이룰수 없다고 하신 그 심려를 너자된 몸으로 조금이나마 덜어드릴수 없을가 하는 애오라지 그 한마음뿐이에요.》

나의 안해는 화전민의 딸로서 가난에 쪼들리다못해 신발도 없어 현교무신바닥이 떨어진것을 쇠사슬로 엮어신고 지주집 밭고랑을 헤매던 너자다.

그 쓰라린 과거를 되짚지 않기 위해 전쟁때에는 녀성의 몸으로 군복을 입고 최고사령부에서 무전수로, 전쟁후에는 호위국에서 군관으로 그리고 제대

후에는 내각사무국의 사무원으로 성실하게 사업하였다. 그 과정에 안해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풀어드리고 기쁨을 마련해올리는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는것을 절감하였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내가 아직 청춘으로 병상에 누워만 있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한몸을 영예군인의 발과 팔이 되어줄것을 결심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 작은 소행을 기록히 여기시여 해당부문에 우리들의 결혼식을 잘 차려주어 기쁘게 해주자고 하늘보다 큰 사랑을 안겨주신것이였다.

나라의 정사를 맡아보시기에 그토록 바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저희들의 결혼식까지 마음쓰시는 그 육친적사랑!

그 위대한 사랑에 감격하고 목이 메여 눈물을 짓고있는데 내각사무국의 그 일군이 이번에는 재단사를 앞세우고 다시 우리를 찾아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련동무의 첫날옷을 몸에 맞게 지으라고 이렇게 재단사를 보내주시였습니 다.》

침대에 누워있는 이 몸의 환자복을 벗기고 옷의 길이를 하나하나 재는 재단사의 손이 조용히 닿을 때 아, 나는 정녕 위대한 어버이사랑이 온몸에 강물처럼 흘러드는것을 느끼며 울음을 터치였다.

어머니도 아들의 첫날옷을 해입히게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못했기에 그만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며늘애를 본것만도 행복한데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첫날옷을 해입고 결혼식까지 할줄이야 어찌 꿈엔들생각이나 해보았겠소》

2월 8일 결혼식아침-

어버이수령님의 사랑넉친 축복속에 나와 안해는 결혼식장에 앉았다.

큰 잔치상우에는 사랑의 표적인듯 고운 색깔들과 꽃으로 단장된 결혼식탑이 놓여있고 가지가지 값진 음식들로 층층 쌓아올린 둥근 식료탑과 산해진미로 만든 진귀한 음식들 그리고 향기넘치는 남방과일들까지 있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벽에는 은정에 넘치는 으리으리한 양복장과 이불장, 그안에 쌓여있는 비단이불들과 자개박은 고급 밥상과 지어는 문필에 필요한 공예품필갑들과 새살림의 모든것이 그뿐히 갖추어져있었다.

내각사무국과 작가동맹을 비롯하여 중구역당의 일군들과 함께 수많은 마을사람들이 와서 위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정에 감탄해하는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결혼식장의 안팎에서 울리었다.

주례를 하는 한 일군이 오늘의 경사스러운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대하여 감격에 넘쳐 말을 하였다.

《...오늘 우리는 친히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신랑 영예군인 김시권동무와 신부 권순희동무와의 결혼식을 세상에 없는 행복과 기쁨 속에 성대히 하게 됩니다...》

인간생활에서는 인륜대사의 하나로 오랜세월 결혼식을 잘하여주는 풍습이 있다. 하지만 언제 이처럼 한 나라의 수령이 병상에 누워있는 불구자를 위해 그리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사회적으로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도록 크나큰 은정과 축복을 베풀어 준 일이 있었던가.

우리는 이렇게 결혼식을 하였다. 그 행복한 날로부터 어언 30 여년세월이 흘러 우리 부부는 예순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60 뉘는 60 뉘대로 또 한번의 커다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었다.

나의 60 뉘날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조선문학창작사의 한 일군이 집에 오더니 한가스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아릅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깊은 말씀을 전해주는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내가 60 뉘를 맞게 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가 그 동무의 60 뉘상을 잘 차려주자고, 시권동무는 침상에서 40 년간 붓을 투쟁의 무기로 삼고 혁명적인 시로 변함없이 우리 당을 받들어 온 동무라고, 그러니 우리가 그의 60 뉘상을 잘 차려줘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시고는 문득 나와 동갑나이인 나의 안해의 60 뉘이 언제인가고 물으시였다.

해당 일군으로부터 안해의 생일이 20 일후라는 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나의 안해의 생일이 달라 60 뉘는 다르겠지만 일찌기 전신불구의 몸이 된 남편의 침상을 30 여년간 지켜온 그 부인을 시권동무의 생애에서 떼놓고 생각할수 없다시며 우리 부부가 60 뉘를 같이 맞도록 두상의 60 뉘상을 보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부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60 뉘상을 한날한시에 꼭같이 받는 크나큰 행복과 영광을 지니었다.

젊은날에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차려주신 잔치상 앞에서 결혼식을 하고 늙어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60 뉘상을 그것도 부부가 한날한시에 받은 우리, 세상에 행복하다면 우리 부부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 과연 어디 있으랴...

우리는 이 모든 행복하고 전설같은 사랑의 역사를 실화이야기 《내 삶의 소원》에 담아 예술축전 무대에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부부가 출연한 실화이야기를 비롯한 전국영예군인예술소조공연을 다 보시고 지금 조직비서동무가 영예군인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다함없는 사랑속에서 우리 영예군인들은 세상의 만복을 다 누리며 영원히 지지 않는 혁명의 붉은 꽃을 활짝 피워가고 있는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반드시 년월일을 새겨넣어야 합니다》

1973년 8월 어느날이었다.

원산에 내려가시어 강원도당사업을 지도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아침 동틀무렵에 금강산으로 향하시였다.

도안의 근로자들이 금강산 천연바위들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만년 길이 전하기 위한 만년대계의 글발을 새기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자신께서 구상하시고 포치하신 그 사업이 못내 근심되시어 현지로 떠나신 것이다.

물맑은 동해를 옆에 끼고 달리는 차창으로는 심그런 해초내풍기는 바다바람이 서늘하게 흘러들었다.

하건만 수행하는 일군들의 가슴은 마냥 후덥기만 하였다.

사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일군들은 우리 나라 산천경개가 아름답다고만 생각하였지 명승지의 기암절벽들에 만년대계의 글발을 새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였었다.

하지만 아버지수령님을 최대의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바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명승지의 천연바위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할 불멸의 글발을 아로새기도록 하시였던것이다. 온 강산을 말그대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글발로 가득히 채우시려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전국도처에서 그이의 뜻을 받들고 이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사업을 친히 현지에서 보살펴주시려고 머나먼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떠나신것이다.

수행하는 일군들이 모두 뜨거운 마음으로 그이의 높은 뜻을 되새기고있는데 차는 어느덧 금강산에 와닿았다.

차에서 내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먼 려정의 피로도 푸시지 않으시고 그길로 곧장 구룡연

으로 오르는 험한 길을 밟으시였다.

금강산의 수려한 산발들을 감개무량하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이윽고 천연바위들에 새겨진 글발에 시선을 멈추시였다.

기암절벽마다에는 이런 글발이 새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주체사상 만세!》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자!》

이밖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명제들과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사도 새겨져있었다.

뜻깊은 글발이 나타날 때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글자의 전모를 바라보기도 하시고 또 획을 하나하나 뜯어보기도 하시면서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높은 안목과 식견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던중 문득 옥류동 천연바위에 새겨진 글발에 시선을 멈추시더니 누구에게라 없이 여기에 왜 년월일을 밝히지 않았는가고 물으시는것이였다.

순간 이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일군들도 그렇고 누구 하나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들이 할말을 찾지 못해 머뭇거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조용한 음성으로 일군들에게 몇백년후에는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언제 새긴 글인지 모를수 있다고 하시면서 바위에 새긴 글발에는 반드시 년월일을 새겨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만년대계의 글발에 그것을 새긴 년월일을 반드시 새겨넣어야 한다는 이 말씀에는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천연바위들의 글발에 년월일을 밝히지 않는다면 수백수천년이 지난 먼 후날에 가서는 언제 새긴것인지 알수도 없거니와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인 천연바위의 글발들을 어차피 전설로밖에 전할수 없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만년대계의 글발로서의 가치

가 없을것이고 후대들은 우리를 두고두고 원망할것이다.

이 가르치심에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오늘의 민족적인 번영과 룡성이 바로 경애하는 수령님을 인류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모신 주체시대에 마련되었음을 길이 전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영원무궁토록 빛나게 이어나가게 하시려는 숭고한 뜻이 깃들여있었다.

먼 후날 공산주의락원에서 어버이수령님을 칭송

하며 행복하게 사는 후대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시는듯 그이의 안색에는 끝없는 사색의 빛이 어려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경건히 우러르는 일꾼들은 또다시 끝모를 감동에 휩싸였다.

우리 세대들만이 아니라 수천년수만년이후의 세대들까지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하시려는 높은 책임성, 실로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을 받들어 모시는 자세와 립장에서 우리 일꾼들이 따라배워야 할 또하나의 빛나는 모범이었다.

김정일동지를 우러르노라

마리오 에프. 베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할제
별무리 다투어 반짝이고
시내물 기쁨을 속삭일제
나는 그리노라
김정일 동지를...

그이는
풍만한 정서와
굳센 심장을 지니신분
오늘의 세계에
주체사상 나래치는
보람찬 삶 안아오시였어라

그이는

불멸의 력사를 수놓으신
위대한 영웅
인민의 끝없는 사랑속에서
불멸의 빛을 뿌리고계시여라

그이는 탁월한 지도자
빛나는 사상을 지니신분
지상락원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인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라

그이는
세계인민들이 흠모하는
위대한 령도자이시여라

(필자는 말파 사회정책위원회
행정관 시인임)

영원한 동행자로

오재신

나를 가까이 불러주시는
자애깊은 음성이어라
소박한 나의 시를 구절구절 보아주시는
위대한 스승의 손길이어라
친애하는 그이께서 보내주신 회답서한은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신
그토록 크나큰 믿음
어떻게 하면 그 믿음에 보답하랴

그이 바라시는 일이라면
물속이면 마다하랴 불속이면 주저하랴
믿어 안겨주신 소중한 회답서한
천년살아 만년을 살아
보답하고싶은 그 한마음 안고
나는 이 하루를 시작하나니

열정이 나래치는 건설장에서
삼가 아뢰일 그 기쁨을 찾으리다

암벽을 밀어가는 천길지하막장에서
귀한 그 말마디들을 고르오리다

과도 사나운 바다이면 그 한복판에서
눈보라치는 행군길이면 그 맨앞장에서
산이면 산을 넘고
진펄이면 진펄을 헤치며
더욱 높이 추켜들리 붉은 기발을
더욱 높이 올리리 진군의 나팔소리를

아 내리는 사랑에 오르는 충성
인민의 가슴에 간직된
그 신념 그 의지가 그대로
친애하는 그이를 위한
내 심장의 노래 맹세의 노래이거니

오직 한마음 변함없이
혁명의 필봉 높이 들고
머나먼 천만리길 나는 걸으리
친애하는 그이의 동행자로
혁명의 길 끝까지 가고 가리

백두밀영의 봄밤에

리덕진

천리수해가 설레이는
백두밀영의 봄밤
고요한 정적을 흔들며
사령부 귀틀집 추녀밑에 떨어지는
락수물소리 락수물소리

등잔불 밝은 사령부
한없는 승엄함이
천고의 밀림속에
끝없이 흐르는 밤

풀렁 풀렁...
눈석이 락수물소리
꽃피는 4월의 만경대
그리운 조국산천을 생각하시며
조국진군의 작전을 구상하시는
장군님의 깊은 사색을 깨뜨릴듯싶어
전령병은 조용히 추녀아래 다가선다
한방울 받으며 창가를 바라보고
또 한방울 받으며 다시
또다시 바라보고
애어린 전령병의 밝은 얼굴에

봄꽃처럼 피어나는 행복의 웃음이어

밤도 깊어 깊어만가도
그대로 한밤을 새우려는것인가
선 지리에 바위처럼 움직일줄 모르는
전령병의 불타는 눈빛이런듯
백두의 밤하늘에 유난히 빛을 뿌리는 별무리

귀틀집 지붕에서 흐르는 물방울
받쳐든 두손에 받으며 피우는 그 웃음
백두산엔 만병초꽃으로 피어나고
다시 찾은 조국땅 환희로운 거리들엔
아이들의 노래로 꽃피워나려니

오, 래고연한 정적이 흐르는 밤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굳게 지켜선
전령병의 미더운 가슴, 어깨와 두손은
억센 기둥 되어 떠받들었어라
장군님의 손길아래 솟아오를
광복된 오늘의 조국땅을
광복의 새봄이 태동하는 력사의 밤

천고의 밀림속엔 흐르고있어라
위대한 혁명의 태양을 보위하는

전사의 다함없는 충성의 숨결이

백두산의 봄

변홍영

산기슭엔 꽃이 지고 여름이 한창인데
산정에는 이제야 봄이 왔는가
벼랑밑에서 녹고있는 흰눈우에
나는 아이처럼 발자국을 찍어본다
부석들사이로 녹아흐르는 눈석임물소리
따스한 속삭임처럼 다정한 노래처럼
내 가슴에 속속들이 젖어드는구나

날씨 좋고 하늘맑아라
바람 한점 없는 신비한 고요속에
해빛은 금빛으로 쏟아져내린다
백두산의 봄
설한풍을 이겨넘어
조선의 기상처럼 푸르려오는
철늦은 봄
그래서 더더욱 뜨거운 봄

나는 등판에 피여 웃는
이름모를 하얀 꽃 한송이 손에 들고
준엄한 눈보라를 생각한다
내 지금 가슴에 안아보는
자연의 봄만이 아닌
백두산의 이 봄이 오는 길엔
얼마나 사나운 겨울이 있었던가

혈전으로 천년장설이 녹아흐르던
그 간고한 해들,
생 눈을 씹으면서도 다시 일어나
혁명의 노래높이
조국으로 조국으로 행군해온 대오...
그앞에 펴려이던 붉은 기폭에
이 봄날의 따뜻한 숨결이 흐르고있었구나

아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선혁명이 헤쳐온 그 만고풍상속에서
움이 트고 뿌리를 내리며

이 강산에 한껏 피어난
혁명의 봄
인민의 봄
백두산의 봄이여!

이 봄이 없었다면
내 행복한 운명이 뿌리내린
조국이 있었을것인가
인민의 자주의 삶이 꽃피는
락원의 강산에서
내 세상에 부럼없이 뛰놀며 자란 그 시절이
추억의 아지랑이속에 웃고있을것인가

우리 수령님
백두의 저 험준한 산발들에서
풍찬로숙하시며
내 운명이 겪었어야 할
그 모진 추위와 눈보라를 다 막아주셨구나
내 조국의 오늘과 래일이 꽃피는
이 봄날을 안아오셨구나

아, 내 오늘 다시
백두산정에 올라
이 나라에 넘치는 은혜로운 봄빛을
온몸에 겨웁도록 받아안으며
성스러운 이 혁명의 봉우리우에
불타는 맹세를 남기노니

아직 가야 할 길 멀다하랴
사나운 눈보라가 그 길에 있고
간고한 시련이 기다린다 하랴
허나 우리 당을 따라가는 그 길우에
여기서 피어난 봄은
영원히 시들줄 모르는 아름다움으로 만발하리라!
혁명을 위해 태어난 나의 삶도
그 봄의 화원에
억세고도 짙은 향기를 보태리라!

당의 혁명업적에 대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은 현시기 작가들앞에 나선 중요한 요구

오춘식

당의 혁명업적에 대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와 주체문학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은 본성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혁명문학, 당의 문학이다. 당의 강력한 사상적무기로써의 우리 문학의 근본사명은 당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히 복무하는데 있다.

당의 혁명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한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은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도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류레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도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통성과 번영을 위하여 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쌓아올린 거대한 공적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으며 혁명의 주체에서 중추적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승리와 영광의 조직자, 향도자로 되고있다.

당의 혁명업적에 대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혁명적기치를 견결히 수호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서도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지금 지구상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편승하여 사회주의기치를 제버린자들로 하여 로동계급의 당이 이룩한 업적이 말살되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영원히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할 당의 동행자인 우리 작가들은 적들의 사상문화적공세에 대처하여 우리 문학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당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함으로써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건설과 발전을 위해 적극 이바지하고 당의 위업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위대성을 폭넓게 형상하자면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

을 깊이있게 잘 형상하여야 합니다.》

당의 위대성은 당이 이룩한 업적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우리 당이 위대한것은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기때문이다.

당의 업적은 당의 창건자, 령도자의 업적이다. 당의 창건자, 령도자는 당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당창건위업을 이룩하며 당을 강화하고 그의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한다.

그러므로 당의 업적에 대한 작품형상의 중심에는 언제나 당의 창건자, 령도자가 서있게 되며 당의 업적에 대한 형상은 곧 수령의 업적에 대한 예술적 일반화로 된다.

우리 당의 혁명업적은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과 혁명위업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다.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기치밑에 당의 튼튼한 만년초석을 쌓으시였으며 당창건위업을 이룩하시고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있는것으로 하여 위대하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영상을 모신 작품창작에서 우리 작가들은 이미 귀중한 성과와 경험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집대성한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전 15 권으로 된 장편소설들과 《빛나는 아침》, 《50년 여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문학예술혁명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 문학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해가시는 빛나는 업적을 형상한 장편소설 《예지》 그리고 단편소설 《고요》, 《고향길》, 《영생》, 《기억》 등은 수령형상창조에서 얻은 귀중한 창작적열매들이다.

로동계급의 수령 형상창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창작실천상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어야 공산주의인간학의 본성적요구를 옹계 구현할수 있으며

작품의 사상에 예술적 품위를 높일 수 있고 미학적 서적 감각력과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수령의 혁명력사자료에 기초하여 역사적 사실을 진실하게 반영할데 대한 문제, 형상에서 최대의 정중성을 보장하면서도 성격을 기정사실화하거나 격식화하지 말고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릴데 대한 문제, 수령의 사상감정과 정신세계의 폭과 심도를 깊이있게 보장하며 인정세계를 파고들데 대한 문제, 수령의 위대한 품모와 업적이 집중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세부를 옹계 선택하고 세부형상을 심화할데 대한 문제, 수령과 전사와의 관계를 공식적인 관계에서가 아니라 동지적의리관계에 기초하여 인간학적으로 보여줄데 대한 문제, 방계인물들의 사상정서적 성장과정과 혁명적세계관확립과정을 혁명적수령관확립의 견지에서 진실하게 그릴데 대한 문제, 사적자료의 단순한 기록이나 사건리렬을 배제하고 감정심리와 생활을 파고들어 형상을 심화할데 대한 문제, 그밖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형상창조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에 토대하여 당의 혁명업적에 대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영상이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구체적인 인간형상을 통하여 진실하게 감수될 수 있게 되어야 하며 업적의 위대성과 불멸성을 생동한 생활로 체득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당의 업적에 대한 작품은 무엇보다도 역사적 견지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뿐 아니라 해방후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정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역사적시기에 당의 혁명위업이 어떻게 고수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왔으며 위대한 창조와 통성의 새시대가 어떻게 마련되어왔는가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또한 업적의 중요내용에 따라 역사적사건과 사실들의 여러 측면과 계기들을 잡아쥐고 작품을 창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효성의 모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들을 장중편을 비롯한 큰 형식의 작품들과 단편소설, 시를 비롯한 작은 형식의 작품들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당의 업적에서 중요내용을 이루는 것은 사상리론적 및 령도업적이다. 사상리론과 령도업적은 당의

위대성의 기본징표이다.

사상리론적업적과 령도업적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 령도자만이 이룩할 수 있는 업적이다.

당의 업적에 대한 작품창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상리론적업적의 위대성을 천명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으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방침들을 내놓으시여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고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완성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생명이며 무비의 견인력과 전투력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주체사상의 과학성과 진리성, 정당성과 생활력을 주체사상의 창시와 그 심화발전과정,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현실과 생활을 통하여 깊이있게 보여주는 작품을 훌륭히 창작하여야 한다.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일찍부터 주체의 진리를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정식화하고 전일적인 완벽한 과학적리론으로 체계화하시기 위하여 벌리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 그리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의 장엄한 선포와 주체사상화실현을 위한 투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의 진리를 밝혀내시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 뛰어난 천품에 대하여 깊이있게 보여준 작품들을 창작하여야 한다.

지난 기간 우리 작가들은 우리 당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보편성을 생활의 여러 측면과 각도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더우기 세계적관도우에서 제기하고 해명하지 못하였다.

우리들은 아직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청년학생들이 주체사상을 어떻게 신봉하고 신념으로 받아들이고있으며 주체사상을 기치로 삼고 어떻게 투쟁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한 작품을 적극적으로 창작하지 못하였으며 세계의 진보적혁명가들이 주체사상을 자기 나라 인민대중속에 적극적으로 보급하고있는 데 대한 작품도 활발히 창작하지 못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생활반영의 폭을 넓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투쟁하는 혁명가들과 애국자

들의 형상을 인류사적견지에서 창조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리론적업적의 위대성을 예술적으로 확증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시대 사회력사적운동의 기본흐름에 대한 진실한 예술적재현으로 될것이다.

이 경우에도 우리는 물론 수령형상창조에서 나서는 공산주의적인간학의 근본요구를 옳게 구현하여 력사적사실에 대한 기록으로, 공식적인 인간관계로 격식화하는 경향을 극복하고 사상감정의 정수를 예리하게 밝혀냄으로써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사상리론적예지를 인간학으로 감수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사상리론가, 사상리론의 영재로서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혁명업적에 대한 작품창작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령도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령도업적은 사상리론적업적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그것은 령도가 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사상을 구현하는 과정이기때문이다. 또한 사상의 혁명성, 진리성이 령도과정에 확증되고 생활력이 나타나게 되기때문이다.

당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을 불패의 위력을 가진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령도적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끈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총서형식의 장편소설을 비롯한 혁명적작품들에서 우리 당이 항일혁명투쟁의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에서 자라난 영광스러운 당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함으로써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의 공고성과 불패성, 그 영원한 생명력에 대하여 열렬히 긍정하고 찬양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에 머물지 말고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당의 시원으로 되는 첫 당조직의 결성과 그 확대발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면서 당창건의 기틀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주선으로 설정하고 전면적으로 형상한 작품, 해방후 당창건위업을 이룩하시고 당을 통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업적에 대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위업은 오직 당의 령도밑에 전진하고 승리하여왔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당의 령도밑에서만 빛나게 완성될수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인간중심의 사회인 우리 식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공고발전시켜왔으며 혁명과 건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본성에 맞게 추진시켜왔다. 오늘 공산주의운동안에 예상치 않았던 복잡한 사태가 벌어지고있는 조건에서도 사소한 드림도 없이 사회주의위업이 굳건히 고수되고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은 우리 당이 강하고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고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의 견인력의 강화, 이것은 사회주의위업의 강력한 향도자, 견결한 수호자로서의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빛나는 결실이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당의 령도가 사회주의위업의 생명선으로 된다는 사상을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위업의 승리적전진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과시되고있는 자주적인 정치생활, 건전하고 공고한 경제생활, 풍부하고 다양한 사상문화정서생활 등 여러 각도에서 형상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어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치시고 완강한 조직력과 전개력으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시면서 불멸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시며 주체조국의 존엄과 영예, 위력을 떨치시는 세계사적업적은 그대로 문학창작의 무궁무진한 원천으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풍부한 사료에 기초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재현함으로써 당의 업적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도록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한것이다. 그러므로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깊이있게 보여주는것은 당의 령도업적에 대한 작품창작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장편소설 《너당원》, 《빈터우에서》, 《철의신념》, 《축원》 등 작품들은 가장 어렵고 준엄한 순간에 당은 어떻게 인민을 믿고 인민을 령도하였으며 인민대중은 어떻게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감으로써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력사적전환을 마련하였는가하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준 서사시적화폭으로 된다.

이 작품들은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을 자기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보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투쟁하여왔으며 인민대중은 또한 당과 수령을 자기의 심장파 뇌수로 믿고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여온 일심단결의 전통에 대한 심

오한 인간학적해명으로 된다.

혁명적수령관이 투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의 전형들인 주용녀, 로장섭, 한씨 등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확고한 신념과 의리로 충성을 다한 우리 당의 참된 충신, 효자로서 주체문학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당과 인민대중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한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반혁명적책동과 기회주의자들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음모를 제때에 철저히 짓부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이룩할수 있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내놓고 모든 활동의 중심에 인민을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로써 당의 의도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가 된 이 위대한 힘을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생활을 통하여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작가들은 다양하게 맺어지는 각계 인물들간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풍모와 인민적품성이 발현되는 의의있는 생활세부들에 형상을 집중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세부가 가지는 의의를 깊이있게 해명함으로써 기름진 화폭을 창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령도자와 전사사이의 인위적인 관계설정과 도식적이며 류형적인 형상처리를 철저히 경계하고 참신하고 독창적인 형상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종자의 독창성과 성격의 개성화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당의 령도업적을 형상하는데서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적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당의 령도가 구체적으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직접적조직집행자인 당일군을 통하여 실현된다는것과 관련된다.

지난 기간 우리 작가들은 당일군을 중심주인공의

위치에 세우지 못하였던 제한성에서 벗어나 정면으로 취급하면서 우리 당의 당일군이 갖추어야 할 사상정신적특질과 품모를 개성적으로 뚜렷이 형상하는데서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의 건설사업소 당비서 탁준범, 장편소설 《로동가정》의 광산당비서 김창민,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의 제철련합기업소 책임비서 신철민을 비롯하여 우리 문학에 형상된 주체형의 당일군의 빛나는 형상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의도와 구상을 절대적인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완강한 조직력과 전개력으로 그 관철을 이끌어가는 혁명의 참다운 기수, 적극적인 고무자로 되고 있다.

특히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령도방법과 령도예술을 체득하고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불씨를 심어주고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어나가도록 따스함이 이끌어주고 깨우쳐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기와 활력을 부어주고 아량있게 풀어주며 어머니당의 당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는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적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였다. 이 작품은 구체적인 인간관계속에서 중심주인공인 당일군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게 하고 뚜렷한 형상의 묘를 가지고 성격을 개성화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당에 의하여 새롭게 육성되고 교양된 우리 시대 주체형의 당일군들의 품모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준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이 이룩한 령도업적의 위대성을 천명하는데로 지향하여야 한다.

당의 업적에 대한 작품창작에서는 이밖에도 여러 가지 미학리론상, 창작실천상 문제들이 제기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깊이있게 연구체득하고 인간과 생활을 깊이있게 탐구하여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형상을 심화시킴으로써 업적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혁명업적에 대한 작품을 더 많이,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리 수령, 우리 당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안고 당의 위업을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열매

한익훈

요즈음은 골짜기에 깊숙이 들어앉은 땀기밭들을 정리하느라고 토지건설사업소가 온통 달라붙었다. 어찌나 작업장이 멀어졌는지 현장을 뜯적만해도 서산마루우에 재궁재궁 빛을 뿜는 해가 떠있었는데 사업소 사무실에 이르니 어느새 사위가 느슨하게 엄습하는 암회색어스름에 푸근히 잠겨들었다. 산골 마을의 초겨울저녁은 참 서늘리도 찾아든다.

한걸음 앞서서 전등불빛이 벌그레 서린 출입문을 열던 책임기사가 우뚝 멈춰서서 그 석잡한 억양의 구수한 음성으로 떠들썩했다.

《아니, 이게 누군가! …원참 꿈처럼 나타났군그래.》

방안에서도 반가움에 들뜬 쟁쟁한 목소리가 맞받아 울려나왔다.

《그간 모두 편안했습니까? 저도 잠전에 들어섰습니다.》

떡판같이 넓적한 책임기사의 어깨너머로 한 사십 줄에 들어섰을가싶은, 얼굴이 부얼부얼하고 눈이 유표하게 큰 손님이 가쁜한 흰 이발을 드러내고 밝게 웃고있었다. 넓은 이마로 흘러내린 반고수머리, 실한 목 그리고 첫인상에 몹시 푸접이 좋아보였다. 밤빛 숨저고리를 입은 그의 발치에는 시누런 개털모자가 없힌 훌쩍한 배낭이 놓여있었다.

《아, 정말 인사하게나.》

문득 책임기사가 무슨 큰일이나 난것처럼 덤벼치며 너스레를 떨었다.

《한 보름전부터 우리 사업소에 와서 현지체험중인 소설가선생일세.》

《반갑습니다. 전 프락포르공장 공업시험소에서 일하는 장남규입니다.》

《프락포르의 치차를 연구하느라고 수골하는 쟁쟁한 연구사라우.》

책임기사가 빙그레 웃으며 발을 달았다.

인사를 나누고나서 우리는 난로결에 의자를 끄당겨 앉았다. 추위에 웅크라들었던 몸이 당장 녹작지근하게 후더워났다.

《어째 김성문실장은 안오셨나?》

시뻘겅게 달아오른 난로등어리에 담배불을 붙여 빼금빼금 빨아대던 책임기사가 장연구사에게 눈길을 들었다.

《안오실락있습니까. 저 안학리까지 함께 왔었는데 아침식사후에 갑자기 심장질환이 또 발생을 일으켜 안정시켜놓고 나만 왔지요.》

《원참, 칠십에 이른 고령의 그 병약한 몸에도 언제 한번 빠질 때가 없구만그래.》

책임기사는 량미간을 찌프리며 혀를 찢찢 찼다.

《오면서 보니깐 여기 토질이 별로 씨원치 않은것 같더군요.》

《말이 아닐세, 온통 석비레판에 돌이 많지… 그래 토지정리를 마저하고는 인차 뒤따라 흙깎이에 들어가야 할가보네.》

《그러니깐 치차들이 수래 나갔겠습니까.》

《많이 나갔지. 치차는 말할게 없고 베아링도 축도 탕탕 나가는 판일세.》

장연구사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불었다.

《그럴줄 알았습니다. 그래 도대체 얼마나 나갔습니까?》

《임자네 치차말인가? …이제 〈차력부〉를 보면 알겠지만 아마 〈천리마〉게 하나 나갔던 지… 그래그래 원추소치차야, 그리곤 모두 제대로지.》

《아니, 그게 진짜로 하는 소림니까?》

잔뜩 울적해있던 장연구사는 가뜩이나 큰눈이 흰 자위만 남게 까뒀집고 책임기사의 팔굽을 잡아흔들었다.

《그런걸 난 여기 와서 하나도 건지지 못하리라고만 생각했지요. 아참, 우리 실장동지가 이 사실을 아신다면…》

장연구사는 그만 목이 꺾 메여하며 헛기침을 짓었다.

《모두들 신바람이 나서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하고 비난까지 하더니… 제길할 스물다섯 해나 웅친 피로움을 오늘에사 말끔히 털게 되었습니다.》

《이사람, 진정하게, 그러니 인젠 임자네 그 교강종이 성공했던 소림가?》

《성공입니다. 다른 농장들에 설치했던 치차들도 모두 정상이란 말입니다.》

장연구사는 눈물이 그렇그렇해서 환성을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개털모자를 푹 눌러썼다.

《빨리 차고에 가서 〈천리마〉 기관도 좀 보고 〈차력부〉도 봐야겠습니다.》

두사람의 이야기를 그저 덤덤히 듣고있던 나는 부지중 스스로의 충동에 휩싸여 《아!》 탄성을 올렸다. 화제에 오르고있는 김성문이 어찌면 내가 익히 알고있는 시람으로 생각되는것이였다. 아니, 틀림없었다. 김성문! 치차! 그리고 《아보가드로》라는 별명 또한 너무나도 신통찮은가! 분명 그다. 금시 심장이 귀밑으로 튀어올라와 뛰는것 같았다.

나는 덤벼치며 책임기사를 따라 문밖으로 달려나가는 장연구사의 팔굽을 잡았다.

《혹시 연구사동무가 말하는 그 아보가드로가,》

얼결에 말이 이렇게 나간 나는 다소 면피해서 헛스럽게 웃어버렸다. 《저, 김성문이라는분이 그전에 과학원에서 박관압연롤을 연구하다가 프락트프공장으로 내려간분이 아니요?》

《과학원에서?... 압연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새삼스레 나를 뜯어보았다.

《우리 실장동지를 잘 아십니까?》

《예... 그 박관압연롤을 연구할적에 만났됐지요, 하긴 오래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이래저래 반갑군요, 실장동지가 몸이 좀 완쾌되면 이제 오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꼭 오실겁니다.》

혼자 남은 나는 담배를 피워물고 방안을 서성거리었다.

레사롭다가도 뜻밖에 비상한것으로 돌변하는게 생활인가싶다. 어찌면 기억에서 아예 지워져버렸던 사람을 여기 토지건설사업소에서 다시 추억하게 될줄이야...

×

하늘로 치솟는 시뻘건 불기둥, 일시에 터지는 사람들의 아우성, ...이것이 짧은 소설가가 처음으로 찾아간 북방의 한 제철소 용해장에 설치된 박관압연롤연구현장이었다.

타래쳐오르는 그 무시무시한 불기둥속으로 한사람이 철사닥다리를 타고 기여올라왔다. 연기가 안개처럼 그물거리는 그의 온몸에서는 열기가 내뿜기였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누렇게 누린 뜨거운 작업복을 벗긴다, 물을 끼얹는다 하며 야단법석이었다. 바지가랭이로 기여오르는 불을 성급히 털어주는 사람도 있었다.

불기둥속을 뚫고 올라온 사람은 쇠무지우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에 번진 땀을 뺨 훑으며 온 제강직장이 떠나가게 떠들썩 웃었다.

《됐소, 인젠 됐소, 원인을 알아냈소. 성공이요!》

영치를 툭툭 털며 일어서는걸 보니 구척장신의 긴장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바로 내가 만나야 할 김성문연구사일 줄은 몰랐다. 그는 목이 길고 이마는 높았으며 짙은 눈썹밑에서 지혜로운 표정을 띤 두눈이 생각에 묻혀 번뜩이는 통털어 사내다운 미남이었다. 웃어도 떠들썩하게 크게 웃고 룡담을 즐기고 마음이 서글서글했다. 그는 만나는 첫순간부터 대뜸 호감이 갔다. 그리고 박관압연롤연구현장에 도착하여 뜻밖에도 목격한 그의 남아다운 영웅적행동(달리는 생각할수 없었다.)이 나를 감동시켰다.

그는 생명의 위험을 완전히 담보할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험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잖게 이야기했다. 몇달동안 신고하여 시험제작한 압연롤들이 레외없이 절반 토막났다. 그 원인을 규명하느라고 연구집단은 별의별 방법을 다 해보았으나 도무지 뾰족한 묘책이 생기지 않았다. 그때 김성문이 룡제작형타의 밑구멍을 터치여 쇠물을 뽑음으로써 팽각상태를 수나롭게 알아낼수 있는 착안을 내놓았다. 누구나 신듯 찬성해나서지 않았다. 끝세 열톤나마 되는 쇠물을 부어넣고 그밑에 들어가 쇠물을 뽑는다는것은 몸서리가 쳐지는 위험한 일이었던것이다.

그리하여 그 무시무시한 시험방법을 착안한 김성문자신이 맡아해내었다.

그 일을 치르는 순간에 내가 도착한것이였다.

그 시험의 성공으로 하여 얼마 안있으면 압연롤연구가 빛나는 열매를 맺게 될 확고한 전망이 띄여졌다. 참으로 큰일을 해내었다. 수입에만 의존하던 박관압연롤을 자체로 해결할수 있게 되었으니 그에게 안겨지는 명예가 얼마나 클것인가. 명예는 한치 앞에서 눈부시게 빛나고있었다.

나라의 권위있는 교수, 박사들이 적지 않게 내려왔는데 그들은 이번에 김성문이 발기하여 달성한 성과는 학계에 귀중한 시사를 던진다고 내놓고 장담했다. 김성문자신도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 꿈처럼 놀라와하며 이번의 연구성과에 기초해서 인차 멋들어진 학위론문을 내놓겠다고 자랑에 겨워 말했다. 장차 나라의 압연롤연구분야에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권위자로 된 포부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았다.

김성문의 눈부신 과학자적성공에 매혹된 나는 그를 주인공으로 한 큰 형식의 작품을 감히 쓸 생각까지 하게 되였다.

어느날 과학원의 부름을 받고 며칠 평양에 올라갔던 김성문이 한창 작품구상중에 있는 나를 찾아왔다.

《작가동무, 난 인젠 여기 연구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오. 그래 작별인사겸 왔지.》

나는 속이 철렁했다.

《어제 나는 어버이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신 합금강품종확대를 위한 협의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냈소.》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었다.

그는 흥분해서 말을 이었다.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에 부족한 일부 합금원료를 다른 나라에서 사다가 넣어 기계들 만들자니 힘이 든다고 하시면서 과학자들이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로 우리의 강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불이나 뒤집어쓴것처럼 얼굴이 뜨거웠소. 여때까지 우리는 값비싼 수입합금원료를 뿔수록 적게 쓰는 측면에서만 생각했지 완전히 우리의 원료와 자원에 기초한 새로운 강종을 연구할 생각은 전혀 못했단말ियो.

정말 가책이 컸소. 과학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하여 머리를 들수가 없더구만. 그래서 나는 결심했소. 평생을 바쳐서라도 우리의 원료로 새로운 종을 기어이 연구해내여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고말이요.》

나는 그의 결심에 탄복했다. 그러면서도 당장 명예의 문고리를 잡게 된 박관압연물연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동무가 꼭 그 말을 할줄 알았소. 그제 인젠 성공이 불보듯 명백해진 지금에 와서 손을 털자니 물론 나도 퍼그나 아쉽소. 하지만 나는 그 연구사업의 전망이 명백해졌기때문에 다른 동무들에게 떠맡기고 떠나는것이 마음 편하오. 수입합금원료를 전혀 쓰지 않고 나라에 수없이 요구되는 치차류들을 만들수 있는 새로운 강종연구사업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내 필생의 목표요.》

그의 얼굴에는 단호하고 결연한 빛이 어렸다. 새로운 강종연구를 위해 그는 어느 프락포르공장으로 아예 집을 싸들고 내려가기로 작정했다고 했다. 치차가공을 하는 생산현장에 묻혀살면서 금속재료쟁이인 자신이 전기쟁이들의 도움도 받고 더구나는 로동계급의 적극적인 방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저녁에 나는 그를 바래워주려고 역에 나갔다. 차거운 가을비가 구질구질 뿌려치고있었다. 나는 저으기 기분이 산란했다. 주제넘다할만치 큰 작품창작에 대한 욕망을 품게 했던 그 주인공이 꿈같은 미련만 남기고 떠나가는 것이었다.

울적해있는 내 어깨를 짊으며 김성문이 스스로 앞을 뚫어 주었다.

《두고보오만 언제인가 동무가 꼭 다시 나를 찾아오게 될게요, 틀림없다니깐.》

그의 그 말이 뚫으로 들리지 않았다.

의젓하고 시름한점 없는 그의 밝은 얼굴에서 나는 그 어떤 강한 믿음을 받았다.

《꼭 성공하십시오.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열차를 따라가며 부르짖었다.

김성문은 승강대에 꺾두룩 서서 손을 흔들었다.

문득 머리위의 확성기에서 서정가요의 선율이 가슴속을 흔들며 선명하게 젖어들었다.

...

헤어지면 그림고 만나면 정다운
사랑하는 동무여 나의 벗이여
세월은 흐르고 산천은 변해도
우리의 우정은 가를수 없다네

나는 어쩐지 굶인돌이로 꼬리를 사리는 열차를 보자 눈물이 복받쳤다.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흘렀다. 내가 자기

를 찾아오게 되리라고 뚫을 하며 들썩하게 웃던 김성문의 얼굴은 점점 추억의 쪽문에서 희미해져갔다.

언제인가 나는 동행열차에서 김성문이 과학원에 있을 때의 실장을 우연히 만났다. 그때는 준박사였지만 지금은 교수며 박사였다. 그리고 실장이 아니라 소장이었다.

그를 만나니 불현듯 김성문이 추억되었다. 그동안 감감 잊고있었던 김성문이었다. 헤어진지 십년세월이 되었던것이다.

《실상은 그 성문동무가 넘겨주고 간 연구성과가 나의 과학자적성공의 주춧돌이 되었소. 나는 언제나 그를 고맙게 생각하오.》

자신이 오늘 학계가 주목하고 떠받드는 쟁쟁한 인물로 되는데는 김성문의 덕이 컸다고 조금도 꺼리지 않고 말하는 그가 나는 은근히 존경이 갔다.

《그런데 성문이 그 사람 일이 참 시원하게 퇴이지 않소.》

김성문과 공업대학의 동기동창생이었던 소장은 안경을 벗어 닦으며 한숨부터 앞세웠다.

《십년전에 그 사람이 대답한 결심을 품고 프락포르공장으로 떠날 때만 하여도 학계에서는 기대가 컸겠지. 한데 바랄걸 바라는지 모르겠소.》

그의 이야기는 나를 몹시 서운하게 했다.

적지 않은 동년배들이 호보원사로, 교수, 박사로 승격하였으나 김성문은 여전히 한자리에서 허우적거리고있었다. 그는 이미 학계의 주목반경에서 희미한 존재였다.

《우리 학계는 사실 그의 연구사업을 우러하고있소, 너무 착안이 엉뚱하단말이요.》

이쪽의 기분에는 무관계로 소장은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치차용 재질이라 할 때 소경깊이가 큰 구조용탄소강을 의미한다는것은 금속재료공학의 초보적인 상식이요. 그런데 성문이 그 사람은 소경깊이가 얇은 고주파소경치차를 개발한다는거란말이요. 말하자면 수입합금강을 전혀 쓰지 않고 순 우리의것으로 하잔 말이지. 성공의 길이 막연하지만 행여 성공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소.》

지금 그 누구의 입에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네만 학계에서 김성문의 이름이 나오면 의례히 이팔리아의 학자 아보가드로의 이름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니요. 등온, 등압 조건에서 부피가 같은 모든 기체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 있다, 이게 아보가드로가 내놓은 유명한 가설이요. 하지만 그걸 증명하지 못하여 생전에 끝내 인정받지 못한 불행한 아보가드로였지.》

×

출입문이 벌럭 열리며 찬 랭기가 싸늘하게 끼쳐들었다. 피로운 상념의 세계는 일시에 산산조각이

났다.

《아니, 여대 그냥 여기 있었습니까. 그런걸 식당에도 가봐 숙소에도 가봐... 어서 합숙으로 갑시다. 책임기사아바이가 찾습니다.》

장연구사는 훌쩍한 배낭을 어깨에 둘러메고 나를 재촉했다.

《내 십년만에 처음으로 빈 배낭을 저봅시다. 늘 파손된 치차를 무겁게 넣어가지고 패배자의 쓴 걸음을 했지요.》

내가 들어있는 합숙방에 들어서니 책임기사가 하얀 단지앞에 꼼처럼 웅크리고 앉아 마른 명태잡질을 벗기고있었다. 눈에 익은 단지였다. 보기만해도 군침이 저절로 돌아왔다. 일전에도 휴식날에 뒤편 저 단지와 마주 앉아보았다.

《요게 하루만 더 있으면 제법 맛을 낼텐데 그런대로 땡탕은 아닐거우다. 장연구사가 오늘 어찌나 사기가 나하는지 나도 덩달아 기뻐지는구려. 그래썬 잘난건 못되지만 어서 들읍시다.》

책임기사는 어깨를 흔들며 절절 웃고나서 상우에 놓은 두개의 커다란 사기고뿌에 탁배기를 따랐다. 기름이 동동 뜬 탁배기가 찰랑찰랑 차오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장연구사와 내가 급급히 팔을 잡았으나 그는 이제 기술협의회가 있어 가야 한다며 뉘뉘 손을 내저었다.

《장연구사동무, 내 그 <천리마>운전수한테 시외전환 걸어왔으니 마음놓게나. 전화가 걸리면 여기 합숙에 대라 했으니 그리 알게. 그럼 난 갑니다.》

넓은 어깨로 문을 슬며시 밀치며 책임기사는 혈색좋은 얼굴에 벅벅 웃음을 지었다.

터벌터벌 신발소리가 복도바닥을 울리며 멀어져갔다.

생김새와 달리 장연구사는 주량이 시원치 않았다. 청량음료마찬가지인 탁배기 두고뿌에 얼굴이 벌겋게 떠서 혈색이었다. 세번째 고뿌는 입에 대다말고 그냥 상우에 내려놓았다.

《난 천천히 들겠어요. 숨이 가쁘구만요.》

대신 담배를 많이 피웠다.련속 줄담배였었다.

《그놈 하나가 참 애매하거던요.》

그는 제생각에 몰두하여 밀도 끝도 없이 뇌이고는 한숨을 내뿜었다.

《〈차력부〉를 보니까 분명 원추소치차가 나갔는데 그 〈천리마〉기관을 해체해보니까 베아링도 새것이요 치차도 새것... 베아링을 새것으로 교체한게 이상한데다 이발이 부러진 치차도 그래 축도 그래 몹시 갈퀴고... 꼭 무슨 꼭질이 있을것 같은데 그 운전수가 덜컥 실훈려행을 떠났는지 않습니까.》

《아, 엇그제 떠났지, 처가편이 자강도 시중이라던지...》

《그렇대요, 까짓것, 그거야 새발에 피지요. 하긴

책임기사아바이가 시외전환 해놓았다니 무슨 알쑤가 있겠지요. 들자요.》

장연구사는 호기있게 고뿌를 움켜쥐었지만 입술에 땀이 맺고 또 담배질이였다.

《우리 실장동지를 아신다고 했지요.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오래전의 일을 더듬어 대충 이야기해주었다.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 허참 작가선생까지 아보가드로를 알게썬 되었으니 사실상 우리 실장동지가 유명해진 셈이지요.》

언젠가 실장동지가 나한테 실토히더군요.

〈이사람 남규, 나한테 아보가드로라는 굉장한 훈패가 붙은걸 아나?〉

나는 멋쩍은 일이었지만 안다고 했지요.

〈알고있군그래. 아보가드로는 유명한 가설을 내놓고도 끝내 생전에 증명 못했네.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사람이야. 50년후에 같은 이딸리아의 화학자 칸니카로가 그의 가설을 증명해놓았거든. 한데 이 조선의 아보가드로는 가설쟁이로 평생을 마칠가봐 겁나는구만.〉

나는 오늘 정말 기쁩니다. 이런 날이 온게 꿈처럼 믿어지지 않습니다. 실장동지가 25년세월을 바치고 나도 10년세월을 바쳤지요.

나는 이번 걸음까지 헛탕치면 사실 교강종연구에서 완전히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나는 어쩐지 오늘 너무 기뻐서 무한정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장연구사는 시퍼렇게 담배연기를 내뿜고 충혈진 두눈을 습벅이였다.

《공업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했던 10년전만 하여도 나는 리상과 포부가 큰 청년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것 같았지요. 그 당시 나의 일기장에는 찍하면 〈금속공학계의 혜성〉, 〈열처리공학의 왕좌〉라는 말이 대명사처럼 자주 올랐습니다. 그 요란한 이름은 다름아닌 나 자신의 랑만적인 리상이었지요.》

프락또르공장 공업시험소의 금속재료 및 열처리 연구실에 배치받아오니 첫 연구과제로 교강종연구를 협조하라는것이였습니다. 금속재료학전문가인 실장동지를 열처리학전문가인 내가 도와주라는거지요.

교강종연구가 학계에서 어지간히 비난과 시비질의 대상으로 되고있는것을 이미 알고있었던 나는 그 연구과제가 선뜻 당기지는 않았지만 불가사의한 욕망으로 가슴이 끓어올랐습니다. 실장이 15년세월을 앉아몽개는 일을 내가 한번 해제껴서 학계를 들썬 놀래우리라!... 당장 자신이 명예의 첨단에 높이 솟아오를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시작점에서의 나의 결심은 들뜨긴 했어도 찬양할만한것이였습니다. 하지만 달이 가고 해가 흐를수록 나는 자신이 공연한 일에 뛰어들었다는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교강종으로 제작된 치차들을 각이한 토질을 가진 협동농장이나 토지건설사업소의 트랙트르들에 설치하고 3년 주기로 운영시험을 하는데 1년을 건디여내는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농장에서는 자기네 트랙트르들에 실속없는 치차시험을 계속할 용기가 없다고 로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정사정 뵙니다. 올해가 목구멍까지 치받쳐도 어찌는수가 없지요. 봄갈이, 가을갈이가 끝나면 어김없이 가보는데 나는 매번 푸주간에 들어가는 황소격으로 실장동지한테 끌려간 셈입니다.

나는 조급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만치 6년 세월이 허송되었습니다. 시작점을 잘못뎀 자신의 과학자적운명이 가공하게 여겨지더군요.

련속 패하고 공장으로 돌아오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서져나간 치차들이 잔뜩 담긴 무거운 배낭을 메고 허덕허덕 공장정문으로 들어서던 어느날 누군가 반기며 나를 찾았습니다. 눈여겨보니 과학원에 배치받은 동창생이었습니다. 그는 한해전에 준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의젓하고 번듯해보이는 그를 마주하자 나는 당장 자신이 초라해져버리는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왔잖어. 동무네 공장을 견학시키려고 신생독립국가에서 온 손님들과 함께 왔지. 알아보니 뭐 치차때문에 또 농촌에 내려갔다더구만, 그래 이번엔 좀 소득이 있나?〉

그는 소리없는 웃음을 짓고 나를 지켜보았습니다. 눈갈이 흰 하얀 와이샤쓰우에 드리운 값비싼 넥타이의 중간에서 현란한 뻘이 눈부시게 번쩍이며 나의 두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것조차 나를 조롱하는것 같았습니다.

나는 부지중 부아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배낭을 포장도로바닥에 팡 둘러메쳤습니다.

〈소득인지 뭘지 모르겠어. 또 랑패야.〉

저쪽은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측은한 음조로 나를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생들중 누구누구는 준박사학위를 받았고 누구누구는 학위론문을 제출했거나 집필중이고... 그런데 나 장남규는 아보가드로의 꿈쟁이라는 그늘 밑에서 6년세월을 허송했으니 저으기 안타깝다는 암시였습니다.

나는 분했습니다. 당장 땅을 치며 통곡을 터뜨리고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됐어, 아보가드로가 그래 어쨌다는거야. 그의 가설이 끝내 유명하게 증명된것처럼 우리의 새 강종도 언젠가는 꼭 동무네를 놀래울 때가 있을게야. 내가 나를 알아 처신할테니 너무 사람을 깔보지 말았으면 좋겠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나는 실성한 사람처럼 내

쳐 역정을 내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씩씩거리며 황급해하는 동무의 얼굴을 곧추 쏘아보다가 배낭을 툭 둘러메고 연구실로 걸음을 놓았습니다.

눈물이 뿌연게 앞을 가리워 몇번이나 발이 무엇에 걸쳐여 없어질번했습니다.

대학때는 것처럼 남들의 선망을 자아내던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꼴이 되었는데, 명예는 고사하고 6년간 패배자의 쓴 고배만 들이키고있지 않는가. 장차 영원히 아보가드로의 그늘밑에 썩어버리지 않는다고 어찌 단언하랴. 그러구보면 너무나도 정당하게 동정을 표한 동무에게 무분별하게 행악질을 한 자신이 혐오스러웠고 창피했습니다.

나는 당장 교강종연구에서 손을 떼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소빨은 단김에 빼렸다고 이제라도 발을 뚫지 않으면 영영 천길나락의 심연으로 곤두박쳐 헤어나올것 같지 못한 야릇한 공포가 전신을 휩쌌습니다.

나는 싸움싸우고난 사람처럼 찌뿌둥해서 실장동지의 방문을 와락 당기었습니다.

파손된 치차를 책상우에 무드기 쌓아놓고 확대경으로 관찰하고있던 실장동지가 기다렸던듯 반기면서 나를 불렀습니다.

〈이사람 잘 왔네. 어서 오게, 어서 오라니깐.〉

실장동지의 길쭉한 얼굴에는 어린애같은 천진한 표정이 어려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길이 이끄는대로 다가갔습니다.

〈아참, 우연일세, 우연이야, 이상하게 치차이발이 한뼘새로 부러졌길래 확대경으로 여겨보니 원참 미세한 균열이 가지 않았잖나. 새것들에도 신통하게 다 그렇단 말일세.〉

나는 그가 내주는 확대경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미세한 균열이 치차이발들새에 가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미세한 균열을 알아보았으니 도대체 어쨌다는건가? 그것이 교강종의 성공에 무슨 담보라도 중단말인가?

〈이사람, 그런데 얼굴색이 좋지 않구만, 어디 아픈게 아닌가?〉

실장동지는 걱정에 차서 쪼프려진 두눈으로 나를 찬찬히 여겨보았습니다.

나는 흠칫 몸을 떨며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신이 엄청난 결심을 품고 찾아왔다는 생각에 관자노리의 피줄이 툭툭 뛰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거의나 리성을 잃다싶이 된 나는 순간이나마 타오른 그 자제력의 불꽃을 그냥 지켜 살려내기는 너무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결함을 꼭 가공상으로만 보겠습니까.〉

나는 보통때는 감히 번지기 어려운 말을 하는 자신이 스스로도 놀라왔지만 내친김에 기분내키는대로 내뿜었습니다.

〈제질상의 결함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야...)

〈뭐라구?〉

실장동지가 것처럼 아끼던 확대경을 세멘트바닥에 떨어뜨리며 무너지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바람에 나는 당황해나서 뒤말을 가무뎠습니다.

《이자 동무가 한 말이... 그 말이 정말 진심으로 한거요?》

실장동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절반 동강이 난 확대경을 주어들고 났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나를 건너보았습니다.

나는 못할짓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가슴이 활랑거렸습니다.

쏟친물을 다시 담을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이제는 어찌할수 없을진대 그말을 되새겨보자 몸서리가 쳐지지 않겠습니까.

재질상의 결합을 인정한다는것은 사실상 교강종 자체에 대한 사형선고나 같은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름아닌 내가 눈섭하나 까딱않고 선언했던말입니다.

이렇든저렇든 그래도 6년세월 함께 모지름을 써오던 제가 이제 와서는 하늘의 별을 따오겠다는 따위의 허무한짓을 한다고 내놓고 시비하고 비난하는 일부 사람들의 반대론거에 스스로없이 함세해버린 셈입니다.

더 견딜수 없는 번뇌와 모멸의 쓴 고배를 맛보면서도 애오라지 의지해오던 지평이가 뜻밖에도 꺾어져버렸으니 그때 믿음을 상실한 실장동지의 정신적 타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동무까지 그렇게 나을줄은 정말 몰랐구만. 놀랍소.〉

실장동지는 심장의 동통이 오는지 손으로 가슴을 꼭 짚고 창백한 얼굴을 이그러뜨렸습니다.

〈동무마저 그렇게 신심이 없어하면 난 견디여낼 것 같지 못하오.〉

실장동지의 음성은 몹시 갈리였습니다.

나는 이 일에서 손을 떼겠다는 말을 꺼낼수가 없다는것을 의식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했다면 실장동지는 위불없이 실신해버렸을겁니다.

나는 겁을 먹고 즉시로 그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실장동지, 저두 너무 애가 타서... 금방 저는 정문으로 들어오다가 얼마전 준박사학위를 받은 동창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더러 아보가드로의 그늘 밑에서 6년세월을 허송한다고 심심히 동정했습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아무런 일도 못하고 썩는다는거지요.〉

나는 건잡을새없이 설음이 욱 복받쳐 그만 흐느껴 울었습니다.

〈음, 동무가 온지 벌써 6년이 되었구만. 참 세월 두... 한데 나때문에 허송세월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미안하이, 이제라도 동무가 그 어떤 미련을 가진 연구사업이 있다면 그걸 잡아하게. 내놓기는 아깝

지만 어찌겠나. 난 붙들지 않겠네.〉

그는 나더러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선듯 교강종연구에서 손을 털겠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억양없이 울린 그의 측은한 어조에는 더욱 나를 꼭 움켜쥐는 절절하고 목메이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작정 자신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실장동지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주름잡힌 두눈구석에는 눈물이 글썽하니 고여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웃었습니다.

〈고마우이, 순간이나마 동무를 나무랍게 여긴 이 늙은이를 용서해주시오.〉

남규동무, 말이 났으니말이지 명예란 조급해한다고 오는것이 아닐세. 나라를 위해 량심적으로 헌신하는 그자체가 명예로 되지 않을까. 한 사물이 완성될수록 느끼는 고통과 기쁨은 커진다고 그 누가 말했지. 동무는 명예에 너무 조급했던 나머지 고통만 생각하고 창조적기쁨을 망각했던말일세. 내가 너무 통짜로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하는건지 모르겠어. 무리했다면 용서해주게.〉

나는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습니다.

과학자적명예에 대해서 너무나도 저속한 세계에 있었던 자신을 처음으로 발견한듯싶었습니다.

하지만...

×

치차들에 생기는 균렬현상이 어디에서 오는것인가?... 이제는 우리 연구사업의 초점이 여기로 쏠렸습니다.

수다한 실험과 자료분석으로 고심어린 낮과 밤이 흘렀습니다. 재질상의 결합인가, 가공상의 결합인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운명적인 판가리의 격전장에 나선 사람처럼 초긴장되었습니다.

드디어 원인이 판명되었습니다. 결합의 원인은 다행히도 가공상에 있었습니다. 나는 눈물이 복받쳤습니다. 여때까지 바친 세월이 허무한것으로 되지 않은것입니다. 은근히 마음속을 괴롭히던 재질상의 결합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나의 머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사기충천하여 합리적인 가공방법을 연구하는데 달라붙었습니다. 사실상 열처리전문가인 내가 제일을 톡톡히 하지 못하다나니 그런 균렬현상이 일어난것이니 자신이 그걸 없애는 가공법을 연구해내는것이 도리기도 했습니다.

어느날 실장동지가 급가열상태에서 강력랭각을 한번 해보는것이 어떻겠느냐고 지나가는 말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자 나의 머리에는 번개가 일었습니다. 급가열상태에서 강력랭각시키면 립자들이 균등하게 응축됨으로써 미세한 균렬현상이 퇴치될수 있을것 같았습니다.

나는 가열온도와 시간, 팽각속도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한 기초에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꿈처럼 균형현상이 없어졌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이 사람 남규, 정말 큰일을 해냈네. 동문 갈데 없는 보배야.〉

실장동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그렁하여 다짜고 짜로 내 어깨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나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아니, 이 가공법이야 실장동지가...〉

〈원 별소릴... 재로쟁이인 나야 그저 그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뿐이었지... 임잔 하나의 새로운 열처리가공법을 발명했네.〉

사실 그때 그 새로운 열처리방법은 실장동지의 피타는 탐구의 열매였습니다. 나는 그저 실천으로 그 방법의 정당성을 담보했을뿐이지요. 그런데도 실장동지는, 자기는 확정적인 타산없이 미심결에 비쳐보았을뿐이라고 하면서 나를 떠돌렸습니다.

온 실이 기쁨으로 들썩거리며 나를 축복해주었습니다. 나는 당장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떠받들리는 것이 놀라움기만 했습니다. (후날 그 열처리법은 발명권을 받았습니다. 장차 그에 기초하여 학위논문도 쓸 계획입니다.)

각이한 형태와 크기의 치차들에 대한 열처리실험이 곧 진행되었습니다. 온 실이 떨쳐나섰지요. 실험 결과는 매일 정상이었습니다.

한 절반가량의 실험이 끝나갈무렵부터 실장동지는 계속 신열이 오르고 심장질환이 악화되는데다가 한쪽다리에 관절증상까지 왔습니다. 의사들은 절대안정하지 않으면 회복할수 없는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평이를 짚고 실에 나와서 치차의 열처리실험결과를 직접 다 보고서야 마음놓아했습니다.

마지막 열개의 치차들에 대한 실험이 남았습니다.

그 열개까지 정상으로 나와주면 만세입니다. 그런데 일이란 왕왕 잘되다가도 마감에 가서 아뽀싸 튀는 수가 있는 법이어서 그날은 별스레도 마음이 켕기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끝내 해내었습니다. 그 마지막 열개도 다 정상이었습니다.

치차들을 어깨에 둘러메고 우리는 나는듯이 실로 달려갔습니다.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실장동지한테 알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왁자지껄 떠드는소리를 들었던지 실의 2층창문이 활짝 열리더니 실장동지가 지평이를 짚고 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한 빛이 잔뜩 어려있더군요. 이 마감날에 그 누구보다도 긴장되어있었을 그였습니다.

우리는 실장동지를 향해 목메여 부르짖었습니다.

〈실장동지, 성공입니다!〉

〈모두 정상입니다!〉

그 순간 실장동지는 몸을 비칠거리더니 지평이를 떨구며 창턱밑으로 쓰러졌습니다. 극도로 쇠약해진 몸에 팽팽히 썩었던 하루동안의 긴장이 풀리면

서 그만 심장에 강한 충격을 받은 탓일것입니다.

정말 큰일이 나는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장동지는 몇시간후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침착한 눈길로 둘러보다가 한잠 푹 자고났다면 웃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교강종의 성공은 기본적으로 확정을 본 셈이 되었습니다. 온 공장이 우리의 성과를 축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구사업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면서 은근히 혹은 로골적으로 비난하던 시비질군들이 일시에 목을 움츠리고 입을 봉해 버렸습니다.

나는 그때 정말 어깨에 날개나 돋친것처럼 사기충천했습니다.

한데 실장동지는 전혀 립장이 달랐습니다. 기어이 운영시험을 다시 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아니, 균형현상이 제거되었지 실험실적 방법도 성공을 보았는데 꼭 운영시험을 다시 해야 합니까?〉

나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해야 하네. 그래야 마음놓을수 있어.〉

〈그래 또 3년입니까?〉

실장동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맥심이 풀렸습니다.

〈또 3년?!... 실장동지는 너무 고지식합니다. 남들은 별치않은걸 가지구두 요란히 떠드는데...〉

〈이사람 남규!〉

부지중 실장동지는 내 말허리를 잘랐습니다.

〈명예가 뭐가 커서 그리 조급해하나. 사람이 생전에 칭찬을 못받아도 죽어서 욕을 먹어선 안돼. 이 위대한 시대를 받들어 우리가 내놓은 연구성과가 먼 후날에 가서 말밥에 오르게 된다면 그건 영영 잊을수 없는 치욕으로 된다는걸 명심하라구. 과학의 제단에는 명실공히 깨끗한 향심을 고여야 하는 걸세.〉

〈그것참 가혹한 진리군요.〉

나는 이 말이 목구멍까지 치받치는걸 참아내느라고 숨이 차서 쉼쉼거렸습니다.》

장연구사는 목이 킁킁한지 탁배기 한고뿌를 쭉 들이켰다. 이제 보니 꽤 하는 축같다.

《술직히 말해서 전 지난 3년간 늘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이었습니다. 앉으나서나 운영시험에 들어간 치차 생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견디여주겠는가 하는 걱정때문에 늘 꿈자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번까지 실패했다면 아마 전 교강종연구에 더 붙어있지 않았을겁니다. 10년세월을 허송하고도 무슨 미련으로 더 계속한단말입니까.

그런데 이같이도 꿈처럼 성공입니다. 내가 인내성을 잃고 끝내 견디여내지 못했다면 평생 후회하게 되었을겁니다.

명예에 대한 미련이 조금도 없이 한생을 교강종

연구에 헌신해온 실장동지의 깨끗한 그 과학자적량심이 나를 끝까지 참된 길로 이끌어주었습니다. 정녕 김성문실장동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간절히 기대하시는 주체강종연구사업에 티없이 깨끗한 충정으로 25년의 기나긴 세월을 바쳐왔습니다.

나는 감히 말합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던 우리 실장동지처럼 평생을 어버이수령님께서와 당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하게 바칠줄 아는 사람만이 시대의 애국자라고 말입니다. 사실상 그럴 때만이 인생의 흔적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말하자면 교강종과 같이 나라를 빛내이는 눈부신 열매를 기대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소견에는 우리 실장동지의 교강종연구에 2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보상된것만큼 우리 시대과학자의 고결한 탐구정신이 비긴 의의있는 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옹소. 전적으로 옹소! 어떤 의미에서 나는 그에게 빛을 지기도 했고 빛을 지워놓은 셈이기도 하지요.》

나는 가슴을 터치고 웃었다.

장연구사도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누가 방문을 두드리었다. 함숙경비원아바이였다.

《시외전화가 왔수다.》

장연구사는 자리에서 튕겨나듯 일어섰다.

×

이튿날 점심무렵 토지정리작업현장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건너편 차고쪽에서 장연구사가 와짜 떠들며 나를 찾았다.

《작가선생, 우리 실장동지가 오셨습니다!》
(...?!)

나는 대뜸 가슴이 울렁이었다.

파연 언덕반이길로 키가 흰칠한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고있었다.

마주 반달음질쳐가던 나는 흠칠 놀라 그자리에 멈춰섰다. 마주오는 늙은이가 내가 알고있는 김성문이가 아니었던것이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 살이 빠진 길쭉한 얼굴, 허약한 체구... 나는 당황했다.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는가.

《아니, 누군가 했더니 작가동무였구만!》

나는 짓속였던 머리를 번쩍 들었다.

《아!》

나도 탄성을 울리며 마주 달려갔다.

분명 그 김성문이였다. 너무나도 몰라보게 변해버린 그에게서 지혜로운 눈빛만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나는 그의 두손을 꼭 잡았다.

《세월두 참, 흥안의 청년이 이제는 머리에 서리를 하얗게 들썩구만.》

김성문실장은 채머리를 떨며 어설픈게 웃었다.

《선생님의 연구성과가 빛을 내는 때에 이렇게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연분인가 봅시다.》

《역시 소설가의 말씀씨가 다르네그려. 정말 기쁘이.》

그는 내 어깨를 짊으며 걸음을 옮겼다.

《선생님이 25년전에 역에서 헤어질 때 나한테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김성문은 두눈을 지혜롭게 번쩍이며 생각에 골몰했다.

《뭐라고 했더라?... 생각나지 않누만, 전혀 모르겠어.》

《〈두고보오만 언제인가 동무가 꼭 다시 나를 찾아오게 될게요. 틀림없다니깐〉》

《그랬던가? 원참, 25년간이나 거부기를 탄 주제에 그런 큰 대포를 놓았군그래.》

그는 그전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떠들썩 크게 웃었다.

《인젠 교강종으로 가공한 치차가 대대적으로 생산에 들어가게 되겠군요.》

《그래그래, 규격강재로 등록되면 그렇게 될거요.》

《어버이수령님께 어서 기쁨의 보고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시는 강종입니까.》

《옹은 말일세. 내가 충성이 부족하고 효성이 지극하지 못한탓에 여태 끝장을 못봤었네그려.》

《그런데 그날이 드디어 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니, 아직은 일러.》

김성문은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나는 너무나 뜻밖이어서 뒤따라오는 장연구사를 넘겨다보았다.

《아, 글썄 〈천리마〉의 그 원추소치차가 말썽아닙니까. 신희려행을 떠난 그 운전수동무가 아직 도착을 안해 그러지. 이제 그한테서 다시 시외전화가 오면 알쪄가 있을것 같은데...》

《원 사람두, 운전수를 만난다고 무슨 요행수가 있을줄 아나, 괜한 일일세.》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다. 치차도 새것, 베어링도 새것... 그런데 축과 치차만 갈퀴고... 틀림없이 무슨 곡절이 있단말입니다.》

《그건 물론 일리가 있는 소리야. 하지만 원추소치차가 나간게 틀림없는 이상은 다시 운영시험을 해보는게 마음편한 일일세.》

김성문은 손을 내저었다.

나는 옆에서 그냥 듣고만 있을수 없었다.

《그러니 또 3년을 고스란히 바쳐야 한단말입니까?》

김성문은 태연히 고개를 끄덕이었다.

나는 저절로 무거운 한숨이 내뿔려였다.

(이런 고집스런 로인과 손잡고 일하자니 장연구

사도 어지간히 속이 상하겠다.)

《아니, 선생님.》

내가 말했다.

《설사 그 치차가 부러졌다고 칩시다. 하지만 여러 토질이 어떤줄 알니까. 이미 쓰던 합금제치차는 몇달이 못가서 툭툭 나간답니다.》

내 말에 김성문은 량미간을 찌프렸다.

《아닐세. 우리 교강종으로 만든 치차는 그 어떤 토질에도 끄떡없어야 하네. 어버이수령님께서 간절히 기대하시는 강종인데 불비한 점이 티끌만치라도 있어서는 안된단말일세.》

나는 할말이 없었다. 아니, 가슴이 뭉클했다. 모름지기 25년전의 김성문이 다시 내앞에 나타난듯 싶은 비상한 충동이 북받쳤다.

그렇다, 박관암연물연구성과가 눈부신 명예로 현혹하였건만 어버이수령님께서 기대하시는 새로운 강종연구의 길에 선뜻 나서던 김성문연구사, 그는 인생의 저물녘에 이른 오늘에도 변함없이 깨끗하고 성실한 량심으로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뜻을 진지하게 받들어나가고있는것이 아닌가! 이런 참된 충신과 깊은 인연을 가졌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나는 눈물이 나도록 기뻛고 행복했다.

김성문네들이 떠나기전까지 책임기사가 지긋게 전화통을 끼고 앉았지만 신훈부부는 여전히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러거나말거나 서녘에 석양노을이 빨갭게 불탈 때 김성문네는 길을 떠났다. 차시간이 되여왔던것이다. 한 시오리걸음을 해야 간이역이 있다.

《이제 또 3년을 기다려내겠소?》

나는 장연구사의 손을 잡으며 슬쩍 룡을 던졌다.

《작가선생의 야지가 보통 아닌데요.》

장연구사는 어깨를 흔들며 웃었다.

《작가선생한테 너무 솔직했던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나는 동구밖 언덕길에서 김성문네와 작별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선생님, 인젠 몸을 좀 돌보셔야겠습니다.》

나는 목이 메여올라 이 말을 겨우 번지였다.

《고마우이, 하지만 인제는 내가 제구실을 못해도 걱정 없네. 끝끝한 이 남규동무가 있잖나.》

김성문은 장연구사의 팔굽을 잡으며 변함없는 그 터진 통쾌한 웃음을 웃었다.

어서 들어가라고 손을 저으며 돌아서걸던 김성문이 무엇에 걸채였는지 뒤뚱거리다가 겨우 지팡이에 의지하여 몸을 가누었다. 나는 어쩐지 너무나 허약해진 그를 처음 보는듯한 그지없이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 구부정하고 휘인 큰 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쇠물이 이글거리는 형틀밑에 뛰어들던 어제날의 힘이 싱싱하던 그 김성문이 아니다.

이제 그 하나의 원추소치차에 대한 운영시험으로

또 3년을 보낼지 6년을 보낼지 알수 없다. 그런데 저 김성문은 벌써 70고령에 이른 늙은이고 더우기는 건강치도 못하다. 심한 심장질환이 항시 그를 위협하고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인생이 다 가더라도 한점의 리도 없는 교강종을 확정해내기전에는 절대로 어버이수령님께 보고드릴념을 하지 않을것을 안다. 그것을 나는 믿고도 남음이 있다.

석양노을이 빨갭게 퍼져오른 서녘하늘을 마주하고 두사람은 천천히 멀어져갔다. 언제나 석양노을이 저처럼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황홀했던가. 거대한 붉은 기폭이 펼쳐진듯싶은 석양노을, 금시 장중한 혁명가요의 선율이 터져나올것 같은 석양노을... 끝없이 승업하고 깨끗하고 강렬한 충동이 나의 가슴 한복판을 세차게 흔들며 물밀듯 차올랐다.

썰늘하게 빈 사무실에 돌아온 나는 꼭 무엇인가 잊은듯싶은 상실감에 속이 허전했다. 한동안 애꾸은 담배만 빼금빼금 태우는데 책상위의 전화종이 따르릉 울렸다. 나는 실무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뜻밖에도 반가운 전화였다. 신훈려행을 떠난 그 《천리마》호의 운전수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걸어온 시외전화였다.

《책임기사동지가 찾으셨다는데...》

《됐소, 나한테 얘기해도 되오.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주오.》

나는 덤벼치며 이발이 떨어져나간 원추소치차에 대해서 아는것 말하고 대답을 기다렸다. 그 대답에 운명적인 문제가 달려있는것처럼 초조와 불안으로 가슴이 떨렸다.

《뭐 다르게 없습니다. 그때 치차와 베아링이 나갔지요. 축도 갈리고.》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의 기운이 방바닥으로 풀썩 잦아내리는것 같았다.

《그런데 왜 그러니까?》

《...》

나는 대답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여보시오!》

《듣고있소.》

《그날 사실 베아링이 파손되면서 치차이발이 부하를 받아...》

《뭐요?!》

나는 온몸의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것 같았다.

《그런데 왜 그 사실을 〈차력부〉에 적지 않았소?》

《사실 베아링예비가 있어서...》

《여하튼 됐소. 고맙소. 신훈려행을 축복하오!》

나는 숨이 차게 고향을 지르고 송수화기를 놓았다.

전화를 끝내고나니 이마에서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어지간히 긴장해있었던것이다. 가슴이 활랑

거리였다. 저절로 안도의 숨이 나갔다. 장연구사도 그렇고 책임기사도 그렇고 나 또한 간절하게 기대하던바대로 원추소치차파손원인이 명백히 규명된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모두가 행여 기대한 일이 그대로 된것이 정녕 요행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량심적인 한 과학자의 25 년간의 고행이 보상된 치차가 아무렴 그렇게 허술히 파손될가 부냐 하는 눈물겨운 감개가 그들먹히 가슴에 차올랐다.

(아, 드디어 어버이수령님께 주체강종발명에 대해서 기쁨의 보고를 올릴수 있게 되었구나!)

나는 문을 차고 달려나갔다.

아직도 서견하늘가 한귀통이에 시퍼렇게 퍼지는 어슬막에 도전하여 석양노을이 빨강게 불타고있었다. 나는 주먹을 그러쥐고 달려왔다. 이 세상 끝까지라도 그냥 달려갈것 같았다.

저 멀리 두사람의 모습이 점으로 잡혀들었다. 그들의 모습을 띄여보자 부지중 울컥 눈물이 북받쳤다.

사랑하노라 금지와 맹세로

김국용

아니더라 그 누가 선사한것이
내 마음같이 맑고 희망같이 끝없는
조국의 저 푸른 하늘
이 아침 귀여운 아기가 손저어 바래주는
해빛 넘치는 높다란 창문은

아니더라 쉽게 차려진것이
바라만봐도 금지로 가슴벅찬
은빛 철탑이 숲을 이룬 대화학기지
가벼운 바람결에도 그윽한 향기 풍겨주는
풍요한 들 한껏 익은 과일동산

얼음을 깨물며 투사들 헤쳐 넘어온
그 설령길에서 열려진것 아니냐
내 행복 넘쳐 걸어가는 시원한 길
격전의 언덕을 적신 병사의 피가 배여
길가의 아름다운 꽃들 저렇듯 붉은것 아닌가

더없이 고결한 땀값이더라
허리띠 졸라매고
재더미 헤쳐 찾아낸
한장한장의 벽돌을 쌓아
가꾸어 꽃피운 락원의 강산

아, 둘러봐도 만져보아도
송림이 우거진 저 산밭이며
길가의 포석 하나하나가
그리도 소중해 허술히 대하지 못하는
내 목숨같이 귀중한 모든것

피로 찾고 땀으로 가꾼
그 값비싼 대가의 크기를 알기에
제것이면 다 좋고
누구든 그것을 다치려들면
성난 사자가 되는것 아닌가

길가에 피어난 한떨기 꽃말에
이름없는 영웅의 피가 스며들음을 잊고
누리는 행복에 투정질할 때면
그리도 분해 눈물을 흘리며
귀한 자식의 뺨도 치는것 아닌가

누구도 용서할수 없노라
우리 수령님 만난신고 이기시며
찾아주시고
우리의 지도자동지 가꾸어가시는
이 나라의 풀 한대라도 욕되게 한다면

피로 땀으로 가꾸고 꽃피운 이 모든것이
나의 존엄 나의 행복 나의 미래이기에
사나운 폭풍이 휘몰아쳐와도
버릴수 없노라 내가 창조한것이라면
그것이 작은 나사못 하나라도

아 사랑하노라 온 냇을 바쳐
어버이수령님과 지도자동지
베푸신 그 은정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락원의 강산에 내 로동을 바친 권리로
사랑하노라 금지와 맹세로

우리 군대, 우리 인민

김대성

나는 얼마전 평양-희천사이 고속도로건설장전 구간에서 제일 먼저 로반성토작업을 끝내고 당중앙위원회 감사를 받았다는 인민군구분대를 찾았었다. 나는 일숨씨에서 소문이 난것으로 보아 이 려단은 서해갑문을 일떠세웠거나 송원언제를 쌓아올린 전적있는 구분대일것이라 짐작했다. 허나 정작 려단장을 만나 이야기해보니 사정은 달랐다.

그들은 몇달전까지만 해도 손에 총을 잡고서 조국의 방선을 지키던 병사들이었던것이다. 전호가를 떠나서 곧장 여기 고속도로도로건설장으로 달려온 그들에게 한대의 굴착기도 불도젤도 없었다고 한다. 있다면 등에 지고온 배낭뿐인데 건설전투를 시작하지 불과 몇달어간에 몇십만립방의 토량을 쌓아올리고 수천립방의 콘크리트타입물로 다리기둥과 암거를 비롯한 구조물들을 일떠세웠다니 기적이라 아니할수 없었다. 이거야말로 맨손으로 산을 하나 떠옮긴셈이다.

내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자 려단장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사실말이지 이곳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이처럼 빨리 로반성토공사를 앞당겨 끝내지 못했을겁니다.》

려단장은 젊은 병사들에게 산을 떠옮길 장수힘을 안겨준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차근차근 설명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는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 나온 인민의 군대입니다. 인민군인들은 인민을 떠나서는 살수 없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는 나를 흥분케 했다. 하긴 어디서나 들어오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지만 군인들로부터 직접 듣고보니 그들을 만나고싶은 충동이 불같이 일어났다.

전투장으로 가려고 지휘부를 나서던 려단장이 반색을 했다.

《아, 마침 저기 샘물집어머니가 찾아왔군요. 어머니부터 만나보십시오.》

려단장이 가리키는쪽을 바라보니 나이 지숙한 한 녀인이 방금 뚫여가지고 나온듯싶은 김이 문문 피여오르는 더운물을 병사들에게 한고뿌씩 부어주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수고를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건넸는데 그 녀인은 자신의 수고에는 아랑곳없이 그저 입을 떼자마자 병사들이

일을 본때나게 제껴낸다는 칭찬뿐이였다.

《우리 막내포래의 젊은 병사들이 일하는걸 보면 모두들 옛말에 나오는 장수같아요. 해종일 땀을 흘리며 기운을 뽑고서도 지칠줄을 모르지요. 정말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요.》

그의 말에는 다심한 어머니의 진정이 어려있었다.

혹시 군대에 나간 아들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아들 삼형제가 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국보위초소에 서있다고 자랑스레 대답했다. 어제날 병사의 안해였고 오늘은 세 병사의 어머니로 된 이 녀인의 긍지야말로 대단한것이였다.

《만이는 전연초소를 지키는 군관이구요, 둘째는 공병부대 분대장인데 평양시 통일거리 건설장에서 일한다우. 막내는 해병이구요. 참 우리 둘째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곳에서도 지원사업이 대단하다더군요. 전국각지에서 술한 사람들이 지원물자를 가지고와서 고무해주는바람에 집생각 부모생각도 다 잊어버렸다나요. 호호...》

《섭섭하겠군요.》

《원 섭섭하긴요?》

녀인은 주위에 둘러선 병사들을 정겹게 돌아보며 말했다.

《여기두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술한 이 아들이 있지 않나요.》

녀인은 소박하게 자기의 진심을 토로했다.

곁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려단장이 웃으며 한마디 했다.

《허, 종시 자기 자라는 한마디도 안하시는군.》

어머니는 려단이 마을에 주둔한 첫날부터 비오면 비울세라 눈내리면 눈내릴세라 그들의 생활을 보살피었고 료리솜씨 서툰 병사들을 녀려하여 김치를 담그고 두부도 앗았으며 콩나물도 길러주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만아들 잔치에 쓰려고 잘 길러두었던 돼지까지도 잡아 그들의 식탁우에 올려놓았다 한다. 그러니 어찌 우리 병사들이 어머니라 부르며 존경하지 않겠는가.

샘물집어머니는 웅색하여 몸둘바를 몰라했다.

《아유, 려단장동진 별말씀을 다 하시는군요. 군대를 돕는거야 인민이 응당 해야 할 일인걸요.》

나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후터워올랐다.

군대를 돕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는 그 마음, 이런 인민의 사랑을 받고있는 군대이기에 용솟음치는 장수힘으로 조국보위초소도 지키고 중요대상건설도 말아 척척 해제끼는것이 아닌가.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다 바치도록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교양해오시였다. 항일의 그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았기에 불구름 타래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피흘리며 하나밖에 없는 청춘을 바쳐 싸웠고 인민들은 군대를 도와 탄약상자와 밥함지를 이고지고 불비 쏟아지는 최전방고지까지 나가 병사들과 생사운명을 함께 한것이다.

세월은 흘러 포연은 사라졌어도 우리 인민들은 고이 길러 자래운 금옥같은 아들딸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우고 우리 군대를 물심량면으로 적극 원호하는것을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있다. 이런 영원한 사랑, 영원한 뉴대속에서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도 우리가 맡고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맡는다는 공지와 자각을 안고 병사의 의무를 다해가는것이다.

하기에 조국땅 그 어디 가나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밑에 용기백배하여 나가는 군인들을 찾아볼수 있는것이라.

그래서 우리 군대의 이름도 다름아닌 인민군대인것이 아닌가.

군민이 하나로 된 이런 군대, 이런 인민과 감히 맞설 침략자 어디 있으랴. 또 이런 군대, 이런 인민이 못해낼 일 그 무엇이라.

나의 이 생각을 증명이나 하듯 건설장의 우렁찬 동음소리와 지원자들인듯싶은 처녀들이 부르는 《오는 정 가는 정》의 노래소리가 하나의 메아리되어 봄하늘가로 멀리멀리 울려 퍼지고있었다.

영예군인의 노래

황승명

노래의 선율만이 아니구나
춤가락의 물동만이 아니구나
이 가슴에 안겨주는것은

노래를 부르다니
춤을 추다니
불타는 강하와
돌격의 언덕에서
상치입은 그대들을
먼 후방병원으로 이송하며
돌아서서 눈굽을 훔치던 우리가 아니냐

까부서야 할
원썩의 화점이 앞에 있다고
기어이 가 달아야 할
남해가 앞에 있다고
부촉이는 손길을 뿌리치며
틀어진 수류탄을 놓지 않던 그대들

승리한 이 땅우에
꽃들도 다투어 피어나
그 위훈을 노래하고
어서 오라 반기며
료양소와 보양소들이 문을 열었건만
한팔 한다리로 거연히
영예군인공장의 기대앞에 선 그들

남들이 레사롭게 밟고 가는 흙도

피로 지킨 땅이기에
노래 없이는 밟을수 없고
아이들의 능금불에 피어나는 웃음도
목숨으로 지켜낸
그처럼 소중한 미래이기에
불편한 몸으로 놀이감을 만들며
부르고 부르던 노래

흥겨움만을 주자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기쁨만을 주자고 추는 춤이 아니다
온몸이 그대로 불덩어리가 되어
전우들을 최후결전으로 부르던
그날의 그 웨침이
지금 저 무대우에 메아리치누나

백번 쓰러진다 해도
다시 또다시 일어나 부를 저 노래
화선병사의 자세로 영원히 부르는
투쟁의 노래
창조의 노래
행복의 노래

어제도 오늘도
위훈과 위훈을 안고
꽃을 계속 피우는 값높은 삶의 노래속에
이 나라 전사들의 의리의 숨결이
뜨겁게 흐르고있어라

건설자들속에서

주성준

신입공 윤두남은 초조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털어 버릴수가 없었다. 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장 한가운데에 자리잡고있는 조립작업반에 배치되어온 첫날부터 그는 어느 반원들과 허물없이 섞들려 일하려고 무척 애를 썼고 무엇인가 남들보다 두드러진 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그의 행동은 균형이 맞지 않는 걸음새처럼 부자연스럽기만 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웅웅-주변의 철구조물들이 둔한 음향을 내고 가설침실이 움썰움썰했다. 그러나 반원들은 자리에 눕자마자 큰산이라도 떠옮긴듯 코바람을 불며 곧하게 자고있었다.

두남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용접불빛이 평긋거리리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용접호광이 타오를 때마다 환히 드러났다가는 가뭇없이 사라지는 형상은 더욱 지못게 낮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는듯하였다.

낮에 두남은 옥금이와 함께 기중기정비작업을 했다. 옥금은 일욕심이 있는 활달한 처녀였다.생김새가 별로 뛰여난데는 없지만 탄력있는 몸가짐과 건강미 넘치는 윤기흐르는 밝은 얼굴이 그 모든것을 대신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처녀는 아까부터 자주 일손을 멈추고 허공을 눈주어 바라보곤했다. 그리고는 소리없이 한숨을 내쉬곤했다. 두남은 옥금의 마음을 알고있었다. 가늘게 쪼프린 그의 쌍견눈은 한창 피어나는 처녀들이 흔히 그러보는 몽롱하고 아름다운 그런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기중기의 팔이 짧아서 조립공들의 요구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것때문에 안타까와하고있었다. 그것때문에 아름다운 그의 눈에 눈물이 가랑가랑 맺힐것만 같았다.

두남은 옥금이를 기쁘게 해주고싶었다. 얼핏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숨김없이 터놓았다.

《유압식기중기를 받아다 쓰면 되지 않을까?》

《하긴 그래요.》

옥금은 수긍해나섰다.

《그렇지만 작업반에선 누구도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체면이 깎이는것같아서,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시끄러워서 그러는가?

기중기를 개조한다고 저녁마다 모여서 의논을 거

듭하지만 그게 언제 되겠는가. 뻔해, 그들도 조립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것때문에 속들을 썩이고있어.

두남은 지금이야말로 자기가 작업반을 위하여 한몫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는 일손을 놓고 단숨에 현장지령실로 달려갔다.

너렁청한 지령실에서는 얼굴이 길쭉한 지령장이 전화기를 들고 어느 직장과 불도젤을 준다 못준다 언성을 높여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지령장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문에 찬 눈길로 문가에 서있는 두남을 쳐다보았다. 두남은 한결음 앞으로 나서며 안타까운 어조로 말했다.

《우리 조립작업반엔 유압식기중기가 있어야겠습시다...》

《동문 누구요? 신입공? 허허. 피짤데... 알만하오. 작업반장을 얼핏 보내주오. 해결해줘야지.》

지령장은 여간만 사리에 밝은 사람이 아니었다. 두남은 그달음에 곧두박질하듯 작업장으로 달려와 재호반장에게 말했다.

《반장동지...》

성급하게 뇌이는 두남의 말을 주의깊게 새겨들은 반장은 《누가 동무보고 그런 중뿔난짓을 하라고 했소?》 하고 엄하게 꾸짖었다. 그리고는 그의 대꾸도 듣지 않고 뒤말을 이었다.

《가서 제 말은 일이나 하라구.》

책 돌아선 반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씨엉씨엉 걸어갔다. 그가 사라진 작업장 저쪽에서는 함마소리, 고함소리가 더욱 거칠게 울리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녁작업총화때 재호반장은 두남을 질책하는것이 아니라 옥금을 일취세워놓고 맵싸게 꾸짖는것이였다.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있을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우리가 그 기중기를 한두번 얻어다 쓰다구 이공사가 끝나는가. 어떻게 매번 주시오, 주시오 하겠나. 그걸 얻어다 쓸 생각을 하는건 기중기를 개조하자구 아글타글하는 우리에게 물러걸음 하라구하는 거나 뭐이 다르냐.》

입을 꼭 다문 옥금은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남은 낮이 확 달아올라 어찌할바를 몰랐다. 어찌다 잘해보자고 한노릇이 작

업반장을 이렇게까지 노엽힐줄은 미처 몰랐다. 게다가 잘못을 저지른 그를 꾸짖는게 아니라 아무죄도 없는 옥금을 되게 채찍질 하는걸 보고야 어찌 가만히 있을수 있겠는가.

두남이 움츠름 몸을 일으키자 반장은 더욱 미간을 찌프리며 그를 눌러앉히고는 갈린 목소리로 옥금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건 네가 아직두 반원들의 진정을 리해하지 못하고있기때문이야. 그까짓 설비하나 끌어오구말구 하는것때문이라면 이렇게까지 성낼 필요가 없어.》

《여보게 반장, 그만하게나.》

키 큰 용접공아바이가 한마디해서야 반장은 말을 그쳤다.

결국 작업총화는 그쯤하고 그쳤지만 두남은 무언의 눈길들이 자기를 못마땅하게 지켜보는듯한 속박감에서 벗어날수 없었던것이다...

방안에서는 코고는 소리들이 차츰 높아갔다. 한동안 울적하고 답답한 가슴을 안고 뒤척이던 두남이도 그 소리를 마치 자장가소리처럼 들으며 술코이 잠들어버렸다.

얼마나 잤는지... 그는 잠결에 무슨 말소리들이 들리는듯하여 몽롱하던 정신이 긴장해짐을 느꼈다.

순간 두남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번쩍 떴다. 방안은 여전히 캄캄했다. 코고는 소리마저 없이 너무나 조용한것이 이상하여 두남은 급히 일어나 불을 켰다. 그는 저으기 놀랐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주위에 누웠던 반원들의 자리는 모두 비어있고 다만 자기와 전등불에 비쳐진 그림자만이 방바닥에 외롭게 서있는것이였다.

그런데 옆의 휴계실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두남은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재호반장과 조립조장이였다. 조립조장이 낡은 도면들과 노트들을 펴놓고 새로 그린 도면에 수자들을 써넣고있었다.

완성단계에 이른 도면에는 기중기 2 단팔을 유압식이 아니라 권양장치를 도입해서 뽑아올리게 만든 것이였다.

두남은 놀랐다. 착상이 이렇게까지 기발할줄은 몰랐다. 두남은 그런 귀중한 생각을 티워준 책상위에 무독히 쌓인 도면들과 책들을 덮을 잃고 보았다. 또한 벽에 걸린 긴 액틀속에 끼워넣은 무슨 발명권증서며 창의고안증들을 처음과는 달리 새로운 눈

길로 바라보았다.

그런 두남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던 재호반장이 아쉬운 소리로 《사람두... 건설일을 처음 시작할 땐 크게 하는일 없어도 피곤한데 좀 폭 자지않구. 쯔쯔...》 하고 말했다.

두남은 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면목이 없어 그저 묵묵히 밖으로 나오고말았다.

이튿날아침 재호반장은 작업분공때 조립공들에게는 어제 하던 작업대상들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동시에 미끄럼식기중기팔 본체제작과 부분품 보장 등을 함께 밀고나가 새 기중기팔을 래일까지는 무조건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두남이와 옥금이한테는 작업반휴계실 회가루칠하는 과업을 주었다.

두남은 그 일만은 죽어두 못하겠다면서 오늘은 반장과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의 왕청같은 제기에 재호반장의 철색얼굴이 맹랑한 웃음과 함께 풀자루처럼 울렁해지자 반원들이 한바탕 웃어댔다.

작업지시가 끝나자 두남은 재호반장과 함께 가스 압축기들이 조립되는 현장으로 갔다.

이미 한대의 압축기가 조립되었는데 집채만큼 컸다. 시간당 가스를 수만립방메터의 높은 압력으로 배출하는 특대형압축기인것이다.

조립공들이 그옆에서 또 한대의 압축기를 조립하고있었다.

재호반장은 압축기축동심을 맞추고 지지축등을 놓는 등 최대의 기술적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는 조립공들의 조립과정을 구체적으로 검열했다. 시키기 위해 애쓰는 조립공들의 조립과정을 구체적으로 검열했다.

이상이 없자 그는 또 다른 작업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는 뒤따르는 두남에게 금지높이 말했다.

《저 압축기들은 세계적으로 다섯손가락안에 드는 나라들밖에 만들지 못하네. 조립하는것도 그 못지 않게 힘들지... 시운전할 땐 술한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그래 스위치를 누르자면 손이 좀 떨린다네. 그러나 단번에 웅-하고 돌아가면 그 순간의 기쁨이란 이 세상에서 자기만큼 큰일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바로 조립공이란 그런 멋에 해먹는거네.》

두남이 역시 그런 순간을 당하듯 가슴이 후더워움을 느꼈다.

그들이 가스저장탱크뒤로 돌아가는데 어디서

《여, 재호반장… 재호반장》 하고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본 재호반장이 《아니 운전수가 어떻게!…》 하고 반가와했다.

어깨가 약간 앞으로 굽은 나이지숙한 사람이 다가오더니만 손에 든 새끼손가락만큼 가는 도관을 보여주며 말했다.

《자동차취발유도관이야. 넌장, 모가지에 약간 금이 가서 산소용접을 하자구…》

《아니 거긴 산소용접이 없나?》

재호반장이 의아해하자 운전수가 정겨운 어조로 말하며 무척 다정한 눈길을 주었다.

《핑계핑계 도라지 캐러 간다구 용접도 할겸 옛정도 나눌겸. 하하…》

《하하…》

그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다. 그 웃음은 마치 아이들의 얼굴에 비낀 것처럼 너무나 천진스러워 두남은 저도 모르게 따라웃었다. 그들은 가까운 산소용접장으로 갔다. 재호반장이 산소용접기로 터진 부분을 용접하기 시작했다.

용접물을 고기비늘처럼 섬세하게 올리는 그의 기묘한 재간을 지켜보던 운전수가 감탄조로 말했다.

《야! 아직 그 솜씨가 여전하구만… 거 남흥화학 건설때 특수용접으로 외국친구들을 아예 납작하게 만들던 생각이 나나?》

《허허… 그 일을 그렇게 쉽게 잊어먹겠나.》

그는 잠간사이에 연유관을 깨끗이 용접했다. 그것을 운전사에게 넘겨준 재호반장은 얼굴과 눈가에 추억의 빛을 안개발처럼 피워올리며 한껏 긍지높은 어조로 말했다.

《정말 그때 기계들이 대단했지. 지금도 내 눈앞엔 80미터 굴뚝을 통채로 일떠세우던 광경이 선하네… 그걸 세우자면 한달이 걸려야 한다던 외국친구들이 도저히 믿을수 없어 점심도 안먹고 나왔다가 아찔하게 세워진 굴뚝을 보고 얼마나 놀라와했었나… 연공반장 세웅령감이 났을 땀고 서있는 그 친구들앞에서 따웅-하고 범소리를 내니 킁킁다리한 친구는 그만 기겁해서 엉덩방아까지 찢지 않았다. 하하…》

《하하-》

그들은 당장 그런 모습을 보듯 무릎을 치며 웃어댔다.

운전사가 겨우 웃음을 참고 그역시 같은 심정으로 가슴이 들먹해서 말했다.

《그때만 해두 세웅령감이 건설장에서 펄펄 날았지. 산악같은 그 배짱이 부럽더니… 그런데 이 근랜 그 령감이 통 보이지 않더군!》

《두달전에 직장에서 차려주는 60 뿔상을 반구 집으로 들어갔네… 그때 령감이 60 뿔상을 마주하구 목이 꺾 메서 <내가 정말 늙긴 늙었다말인가. 자네들을 버리고 집에 들어가선 뭘하겠나, 난 못가겠어!…> 하면서 직장장이구 비서구 막 끌어안구 눈물을 흘려서 모여앉았던 사람들이 다 울었다질 않나!…>

《그렇게 된걸 난 여직 모르고있었군!》

운전사는 들끓던 그때의 나날들이며 또한 늙은 연공을 못내 그리워하듯 먼 공간에 오래도록 눈길을 주었다. 어느새 한낮이 되었다. 작업장들을 한바퀴 돌아본 재호반장과 두남은 읊에 있는 기계수리공장을 향해 떠났다.

미끄럼식기중기팔제작에 들어갈 2 단활차바퀴를 가공해와야 했기때문이었다.

두남이가 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장에 온 며칠어간에 재호반장과 반원들한테서 받은 인상은 그야말로 컸다.

기중기정비작업때 옥금이가 뜨겁게 하던 말이 여전히 귀가에 쟁쟁했다.

《졸업후 나는 한생을 건설자로 살아오는 아버지를 도우며 것처럼 위훈의 길을 걸으리라 결심하고 아버지한테 소원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참 생각을 잘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로 달려왔구 기중기운전공이 됐어요.》

두남은 옆에서 풍요한 논벌과 멀리 건설장을 뒤돌아보며 흐뭇해서 걷는 재호반장에게 그때 옥금이한테서 받은 인상을 감동에 젖어 말했다.

《옥금동문 기중기관리를 얼마나 알뜰하게 하는지… 또 예비부속품두 공구두 어디서 그렇게 모아들여 정말 없는게 없더군요!》

그 말을 듣던 재호반장이 혼연한 어조로 말했다.

《밥먹고 맨날 붙어사는 기계인데 그만큼도 못해놓겠나.》

《옥금동무두 기특하지만 그가 건설자로 되도록 고무해주고 힘을 준 그의 아버지가 더 존경이 갑니다.》

《허허… 건설장엔 그런 사람이 옥금이 아버지만이 아니라 수도룩하다네.》

두남은 말할 재미가 없어 입을 다물어버렸다. 반장이 실지 행동으로는 반원들을 뜨겁게 보살피면서

도 남을 칭찬하는데는 이상할 정도로 린색한 사람이 아닌가?...

기계공장에 도착한 그들은 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에 필요한 부속이라고 온갖 성의를 다해주는 사람들의 진정에 가슴 후터워졌다.

그들이 가공한 활차를 가지고 건설장까지 도착했을 때에는 동녘하늘이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작업반앞 강철구조물조립장은 여느때없이 불빛이 환했다. 두개의 새 기증기팔이 만들어져 길게 놓인것이 먼발치에서도 알렸다.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 용접불광을 날리고 수동연마기로 앵앵소리를 내며 미끄럼판을 연마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작업반장이 왔다!》

누군가 조립장으로 씨엥씨엥 들어서는 재호반장과 두남을 먼저 알아보고 소리쳤다. 날과람있게 생긴 조립조장이었다.

사람들이 달려와 그들의 어깨에서 활차들을 받아 내리며 귀한것이 왔다고 환성을 올렸다.

재호반장이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두남동무와 같이 안갔더라면 어림없을번했네. 소재더미에서 기동같이 굵은 활차소재를 꺼내느라 구 젓먹은 힘까지 다 썼다니까. 예이...》

그 말에 작업반원들이 저마다 두남의 손을 흔들며 더없이 기뻐했다.

《정말 수고했수다. 이번 기술혁신전투엔 두남동무가 크게 한몫 해주어서 의의가 더 큼니다.》

두남은 흥성이는 작업장과 또 저마다 손을 뜨겁게 잡아주는바람에 자신의 피로는 깡그리 잊어먹고 말았다. 기운이 솟고 마음은 즐겁기만 했다.

지난날 농기구공장에서 자그마한 용선로 하나 개조할 때도 작업반사람들이 작업반힘으로는 한다못한다 말이 많아 직장까지 달라붙어 밀고나갔지만 무엇이 없다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 맥은 맥대로 뽕고 겨우 제날자에 맞추던 생각이 났다.

그러나 이곳 건설자들은 누가 뭐라든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뿐아니라 미끄럼식기증기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지혜를 깡그리 바치며 완강히 밀고나가는 그야말로 마음이 하나같은 억센 사람들인것이다.

오후에 두남은 옥금리와 같이 지원물자를 타러 건설장후방부로 갔다. 날이 갈수록 건설장으로는 많은 지원물자들이 왔는데 식료품 같은것은 권리상 작업반들에서 직접 타가게 했다.

그들은 당파류며 실과 그리고 맥주병들을 배낭들

에 채워넣고 또 보자기로 싸기도 했다. 배낭들은 두남이가 젖고 옥금은 보자기를 랑손에 갈라들었다.

그런데 올 때와는 달리 옥금은 이번에는 강기슭으로 가자고 했다. 두남이도 싫지 않았다.

그들은 강기슭에 들어섰다. 시원한 강바람이 마주 불었다. 연연한 풀덤불이 발길에 걸채이기도 하고 잔디밭이 폭신평신히 주단을 밟듯 부드러운 촉감을 주었다. 인적기에 놀란 풀메뚜기들이 툭툭 튀어나와 사방으로 달아났고 옷설에 올라붙기도 했다.

《시운전을 끝내구서야 뭔가 있어야지, 그것도 실은 시운전의 한개 조항이야.》

미끄럼식기증기시운전을 앞두고 옥금리와 자기를 지원물자 타러 보내면서 재호반장이 즐겁게 하던 말과 웃고떠들던 반원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두남이 역시 이 시간이 더없이 즐겁기만 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두가 부자연스럽기만 하던 시간은 지나가고 오늘은 숨결도 걸음도 생각도 것처럼 자연스럽고 즐겁고 지어 환희롭기만 하다.

함께 잠을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아니 자기가 일을 더 하겠다고 뛰면 뿔수록 반원들의 생각과 더 거리가 멀어서 얼마나 괴로운 나날을 보냈던가. 그래서 애매한 옥금이까지 옥먹게 만든것이였다. 그런데 이제는 반원들과 호흡이 맞았고 옥금리와도 이처럼 다정해진것이다.

옥금리는 연보라빛 바탕에 빨간 줄무늬가 돋은 샤쓰를 입었다. 그래서 더 생기발랄하고 명랑해보였다. 그도 한껏 즐거운듯 걸음걸이가 거의 룰동적이다싶이 했다.

그는 환희넘친 눈길로 저멀리 뽕안 운무속으로 웅건히 안겨오는 회진로들과 산같은 건물들이 꼭 들어찬 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장을 궁지높이 바라보다 두남에게 의미있게 물었다.

《두남동무, 참 좋지요?...》

두남은 짐짓 모른체했다.

《종긴 뭐가 좋아?...》

《호호... 어찌면 그렇게두 무감정이세요... 재미없군요.》

《흥!...》

처음 건설장에 올 때처럼 자기를 얹잡아본다고 두남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위엄있게 물었다.

《옥금동문 <따옹아바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따옹아바이> 라구요?!...》

옥금은 어디서 그 말을 들은것 같으면서도 까리

까리하여 잠시 눈을 깜박이며 생각을 더듬었다.

그 모습을 보고 멍랑해하던 두남이가 핀잔조로 말했다.

《답답하군... 그가 바로 남흥에서 80미터굴뚝을 단번에 말뚝처럼 박아놓아 외국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우리 사업소의 오랜 연공아바이란 말이야. 그 아바이가 녀을 잃고 서있는 외국친구들한테 〈따웅〉하고 소리쳐 한 친구를 엉덩방아까지 찢게 했거든... 그리구 우리 반장이 특수용접으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것두 모르지?...》

《호호...》

옥금은 대답대신 입을 싸쥐고 웃기만 했다.

《웃긴, 터진 팔자루처럼... 그런것두 모르면서 설비조립사업소사람이라구 큰소리칠 땐 쯤쯤... 이제 당장 기증기에서 내려 밭통이나 전문운반하는 식모노릇이나 하라구.》

《동무는 뭐예요.》

《튀긴튀야, 당당한 구대원이지. 하하...》

옥금은 두남의 잔등을 때려주려다가 배낭때문에 어찌지 못했다. 그래도 마음은 그저 즐겁기만 한듯 눈길을 흰 백사장이며 눈이 내린듯 하얗게 꽃이 피어 한벌 깔린 토끼풀판이며 파란 잔디가 넓게 펼쳐진 푸른 들 한끝에 또 풍만한 강물우에도 주었다. 옥금은 끝내 이 강변을 그저 지나치기 아쉬운듯 좀 쉬어가자고 했다.

보자기를 내려놓은 옥금은 물가로 뛰어갔다. 그는 맑고 깨끗한 물에 손을 씻기도 하고 하늘높이 뿌려울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물은 수백방울의 구슬알이 되어 물가에 와르르 떨어졌다.

처녀와 총각은 서둘러 다시 길을 떠났다. 건설장에 들어서던 그들은 너무나 벅찬 광경을 목격했다.

며칠전부터 쌍보주기증기밑에서 확대조립하던 소성로가 일떠서고있는것이였다. 번쩍이는 거대한 로가 점점 사선으로 세워질수록 마치도 건설장을 통채로 들어올리는듯한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여서 두남은 숨이 다 꺾 막힐 지경이였다. 확성기로 지휘하는 구령소리가 건설장의 일체 소음이 정지된 공간속으로 위엄있게 울려갔다.

달리던 자동차들도 탑우에 오른 용접공들과 조립공들도 큰 건물안에서 작업하던 사람들도 저마다 창들에 얼굴을 내밀고, 아니 온 건설장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거의 동시에 작업반생각이 떠올라 무거운 짐을 지고 뛰다싶이 했다.

휴게실에 짐을 내려놓은 그들이 작업장에 달려가니 새로 제작한 기증기팔이 굴착기에 조립되어있었다.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말 한마디 없이 지어 다름직한 사람처럼 묵묵히 앉아있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벌써부터 실패라는 가슴저린 처참한 광경을 예견해서 옥죄여드는 마음을 애써 달래기 위해 그런것인가...

도저히 가늠할수 없는 광경이여서 두남은 얼머름했다.

옥금이가 나타나자 재호반장이 얼른 마주오며 근엄한 어조로 물었다.

《옥금아, 너 이 기증기시운전을 맡아할 마음의 준비가 돼있느냐?》

《아이, 제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됐다. 나는 네가 그렇게 각오했으리라 믿었다. 때문에 김동무가 운전하겠다고는걸 막았다.》

이때 앉아서 담배만 신경질적으로 빨던 청년이 재차 재호반장에게 안타까운 소리로 들이댔다.

《반장아바이, 다시 랭정히 따져보십시오. 아무래도 제가 옥금동무보다 낫습니다.》

《동무는 운전대를 놓은지가 오래돼서 안된다는데 왜 자꾸 말이 많소. 썩 물려서시오.》

비로소 두남은 시운전이 심상치 않다는것과 청년의 제기를 거절하는 재호반장의 뜨거운 마음을 알수 있었다.

한편 그자리에 기어이 옥금을 앉히려는데 대해 두남은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벌써 옥금은 계단을 힘있게 밟으며 기증기운전실로 올랐다. 그뒤로 신호기를 든 재호반장이 올라갔다.

드디어 시운전이 시작되였다. 고르로운 권양기의 동음과 함께 기증기 2단팔이 미끄러져 위로 뻗쳐올랐다. 무슨 신비한 요술처럼 2단팔이 계속 오르더니 높이가 40미터나 되는 천정꼭대기까지 꼭 닿는것이였다.

사람들이 환성을 울리며 어쩔줄 몰라했다. 두남이도 그들처럼 흥분되어 돌아갔다.

이제는 중량물을 달아올리는 시운전이다. 처음에는 강철보 한개를 끝까지 달아올렸다. 그다음에는 두개 그것도 별일 없었다. 이번에는 세개를 동시에 달아올리기로 했다. 그러면 석톤반의 중량이다.

윙윙-억세게 이바퀴를 물고 돌아가는 권양차차. 쉿쉿-쇠바줄에 짐이 실리는 아츠러운 소리... 긴장한 순간이다.

중량물이 땅에서 떨어지려는 순간 별안간 2 단팔에서 《똑!》 하는 무엇이 부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기중기팔이 뒤로 흠치고 차체가 앞뒤로 요동쳤다. 사람들은 놀라운 소리를 질렀다.

두남은 그 찰나에 거대한것이 앞으로 팡- 하고 자빠지는 무서운 환각을 느끼자 정신이 아찔해졌다.

재호반장이 날래게 기중기팔과 차체상태를 돌아봤다. 그가 다시 운전실로 오르더니만 옥금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재호반장이 아래입술을 옥문채 운전대를 짹 틀어 쥐고 앉아있는 옥금에게 다시 엄한 어조로 말했다.

《왜 아버지숙을 태우느냐. 어서 나오거라.》

《...》

《?!...》

두남은 놀랐다.

(아니 아버지라니?!... 아버지라니?!...)

잘못 들은 착각이 아닌가싶었다. 얼굴이 바위처럼 굳어진 재호반장, 빨갛게 충혈된 눈에 이슬이 가랑가랑해 있는 옥금이... 마주치는 그 눈길들에는 푸른 섬광같은것이 번쩍이는듯싶었다.

그것은 가장 뜨거운것과 가장 맹목한것이 세차게 교차되는 눈길이었다.

그런 눈길은 피를 주고받은 사람들만이 주고받을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의 눈길이 아니겠는가.

두남은 숨이 껍 막히는감을 느꼈다. 재호반장은 것처럼 사랑하고 것처럼 장하게 여기는 딸이어서 이 절정의 순간에 무엇인가 강하게 요구하는것이다.

옥금은 뜨거운 어조로 말했다.

《아버지는 항상 이런 순간엔 더 맞받아나가셨다고 하셨지요.》

《옳다 피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기중기를 세우느냐? 왜 마음이 한줌만 해서 기중기팔처럼 흔들리냐 말이다... 기중기가 물동을 든다고 생각지 말고 네 힘이 들어올린다고 생각하란 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센것이 바로 내 힘이란 배심을 왜 못가지냐... 아버지가 옆에 서있는데도 그렇게 자신심을 못가지겠느냐?...》

《아버지, 제가 그만 순간에... 이 딸을 용서해주세요. 제가 이자리를 피하면 저의 가슴에 무엇이 남겠어요. 아버지!...》

옥금은 한순간 마음이 흔들리던 자신을 열번 백번 뉘우치듯 아픈 소리로 말했다.

두남은 불덩어리같은 재호반장의 말을 어떻게 받아안을지 몰라 가슴만 세차게 울렁이었다.

바라볼수록 아아한 산악처럼 아름답게 안겨왔고 짧은 용암을 마주한듯 뜨겁기만 한 그였다.

순간 두남은 나는듯 옥금이가 있는 운전칸으로 뛰어올랐다. 기중기앞에서 재호반장이 빨간 신호기를 힘있게 흔들었다.

옥금은 온몸에 태동하는 거대한 힘으로 물동을 떠올리듯 운전대를 한눈금 한눈금 확신성있게 올려밀었다. 순간 땅에 붙었던 중량물이 떨어지면서 길다란 기중기팔이 탄력을 얻은 낚시대처럼 뒤로 흠칠했다.

중량물이 가랑가랑 힘겨워하는 치차소리와 함께 기중기팔끝까지 올라갔다. 드디어 옥금은 기중기최대만부하시운전을 끝낸것이다. 사람들이 환성을 올렸다.

《야! 이걸 대성공이다!... 유압식기중기보다 팔길이가 배반이나 더 길지 물동두 더 많이 들지... 이걸 대결작품이다.》

《자동차기중기공장에서 이걸 알면 기절초풍하겠다.》

《카리 1 호 만세... 하하...》

작업반원들이 경충경충 뛰기도 하고 열싸안고 돌아가기도 했다.

두남이와 옥금이가 운전칸에서 내려오자 작업반원들은 마치도 이 위력한 기중기를 이들이 만들어낸것처럼 저마다 손을 잡아흔들며 《수고했네, 수고했네...》 하고 뜨겁게 말했다.

그러나 재호반장만은 이 기중기를 만드는데 하등에 관계하지 않은 사람처럼 먼발치에 서서 쪽 뺄쳐오른 기중기팔만 이리 보고 저리 보며 서성거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두남은 마음이 불덩이를 안은듯 달아오르고 점차 안개발속에 묻히듯 재호반장이 뿌옇하게 보임을 느꼈다. 그는 주먹으로 눈굽을 뺨뺨 훔쳤다.

두남은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강가로 나왔다.

무수히 솟은 건물우에서 끝없이 터져내리는 불보라로 현란하게 빛나는 장쾌한 건설장야경이 그대로 강물우에 비졌다.

건설장의 밤은 더 거창하게 들끓는다.

두남은 이 며칠어간에 강하게 받아안은 재호반장과 옥금이 그리고 반원들의 심장에서 세차게 소용돌이치는 녀를 두고 다시금 뜨겁게 생각했다.

고향을 떠나 이곳 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장으로 달려올 때 얼마나 가슴을 들먹었던가. 거기 가면 무엇이나 큰일을 할수 있고 값있는 일을 해서 남

부끄럽지 않게 위훈의 창조자가 되리라고... 하지만 중요한것은 가슴속에 지니고있지 못하였다.

정녕 자기 힘만이 가장 강하다는 자신심을 안고 사는 사람만이 거대한 창조를 낳는 지혜를 꽃피울 수 있고 빛내일수 있으며 그럴 때라야 당앞에 시대앞에 충성할수 있다는것을 왜 심장에 새겨두고 살지 못했던가.

참으로 건설자들이야말로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진실로 아름다운 사람들인것이다. 그들의 심

장에는 창조자의 높은 긍지와 존엄과 가장 아름다운 인간미가 간직되어있다. 그것은 그 누구와 대비할수도 견줄수도 없는 가장 숭고하고 뜨겁고 열렬한것이다.

바로 그 숭고한 정신세계와 시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비상한 지혜에 의해 여기에 시대의 기념비가 일떠서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두남은 뜨겁게 달아오른 심장으로 부르짖었다.

《내 한생을 건설자로 살리라.》

건설장의 달

박 영

저녁노을빛에
물들인듯
빨간 머리수건 날리며
처녀야, 네 기증기에 오를 때면
사람들은 말을 하누나
달이 뜬다고

진달래꽃 피어웃는
운전실 창가에
고운 내 얼굴 비낄 때면
서둘러 일손을 잡누나, 건설자들은
달이 벌써 하늘가에
휘영청 떴다며

어제일만 같구나
네 처음 기증기에 오를적에
단발머리처녀 조각달이라며
어서빨리 크라던
하늘 나는 연공총각들의
그 익살스런 말을 들던 때가

집에서는 언니 손잡고
술 푸른 고향의 뒤동산에
달마중 하려 오르더니
빛도 밝은 달이 되어

눈아래 다정히 굽어보누나
산같은 소성로, 팽액탱크 일떠선
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장을

용접의 별빛 차흐르는
건설장의 밤하늘은
숫진 저 처녀의 사랑의 첫 세계런가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릴 그 소원 안고
낮을 이어 너는 빛을 뿌리누나
비와도 눈내려도 지지 않는 달이 되어

그 누가 말했더냐
처녀의 아름다움은
보름달에 비기는것이라고
언제부터 일러온것이더냐
행복의 꿈을 안겨주는 달이
정녕 아름다운 달일것이라고

아, 처녀야
건설장의 아름다움아
너를 보며 사람들
취했다 나무람 말아다오
만풍년의 꿈을 주는 네 아름다움에
취함도 정녕 좋은
건설장의 달도 좋은 밤이구나

가촌벌의 새 전설 외 1편

김진범

이상하다고
참말로 이상하다고
수령님 건설장에 찾아오신
그날에 있는 일이 이상하다고
건설자들모두가 속삭이는 이야기-

그날은 봄날도 아닌데
먼 산에 눈이 허연 초겨울인데
새벽부터 온 건설장이
뽕안 안개속에 묻히었다고

어찌나 안개가 짙었던지
금시 앞사람도 보이지 않고
팔을 휘저으면 팔쪽에 휘- 휘-
흰명주필처럼
안개가 묻어났다고

한데 늦은아침 그때
우리 수령님
소문없이 건설장에 오시고
오시여 그이 구내길에 척 나서시자
그 안개가 글썽
가뭇없이 가셔졌다고

오르는 무대의 장막처럼
하늘가로 걷히며 걷히며
온 건설장이 금강의 만물상처럼

번쩍이며 빛나며
그이앞에 빛을 뿌리었다고

수령님의 기쁨이 되고저
수령님의 행복이 되고저
하많은 건물들과 배관들, 기둥들이
마치도 발이 달린듯
앞다투며
그이앞에 제모습 자랑했다고

하자 그이 만시름 잊으신듯
기뻐 웃으시고
그이의 만족의 미소 빛발치니
건설장은 환상세계인양 아름다웠다고-

아, 수령님 다녀가신 그날부터
건설자들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설아닌 전설로
파도치는 이야기!...

어찌 그렇지 않으랴
우리 수령님은 세기의 위인이시거니
아마 그날도
하늘이 제먼저 우리 마음 알고
포근한 안개발로 깨끗이
건설장을 씻은것이리라
청신한 새 모습으로 단장시킨것이리라

봄날을 주고가셨네

어버이수령님 한번 뵈웠으면
우리 건설장에 한번 모시였으면
봄 여름 가을 없이 우리의 마음이야
언제나 이러하였건만은

잊지 못할 그날-
11월의 찬바람 헤치시며
우리 수령님
소문없이 건설장에 오시었을 때
모시는 마음마음 송구함에 젖었네

수령님을... 수령님을

아직도 완공 못한 공장구내
어설핀 건설장에 모시다니,
그이 꿈결에도 바라시는
카리비료, 알루미늄
그이께 기쁨으로 드릴수 없고

일떠서는 벽체
뻗어가는 배관들과
자라오르는 기둥들...
끝맺지 못한 일감들이 가득한
건설장구내길에 모시였으니-

무슨 말씀을 하실가?
어떻게 말씀하실가?
일군들도 송구한 마음 안고 따라서는데
건설장을 보시는 수령님 만면에 어리는것은
아, 뜻밖에 만족의 미소!
기쁨의 미소!

그 순간
소성로동체랴
미분탄장굴뚝이라
건설장 그 어디
하나의 작은 창문가에도
그 미소 빛발쳤네
그 기쁨 흘러넘쳤네

일을 많이 했다고
깨끗이 건설했다고
친히 자신의 존함으로 인사까지 보내실제
수천의 눈과 눈 가슴과 가슴들이 부딪치며
탄성...
탄성의 물결이 건설장에 파도쳤네

수령님 기뻐하셨다!
만족해하시였다!
그 순간
우리는 계절을 잊었네
너무나 가슴 후더워
겨울을 완전히 잊었었네

설레는 마음속엔
따사로운 그 미소 가득차고
높뛰는 심장속엔
더운 피가 우뢰처럼 소리치며 흘렀네

수령님께서 기뻐하시였다
만족해하시였다
오, 환희! 환희!...
11월에 봄날이 다시 찾아왔는가

아니였네 아니였네 그것은
인민에게 언제나 봄날만을
따사로운만을 안겨주시는
아버이수령님의 은혜론 사랑이었네
크나큰 은정이었네

우리는 기다리지 않았다

김희종

아슬한 철탑들을 수풀처럼 세워갈 때
추위는 돌처럼 몰탈을 얼귀도
우리는 기다리지 않았다
훈훈한 더운 날이 오기만

들이 넘쳐나게 새 설비들을 앓힐 때
너무나 없는것이 많았어도
우리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 어디서 부족들을 보내오기만

평탄한 곧은 길을 바래서
우리는 이 건설장에 오지 않았다
첩첩 모진 난관이 마주설 때마다
자욱자욱 심장에 새겨본것은
수령님 헤쳐오신 백두의 험산준령길

우리 수령님 백만 왜적을 무찌르시며
천고의 밀림속에 발구름소리 높이 올리실 때
총 한자루 보내주는 손길이 따로 있었던가
군량을 보태주는 보급로가 따로 있었던가

그렇게 바로 그렇게

우리 식으로 시작되고
우리 신념의 라침판으로 헤쳐온
조선혁명의 길이 아니었던가

자랑스럽다!
그 백두의 냇으로 안아올린
우리의 특대형원료분쇄기들이여
자력갱생의 위훈의 탑인양
하늘가에 빛을 뿌리는 광액교정탱크들이여

기다렸다면
오직 우리가 바라며 기다린것은
우리 힘 우리 기술을 믿으며
바쳐가는 충성의 땀방울이
더 커지는것이 아니었던가

기다렸다면
오직 우리가 바라며 기다린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이 거창한 대건설전경을
그리도 만족하여 보아주시길 그날이 아니었던가

온 조국땅을 거느리고
카리비료를 뿌려가는 거인의 걸음인양
우람한 위용으로 돌아가는 소성로야
너를 바라보면 너를 바라보면

가슴이 터지도록 웨치고싶구나
아, 우리 식
우리의 녀
그 모든 우리의것이어

사랑하는 나와 어머니

김 호

지금도 내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언제 한번 생각한적 없는 어머니
내 삶의 구석구석에
힘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는 어머니

철없던 그 시절에
어머니는 나에게 있어
밥투정질까지 너그러이 받아주는
소박한 농촌아낙네였고
땅을 가꿔 낱알을 키우는
부지런한 농사꾼이었다

내 어릴 땐 미처 몰랐구나
손이 닳도록
마른일 곳은일 가림없이
자식들의 뒤바라지를 해주며
고생을 락으로 삼으시던 어머니 심정을...

오직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만 사시는듯
나를 낳아 첫걸음마 익혀주던 때부터
백발에 등이 굽을 때까지
그 어느 하루도 빈날없이
사랑과 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주시었거니

말없는 어머니 사랑이 그리도 뜨겁고
속깊은 어머니 마음이 그리도 진정이고
남모르는 어머니 수고가 그리도 큰것임을
내 일찌기 깨쳤더라면
어머니 더 오래 장수했을까

어머니의 성품은 소박한것이였어라
소년시절을 마치고
초소로 떠나던 그날 아침
땅처럼 과묵하신 그 성품대로
가슴속에 품으신 하많은 말중에
한생의 소원을 다 담았던가

웅심깊이 하시던 그 한마디는
-당원이 되어 돌아오너라

아, 내 얼마나 존경어린 눈으로
난생처음 어머니를 우러러보았던가
한가정의 소박한 주부로만 알고있던,
땅을 다루는 근면한 농사꾼으로만 알고있던
내 어머니 가슴속 그 어디에
그런 큰뜻이 자리잡고있었던가

한뼉 속을 태우시면서도
사철 눈비에 젖으시면서도
이 아들을 손잡아
참되게 키우고싶은것이
어머니 간절한 소원임을
내 고향집 대문을 나서며 깨쳤나니
성스러운 복무의 날들에
들끓는 대건설의 해들에
어머니의 소원
어머니의 뜻으로
내 살며 일했기에
자식된 도리를 지킬수 있었던가

당원증을 품은 이 아들을
만시름 놓으시고
얼싸안아주시던 어머니
어머니는 생의 가장 큰 소원을 풀었어라
어머니는 이 세상 가장 큰 행복을 안았어라

아, 당이란 크나큰 어머니품에
나를 떠맡기느라
흘리고흘린 땀방울
모으면 호수가 되고
바치고바친 지성
쌓으면 큰 산을 이루리니
내곁에 없는 오늘도
그 사랑을 유산으로 넘겨주었기에
어머니는 내 삶과 함께 영원히 계시여라

건설장이 다 아는 처녀

황용국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장에서 일하는 처녀들은 하나같이 생기발랄하고 예쁘다. 대체로 몸매가 날씬하고 귀엽게 생겼다.

내가 찾은 처녀도 동그스름한 얼굴에 보조개를 파며 여간만 곱게 웃지 않았다. 이름은 박경심, 스물두살의 문형기중기운전공이다.

휴계실에 앉아 《로동신문》을 읽던 처녀는 상냥한 어조로 나직이 물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나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처녀는 귀뿌리를 붉히며 당황해했다.

《어마나, 전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취재를 하시겠으면 혁신자들을 만나지요 뭐.》

그는 읽던 신문을 말아쥐고 머리를 다소긋했다.

《정말입니다. 공연한 걸음을 하셨습니다.》

나는 널판자로 기다랗게 무는 책상앞에 나앉아 취재수첩을 펼쳤다.

《경심동무, 동무네 건설사업소에서는 종전의 방법대로 하면 반년이상 걸린다는 소성로동체조립을 18일동안에 끝내버렸소. 바로 이 기적의 중심에 문형기중기운전공인 경심동무가 서있는데 혁신자가 아니란 말이요? 동문 당당한 혁신자요. 그래서 온 건설장이 동무를 알고있고 나도 찾아왔소.》

나는 첫대면부터 단단히 조여뒀으나 경심이란 처녀역시 쉽사리 물리서려 하지 않았다.

《자꾸 이러시면 막 안타깝습니다. 웅당 할일을 했을뿐인데... 그건 그렇구 소성로동체조립을 어디 나혼자 했습니까. 저한테두 무엇인가 자랑거리가 있으면 기쁘겠습니다. 이런 웅색을 당할리도 없구.》

경심은 예민한 처녀였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보조개를 찼다.

《길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선생님을 납득시키자니가 한두마디로 안되는군요.》

그는 마른침을 삼키며 얼른 뒤를 이었다.

《전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촌벌에 일떠선 이카리비료공장 건설물에 기중기운전공인 제몹은 별반 갖든게 없다고 말입니다. 연공들이 들라던 들구 내리라면 내려주는것이 기중기운전공의 임무가 아닙니까. 그래서 술한 기자선생님들도 저를 찾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휴계실문이 열리는바람에 경심은 말끝을 삼켰다. 투박한 안전띠로 몸을 휘감은 청년연공들이 휴계실로 밀려들었다. 맨뒤에 들어서며 휴계실문을 닫은 청년이 석싹한 목소리로 떠들썩했다.

《어- 좋다. 요새 괜찮게 맵싸구만. 이젠 삼한사온도 다 없어졌어.》

누군가 그의 말에 갇을 달았다.

《글쎄말야. 옛날엔 대한이 소한네 집에 가서 얼어죽었다던데 지금은 바뀐가부지. 여여, 이거 야단났다. 입술이 얼어붙어 열리지 않는구만.》

《입술이 얼어붙었으면 말은 귀에서 나오는가?》

《으하하하...》

유쾌한 청년들이다. 건설장에서 《수리개》로 불리우는 끝날같은 연공들이다.

석싹한 목소리가 다시금 우스개소리를 했다.

《근위 22 금속공장건설사업소 문형기중기운전공 박경심동지, 연공총각들의 작업준비 끝! 총각전원 잠시 몸을 녹인후에 부지정리에 동원된 불도젤을 냉큼 들어주기바람. 이상-》

경심이 당황해하며 청년들한테 나를 소개했다. 그러자 청년들은 멋지게 빙글대며 나에게 인사를 했다.

《실례했습니다. 우리들은 현장에서 기중기신세를 지자구 온 사립인줄로 짐작했었습니다.》

소탈한 그들은 나를 한가운데 놓고 또아리처럼 둘러앉아 연방 질문을 들이댔다.

무슨 글을 쓰는가? 써서는 어디에 발표하며 지금 쓰면 언제쯤 나오는가? 우리 《건설장이 다 아는 처녀》, 좋지요? 잡자리랑 불편하지 않는가 등등 묻지 않는 말이 없었다.

질문이 좀 뜸해지자 목이 앙바툼한 청년이 내앞에 마주앉았다.

《우리 건설장의 문형기중기운전공인 이 박경심동무에 대해서 꼭 써주십시오. 제목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건설장이 다 아는 처녀〉, 좋지요?》

청년은 씨물씨물 웃으며 능청스레 한눈을 깜빡했다.

《그런데 이 동무한테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쓰겠다는분들앞에서는 완전히 〈병어리〉가 되어버리는겁니다. 너무나 겸손해서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연공들은 다람쥐처럼 높은곳에나 오르내릴뿐이지 뼈여지게 하는일이 있습니다. 소성로동체를 빠른 기일에 조립한건 우리 사업소 김삼력기사와 박경심동무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밖에서 땡땡거리는 야무진 종소리가 울렸다. 내앞에 마주앉은 청년이 설명했다. 기계조립장에 한발만하게 자른 레루토막을 매달고 때리는 소리인데 문형기중기운전공을 찾는다느것이였다.

《자, 또 한바탕 제껴봅세.》

연공들은 서둘러 밖으로 밀려나갔다. 《호출진호》를 받았으니 경심이라도 현장에 나가야 했으나 다만 남겨둘수 없어 내심 바재이는 눈치였다.

《후에 또 찾아올테니 어서 일을 보오.》

《저... 전 할말이 없습니다. 이 건설장에서 저만큼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인즉 난감하게 되었다. 경심이라도 연공들도 저만큼 한일이 없다고 손을 내흔드는 판이니 취재길에 오른 나로서는 여간만 딱한 노릇이 아니었다.

창박을 물끄러미 내다보는 경심이쪽으로 시선을 옮기던 나는 흠칫했다. 티없이 맑고 그윽한, 노상 웃음이 샘솟듯하던 경심의 두눈에 맑은것이 부풀어 올랐던것이다.

《?...》

잠시후 경심이 침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수령님께서 카리비료련합기업소가 완공된 날을 꿈속에서도 그려보신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공장인데... 아직도, 아직도 우리들의 걸음이 굼뜩것 같습니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나 어린 경심이가 한없이 돋보이면서 코허리가 시큰거렸다. 스물두살... 그 비좁은 가슴에 그렇듯 큰 뜻을 안고 산다면 청춘기를 빛내이는 그의 삶은 얼마나 보람찬가!

나는 고개를 떨구고 다시금 울리는 경심의 목소리에 귀를 강구었다.

《하루일감을 한두시간에, 열흘스무날을 하루동안으로 앞당기고싶어요. 우리 사업소 모든 건설자들은 그런 심정으로 일하면서도 조금도 만족을 모른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전 아직도 멀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나온 우리들은 나란히 문형기중기쪽으로 걸었다.

대한추위를 하는 모양인지 날씨는 지독스레 맵졌으나 건설장은 들끓었다. 소성로의 앞뒤공정을 완비하는 과감한 《돌격전》이다. 뿔각기동체우에서 용접불꽃이 축포처럼 훑날리고 원료장에서 울리는 경제선동대원들의 복소리가 구내길을 진감한다. 건설자들의 발걸음에만 나래가 돋혔는가, 설비자재를 실어나르는 대형자동차들의 질주 또한 장엄하다.

각가지 소음들로 소란스러운 작업현장에 이르자 경심은 껍 명랑해졌다.

높다랗게 매달린 문형기중기운전칸에 오르려고 숨장감을 끼던 경심은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또다시 그 매혹적인 불우물을 지으며 속삭여물었다.

《선생님은 고향이 어디니까?》

동당지 않는 질문에 덩둘해서라기보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다시금 레루토막을 때리는 다급한 소리

가 울렸던것이다. 나는 저으기 당황하여 경심을 떠밀었다.

《안됐소. 어서 기중기에 오르시오.》

《미안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경심은 눈깜박할새 기중기운전칸으로 올라갔다. 뒤이어 거창하게 큰 문형기중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했으나 나는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다. 번거로운 생각에 잠겼다.

(고향이라?! 어디라고 대답해야 옳담?)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달라서 나로서는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이다.

내가 태어난 고향은 덕천땅이다. 거기서 인민학교를 다녔다. 아버지의 직장조동으로 함흥에 가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군대에 나가 전연초소에서 복무했고 제대후 로동현장과 학교를 거쳐 지금은 변화한 도소재지에서 창작에 전념하고있은즉 수많은 고장들에 청춘기의 발자취를 남겼다. 어디서나 보람창고 가는곳마다에 정을 들였다.

길지 않은 인생행로를 돌이키던 나는 노을비낀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느닷없이 떠오르는 어렵듯한 추억은 향수와도 같이 쭉지 않은 가슴을 찌릿하게 자극했다.

...덕천에서 살 때 나는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좋아했다. 외아들인 나를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은 참말로 극진했다. 제관공인 아버지는 나에게 스케트날을 붙인 멋진 썰매며 필갑이나 손칼도 기막히게 만들어주었다.

숨박꼭질에 정신이 팔려 날저문줄 모르고 뛰어다닐 때면 다른 아이들은 어머니가 찾아나왔지만 나만은 아버지가 데려가곤했었다.

그런데 별난 일이 나졌다. 아버지가 다니는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는 소문이 퍼진 얼마후부터 아버지가 집에 얼씬도 하지 않는것이였다. 어머니가 아침저녁으로 공장에 밥을 날라갔다.

나는 점점 시무룩해졌다. 아버지의 팔을 베고 눕지 못하니 잠을 설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밤이였다. 두런거리는 소리에 잠을 깨고보니 뜻밖에도 아버지가 나의 머리를 쓰다듬고있었다. 나는 무뎠다. 반가웠으나 일부러 자는척했다. 매일처럼 눈이 까매 기다린 아버지여서 여간만 야속스럽지 않았다.

《여보, 그런데 이녀석이 울었구만.》

《아버지가 학부형회의에 못갔다구 울었어요. 요즘엔 잠결에도 자꾸 아버지를 찾군요.》

《허, 이녀석 안됐구만. 허지만 이다음 어른이 되어서 우리들이 만든 《승리-58》 자동차가 썩썩 달리는걸 보면 아버지대를 원망하지 않겠지, 이녀석들의 장래를 내다보며 하는 일이니 배고픈줄도 모르겠구 고생스럽지 않구만.》

물론 그때는 아버지의 말뜻을 리해할수 없었으나 철이 들어서부터는 《승리-58》형 자동차를 무심

히 보지 않았다. 웬일인지 자동차만 보면 먼저 아버지의 얼굴부터 떠오르곤 했었다.

그러나 술많은 내 머리카락에 흰오리가 섞이기 시작하자 많은것이 망각속에 묻혀버렸다. 이제는 《승리-58》형 자동차에 아버지의 모습이 비끼지 않는다. 아버지의 이야기도 기억에 삭막하다...

생각에 잠겼던 나는 떠들썩한 웨침소리에 머리를 들었다. 케블선을 운반하던 전공들이 저저마다 박경심을 향해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경심동무! 수고하오-》

《건강하시오- 문형기중기운전공동무-》

《특보가 나붙었소. 〈문형기중기운전공 박경심 오전계획 200 프로로 넘쳐수행〉》

나도 경심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건설장이 다이는 처녀-박경심, 그의 느닷없는 질문이 내 어린 시절의 아리송한 추억을 되살린것은 어인 까닭인지...

×

밤새 함박눈이 내리더니 날씨는 펍 푸근했다. 나는 서둘러 김삼력기사를 찾아 작업현장으로 나갔다. 그를 만나 박경심을 알고싶었던것이다.

어렵지 않게 만날수 있었다. 김삼력기사역시 건설장이 다 아는 기술자였다.

우리들은 소성로동체밀에서 마주섰다.

기름묻은 작업모를 눌러쓴 기사는 몸이 약하고 인정미가 엿보이는 50대의 사나이였다.

《여기서 조금후에 경계선동대원들의 공연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근위 22 금속공장건설사업소 노동자들의 성과를 축하하는 축하공연이지요.》

김삼력기사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침착하게 허두를 뺐다.

《경심이가 별로 한일이 없다고 하더라 말이지요. 참, 나이는 어려도 속은 호수처럼 깊은 처녀랍니다.》

미간을 찌프리고 담배를 빨던 그는 빙그레 웃었다.

《〈배우〉들이 도착하자면 아직 시간이 좀 있겠는데 이야기나 합시다. 우리 경심이가 소성로동체를 들어올린 이야기를 듣기 앞서 상식삼아 알아두실 내용도 있고...》

우리들은 산형강토막우에 병어리장갑을 놓고 앉았다.

《우리 근위 22 금속공장건설사업소는 많은 건설을 맡아한 소문난 사업소입니다. 경심이가 타는 저 문형기중기도 우리와 함께 대형단조공장건설을 비롯하여 많은 일을 한 기중기랍니다. 중요건설대상인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이 착공되자 우리들은 자신심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세월을 주

름잡는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속도전을 벌려 많은 일을 그야말로 〈주름잡아〉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소성로동체조립만은 도무지 앞당길 방도가 서지 않았습니다.》

김삼력기사의 이야기는 나의 마음을 고스란히 사로잡았다.

...22 금속(현장에서 그렇게 불렀다.)은 어깨가 처졌다. 누구나 기를 펴지 못했고 묵묵히 곁었다.

양철주전자에서 더운 물이 끓는 22 금속공장건설사업소 현장지휘부의 피창에선 온밤 불빛이 사라지지 않았다. 협의회, 기술합의, 언쟁, 론막...

이동작업대를 책임진 성미급한 지령장이 현장지휘부에서 이틀밤을 기다렸지만 사업소 김삼력기사는 벌써 사흘밤을 새우고있었다. 제아무리 머리를 쥐여짜도 동체조립기일을 줄여낼 방법이 없었다.

천덕리쪽에서 불어오는 차거운 눈바람이 귀뿌리를 핏았으나 김삼력은 옷단추를 터놓고 설핏한 달빛을 헤가르며 곁었다. 속이 짓달아 견딜수 없었다.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하루이틀 허송세월하면 소성로조립기일이 그만큼 짧아질터인데 고양이뿔같은 묘술을 찾지 못한 그로서는 속이 탈만도 했다.

원래 김삼력은 재료력학연구에 남다른 취미를 지닌 기술자이다. 삼력이란 이름도 본명이 아니다. 응용력학분야에 깊은 관심을 돌리다보니 그자신 즐겨 쓰는 단어를 이름으로 삼았다. 삼력 즉 사람의 힘, 기계의 힘, 전기의 힘이 합쳐지면 그 어떤 힘도 당해낼수 없다는걸 그는 좌우명처럼 외운다.

발길 가는대로 내치 걸던 그는 제관장어구에서 못박혔다. 누군가 철관무지앞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한뼉 철관마름질을 했다는 제관공 권아바이였다.

《삼력기사구먼. 그래 지휘부에서 무슨 뽕족한 안이 나왔나?》

삼력기사는 가슴이 꺼지게 한숨을 내그었다.

《야단났네 그려. 벌써 입씨름으루 사흘낫 사흘밤이 지났은즉 답답하지 않은가. 소성로동체토막들을 매모조리 기다랗게 련결을 해서 한꺼번에 닝큼 들어올린다면 몰라라. ...나 담배 한대 주게나.》

《...》

김삼력은 말없이 아바이 손에 담배팩을 들려주고 자리를 뗐다. 소성로동체조립장으로 나갔다. 벌써 며칠째 현장에서만 서성대는 그다.

뿌잇한 달빛아래 숨죽이고 누운 소성로동체토막들을 일별하느라니 다시금 속에서 불이 일었다. 권아바이 말처럼 동체토막들을 모조리 련결하여 한꺼번에 들어올릴순 없을가?

한숨을 지었다. 동화세계에나 있을법한 터무니없는 생각에 쓰거운 미소를 머금었다.

담배생각이 간절했으나 인단알을 털어 물었다.

얼마후 그는 동체안에 들어가 다리를 꺾고 앉았

다. 또다시 이상스레 권아바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동체로막들을 매모조리 련결해서 한꺼번에 들어올린다면 몰라라...》

순간 김삼력의 머리속에서 섬광과도 같은것이 펑 곳했다. 눈매가 깔끔해졌다. 한꺼번에 들어올릴수는 없어도 땅우에서 몇토막씩 조립하여 들어올린다면, 땅우에서... 땅우에서...

지해도 샘줄기와 다름없다. 터치면 솟구치는 법이다. 그의 뇌리에선 순간에 하나의 상이 무르익기 시작했다.

땅우에 여러개의 로라들을 설치한다, 그우에 여러개의 동체로막들을 올려태운다, 태운 동체로막들을 한바퀴 돌리면서 안팎에서 동시에 용접한다...

김삼력은 흥분했다. 심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기술협의에 붙여보아야 하겠지만 10 배의 속도로 돌진할수 있겠다는 확신의 실마리가 생겼다.

그는 기증기운전공들의 숙소로 내달렸다. 먼저 문형기증기운전공 박경심과 의논하고싶었다. 땅우에서 확대하여 조립한 동체를 직접 들어올려야 할 사람은 기증기운전공이니 그의 지지를 받는것이 필요했다.

《그 언넌 어디 간단 말도 없이 아까 나갔어요.》

살눈섭이 긴 취사원처녀가 불에 밤알을 물고 대답했다.

기다릴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군말없이 방에서 나왔다. 달뜨는 흥분에 사로잡힌 그였다.

현장지휘부를 향하여 내쳐 걸던 김삼력은 의외에도 마주오는 경심이와 만났다.

《허, 경심동무 만나기 힘들다.》

회고 동그스름한 경심의 얼굴은 달빛이 물들어 부드럽게 빛났다.

《어마나, 전 지금 기사동질 찾아다니고있어요.》

《왜 찾소?》

《기사동지, 방도가 나졌어요?》

소성로동체를 기한보다 앞당겨 조립할수 있는 혁신안이 나왔느냐는 질문이다.

《아직은 없소. 경심동문 생각을 좀 해봤나?》

김삼력의 질문에 경심은 고개를 떨구었다. 동그란 편리화끝만 오래동안 굽어봤다.

이윽고 그는 이슬에 젖은듯한 눈길을 들었다.

《그럼 어찌나요? 언제까지 모여앉아 빈말만 해야 하나요? 하루하루가 웅근 일년과 맞먹는 땀데 어찌면 좋아요? 우린 당에서 찍어준 날자까지 꼭해야 해요. 못어겨요, 그건 못어겨요. 그렇지요? 기사동지.》

경심은 쾌활하고 웃기 잘하던 평소의 그답지 않게 뻔뻔하게 뒤를 이었다.

《가만 눈치를 보니 내심 책임질 발언을 두려워하는분들도 있는것 같더군요. 립장이 그래서야 어떻게 큰일을 하겠어요. 기사동지, 저하구 손맞잡구 한

번 대답하게 해보시지 않겠어요?》

김삼력은 놀랐다. 이 처녀가 박경심이 옳은가? 이따금 연공들한테 욕을 먹고 눈물까지 찔끔거리던 그가 이리도 당돌할수 있을까?

《말하오. 어떻게 하자는건지.》

경심은 약간 헤덤비며 다시 입을 열었다.

《소성로동체를 땅우에서 여러 토막씩 빨리 때붙인 다음 한꺼번에 들어올리자는겁니다. 길은 그길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랬다가 일이 제대로 안되면 저와 기사동지가 책임을 함께 지면 되지 않습니까.》

《용감한데.》

《누가요?》

《경심동무가.》

김삼력의 목소리는 좀 갈렸다.

《경심동무, 우리 사업소의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수 없이 하기 위해 밤새워 고심한다는걸 명심하오. 일이 툐다음에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겠소?》

그는 짐짓 무뚝뚝한 어조로 경심에게 따져묻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들어올리는 경우 기증기가 견딜수 있겠는가를 타산해봤소?》

《예, 문형기증기의 능력보장을 해야 합니다.》

《기증기 쇠바줄은 어떨것 같소?》

《그건 문제없습니다. 만톤프레스때 경험이 있답니다.》

《동체를 땅우에서 어떻게 땀다?》

《땅우에 여러개의 로라들을 설치하고 그우에 동체를 태운다음 빙빙 돌리면서 때면 안됩니까?》

김삼력은 머리를 들었다. 숨소리가 커졌다. 그는 처녀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됐어, 됐구만. 경심이가 큰 생각을 했소! 어떻게 이렇게 기막힌 생각을 해냈소?》

김삼력의 입에서는 헉헉 단김이 뿜졌다.

《아이참, 이리저 마십시오. 그쯤한 생각이야 누군들 못하겠어요.》

경심은 고개를 떨구고 애원하듯했다.

《기사동지만이라도 제발 이리저 마십시오.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옳다, 용하다, 경심이가 제일이라고 칭찬부터 앞세우는데 막 송구스러워 못 견디겠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뭘 잘하나요? 남들이 잘 땀 나도 잤어요. 사람들이 휴식할 땀 나도 따라했는데 칭찬할 일이 뭘가요?》

김삼력은 눈을 슴뻐였다. 눈뿌리가 시큰거렸다. 알뜰한 경심이, 역빠르게 뛰어다니며 소문없이 일 잘하는 사업소의 보배- 달덩이같은 얼굴이 어찌면 이리도 복스러울가? 마음이 고와야 얼굴또한 예쁜단 말 그런데 없는가보다...

여기까지 말한 김삼력은 꺼슬한 턱을 쓰다듬었다. 그는 실눈을 짓고 햇습같은 송이구름이 떠흐르는

서쪽하늘가를 뉘엿이 바라보다가 나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경심이가 참 대견하더군요. 미덥구 고맙구... 덩씩 안아주고싶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나의 마음과 경심의 마음이 이렇게 한점에서 일치하리라곤 생각도 못했는걸요. 하나로 합쳐지기 힘든게 사람의 마음인데 하물며 소성로조립의 돌과구를 뚫는것과 같은 어려운 일을 농구 대바람 한마음이 된다는건 어렵지요. 피타는 탐구가 없었다면 문형기중기운전공인 그로서 절대 그런 안을 내놓지 못합니다. 나는 경심을 데리고 현장지휘부로 갔습니다. 물론 그날밤으로 기술협의회가 열렸지요. 갑론을박하며 밀구 당기기는 했으나 새벽무렵 경심의 제안대로 하기루 락착이 되었습니다. 경심이가 귀솔아하는 칭찬이 또다시 이구동성으로 쏜힌건 말할것두 없구요. 경심이때문에 사업소의 위신이 〈고수〉되었단 말까지 튀어나왔지요. 경심인 그런 소리들이 듣기 거북해 내 등뒤에 숨어 앉아 움썽도 못했더랬습니다. 그날부터 우린 서돌렸습시다. 땅우에 여섯개의 로라를 설치해농구 동체도막들을 태운다음 제격 맞붙였습니다. 땅우에서 벌린 일이라 식은죽먹기루 다 해치웠습시다. 동시에 경심의 안대로 문형기중기의 능력도 보강하면서 말입니다.

드디어 첫 동체를 떠올리는 시각이 왔습시다. 여섯메터가량 되는 동체를 땅우에서 네토막이나 맞붙여 들었습니다. 말은 쉽지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날은 정말 일생동안 잊혀지지 않을것 같습시다.》

...은 건설장이 들끓었다. 건설자들이 앞을 다투어 동체조립장으로 모여들었다. 건설장에 동원된 인민군군인들과 지원나온 인민반아주머니들까지 달려와 조립장주변은 삽시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곳곳에서 방송차들이 걱정을 터뜨리고 소년단원들이 꽃다발을 흔들었다.

연공들이 소성로동체에 쇠바줄을 걸기 시작하자 김삼력은 재빨리 문형기중기운전칸으로 올라갔다. 문형기중기의 능력보강을 계산한 자기가 함께 있어야 운전공이 안심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거울을 들여다보며 보위색작업모를 단정히 고쳐쓰던 박경심이 의아해했다.

《아니, 기사동지가 어떻게...》

김삼력은 대답대신 빙그레 웃었다.

《일없습시다. 내려가 일보십시오.》

《그래두 함께 있자우.》

《야, 기사동지두...》

박경심의 그윽한 눈에 이상한 광채가 어리는 찰나, 밑에서 다급한 호각소리가 울렸다.

경심은 열린 총스위치를 넣고 제어기앞에 마주섰다.

《자, 침착하라구.》

《고맙습시다, 기사동지.》

신호수의 거동을 주시하던 경심이 주권양기와 보조권양기 제어기를 제끼자 굵은 쇠바줄이 감기기 시작했다.

김삼력은 손에 땀을 쥐고 육중한 소성로동체에 예리한 시선을 박았다.

정적 정적... 수천쌍의 눈길들이 문형기중기운전칸에 부채살처럼 모여들었다.

박경심은 알팍한 입술을 감쳐물고 제어기의 단수를 능숙하게 조절했다.

드디어 문형기중기가 위태롭게 움썰하더니 스무메터도 넘는 소성로동체도막이 땅땨를 했다. 긴장하게 굳어진 시선과 시선들이 이번에는 동체쪽으로 쏠렸다.

정적 정적... 왜 이렇게 조용할까? 김삼력은 가슴을 펴고 심호흡을 했다. 그제서야 권양전동기의 용쓰는 소리가 귀전을 때렸다.

운전칸앞으로 육중한 소성로동체가 차츰 가까이 다가들자 경심의 코등에도 이슬같은 땀방울이 내뿜혔다.

신호수청년을 얼핏 바라보던 김삼력은 별안간 뚝, 뚝- 하는 심장을 물어뜯는 소리에 전율하며 기중기꼭대기로 눈길을 옮겼다.

분명 보았다! 사고다! 쇠바줄이 엇가락처럼 늘어났다. 그후는 안보였다. 눈앞이 캄캄했다.

《세우라! 로쁘가 끊어진다아!》

김삼력은 목이 터지게 소리쳤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동체가 땅우에 곤두박치는 끔찍스러운 굉음이 아니라 박경심의 맑은 목소리가 도란도란 울렸다.

《너무나 긴장하셨어요. 권양토리안에서 쇠바줄이 제자리를 잡는 소리인데.》

(후-)

깨도가 되었다. 김삼력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고개를 꺾었다. 그렇게 멍없이 놀라다니?! 나도 이제 늙었는가?...

얼마후 김삼력은 우뢰소리를 방불케 하는 함성에 놀라 머리를 들었다. 눈아래서 꽃파도가 설레이고 북소리가 터져올랐다. 흔드는 손길과 손길들이 숲처럼 설레었다. 소성로동체가 정확히 제자리에 올라타던것이다!...

김삼력은 말을 끊고 손마디를 꺾었다. 검붉게 상기된 그의 얼굴에 어쭙은 미소가 떠올랐다. 천진스러운 눈빛이 상대방의 마음을 포근히 쓰다듬는 그와 마주앉아 그냥 듣고싶었다.

《기중기운전칸에서 내린 경심은 담박 꽃속에 묻혔지요. 건설자들이 안겨준 꽃다발, 꽃목걸이가 경심의 조그마한 몸집을 통채로 삼켜버렸으니까. 뚝바우같은 연공들마저 경심의 손목을 당겨쥐고 울먹울먹했습시다. 그런데 전 그날 경심이한테서 남

다른것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경심이는 가슴속에 고귀한것을 새겨안은 처녀더군요.

소성로동체를 들어올린 날 저녁 건설지휘부에서 간부동지들이 내려왔었지요. 우리 사업소 식당에서 간소한 식탁을 둘러싸고 마주앉았습니다. 지휘부의 일군들이 경심이더러 자꾸 한마디 하라고 부추기더군요. 무섭지는 않던가? 기증기동체를 들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고 묻기도 했습니다. 얼마후 의자에서 조심히 일어난 그가 말했습니다. 침착하게 명확히 말했습니다.

〈저의 고향은 강선입니다. 전 〈천리마의 고향〉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전 항상 〈강선의 딸〉답게 강선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할 결심입니다〉라고 했지요.

모두들 머리를 끄덕였지만 나의 감동은 더구나 컸습니다. 〈천리마의 고향〉, 〈강선의 딸〉… 어떻게 됩니까? 귀찮아 들을수 없지요. 나는 불안간 가슴이 그득해지는감을 느꼈습니다. 어설픈 달빛아래서 못어긴다고, 그건 못어긴다고 곱씹어 외우던 그의 목소리가 새로운 의미로 되새겨지더군요.〉

김삼력은 이야기를 끝맺지 못했다. 드디어 손에 손에 붉은기를 든 경제선동대원들이 소성로밀에 도착했던것이다.

×

그로부터 이틀후에 나는 다시 경심이를 찾아갔다. 《천리마의 고향》에서 나서자란 《강선의 딸》… 느닷없이 선생님의 고향은 어딘가고 묻던 그의 질문이 되새겨지면서 경심이를 좀더 알고싶었다.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누구에게나 물으니 경심은 문형기증기우에 올라갔다고 했다. 대형감속기치차를 옮겨야 한다는것이였다.

나는 현장지휘부에 들러 동의를 얻은다음 곧장 문형기증기로 올라갔다.

생각과는 판판 달랐다. 운전칸이 설치된 27미터 높이에 이르는 눈앞이 어질거려 발자국조차 떼기 힘들었다.

안전울타리를 거머쥐고 엉금엉금 기듯하는 나를 발견한 경심이 이따금씩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호… 저를 붙잡으세요. 야참, 그렇게두 무섭습니까?》

《괜찮소, 무섭긴…》

《그런데 어쩌서 발을 움직이지 못하세요?》

《어-참 경심동무앞에서 망신을 하는군.》

나는 허파빈 소리로 짹짹대다가 경심의 부축을 받고서야 가까스로 운전칸에 들어갔다. 운전칸의 키낮은 의자에 앉은다음 나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문질렀다.

《용하구만. 경심동무가 참말 용해.》

《뭐가 용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난 이런데서 일할 엄두도 못내겠소.》

《호호호… 처음이니까 그렇지 인차 익숙됩니다.》

박경심은 유표한 감장눈을 깜빡이다가 열적은 소리로 나직이 입을 열었다.

《어제 전 삼력기사동지한테서 꾸중을 들었습니다. 취재 나온분들에게 할말을 온전히 해야지 그게 무슨 버릇인가? 그대 동무가 정말 한일이 없는가? 지나친 겸손은 교만성의 표현이란 말을 못들었는가고 따지고드는바람에 정말 혼났습니다. 선생님 절 용서하십시오.》

나는 혀에 뼈가 박혀 난색을 지었다. 김삼력기사에게 말치레삼아 한마디 했었는데 경심의 립장이 이렇게 딱해질줄이야…

박경심은 연지불이 발강게 익어 솜동복 안주머니에서 조그마한 수첩을 꺼내들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곳 카리비료련 합기업소 건설장에 온 다음부터 전 아버지의 부탁을 잊지 말자고 늘 스스로 자신에게 책찍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헛치는 않습니다. 저… 우리 아버지의 편지를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패히 응하자 경심은 수첩갈피에서 보풀이인 편지를 꺼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거들거들 읽었다. 심장이 뛰고 피가 끓는 자자구구들가운데서 필요한 부분만을 공개하려나.

《…경심아, 너에게 꼭 부탁하고싶은 말이 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쪼록 근본만을 잊지 말아라. 이 아버지는 강선땅에서 한뼉 강철로당을 받들어온 로동자의 한사람이다.

우리 수령님께서 몸소 강선땅에 오시여 강재 1만톤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시었을 때 6만톤능력의 분괴압연기로 우린 12만톤의 강재를 생산해냈었다. 그때 아버지는 참말로 귀중한것을 깨달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한 우리 로동계급이 못할 일은 세상에 없다는것, 수령님의 뜻대로 해서 세상에 안되는 일도 없다는걸 심장으로 느꼈더라.

경심아, 너도 이제 어린애가 아닌즉 아버지의 뒤를 이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만을 충심으로 받들어모실줄 알아야 한다.

무슨 일이든 부쩍 다그치거라. 걸을데선 뛰구 뛸데선 날아야 한다. 우리 수령님께서 카리비료생산 때문에 마음쓰고계신다는걸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러한 중요전선에 바로 다름아닌 강선로동계급의 딸인 네가 섰다는걸 순간도 잊지 말아. 순간도 말이야!》

나는 편지를 천재 말없이 앉아있었다. 경심의 말

을 더 듣지 않아도 그를 충분히 알수 있었다. 그의 소원도 희망도... 온 건설장이 다 알도록 소성로동체를 통이 크게 들어올린 그 심장속의 열도에 대해서도...

나는 한동안 머리를 끄덕였다. 로동계급의 근본을 잊지 말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중심으로 받들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부탁, 보물이 인 한장의 편지를 남몰래 가슴속에 소중히 품고다니 경심이였기에 그렇듯 힘껏 큰걸음을 내디딜 줄 아는 청년건설자로 성장할수 있었으리라.

이런 불덩이같은 심장에 비기면 내 가슴은 너무나 험악했다. 좁다란 토방이 달렸던 덕천의 고향집을 잊고 사는 나, 내 조국의 오늘과 래일을 위하여 경심이처럼 큰자국을 남기지 못하는 값죽은 삶이 두렵다. 아니 무섭다!

《선생님, 이제 대형치차를 옮기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나는 경심의 청고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미구하여 대형치차가 허공에 매달렸다. 문형기중기가 소성로 후미쪽으로 서서히 움직였다. 연공들이며 조립공들이 쇠사다리를 타고 로대우로 번개같이 뛰어오른다. 김삼력기사의 얼굴도 보였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심신마저 뜨겁게 달아올랐다. 드넓은 건설장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따라 무심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장에서 새로운 《90년대속도》를 창조해나가는 저들속에 그 누군들 없겠는가.

강선과 기양, 황철과 희천에서 자란 수많은 아들딸들이 폐허우에서 새 조국을 일떠세우던 그날의 그 기세로 자랑찬 큰걸음을 내딛는다! 그 충성의 대오속에서 덕천의 아들인 나도 그들과 나란히 보조를 맞추리라 마음을 가다듬는다.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장에서-

앵두익는 트랙에서

리종덕

한나절 일을 마치고
트랙에 들어서니
타는듯 빨강게
앵두가 익었구나

아이때처럼
함초롬히
앵두빛으로
물드는 마음인가

바구니를 가져오라고
팔애를 부르는
내 목소리도
기쁨에 젖었는데

오, 나를 기다리고있는
《로동신문》을 펼쳐드니
가슴부풀게 하는
통일거리 건설장의 새 소식

군대나간 아들의 편지
반갑게 뜯어보니
이봐라
상등병이 되었단다

이때라는듯
방금 알나이를 한 닭무리들이
뜰안가득 품기는데
박순은 벌써 담장을 덮었구나

들에서 곡식을 가꾸는
한나절 사이에도
내 집 트랙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피어났는가

강냉이잎 무성한 농장벌과
잇닿아있는 이 트랙
점심참에도 풍년물소리
노래처럼 즐겁구나

무르익는 앵두빛으로
젖는 마음인가
내 생활의 기쁨으로
아름답게 물드는 앵두인가

오, 기쁨처럼
행복처럼
타는듯 빨강게
트랙에는 앵두가 익었다

날알은 어떻게 익는가

-평북염주군 향봉리를 찾아서-

신리섭

예로부터 일러오기를 훌륭한 자식들에게는 훌륭한 부모들의 뒤받침이 있다고 했었다. 그러하듯이 만풍년의 알찬 열매속에 농민들의 수고가 있고 그들의 뒤에 또한 그들을 떠밀어주고 이끌어주는 당에 끝없이 충실한 참된 일꾼들이 서있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을 개선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제대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그것을 집행하는 일꾼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동군 봉화협동농장을 찾으시고 하신 현지교시와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영농차비로 들끓는 염주군 향봉리를 찾았었다.

1. 실 농 군

염주읍에서 철산군으로 뻗은 도로를 따라 십리쯤 가다가 실과나무로 뒤덮인 향봉산굽이를 안고 꺾어들면 아담한 농촌마을이 나진다. 나즈막한 산봉우리들을 축으로 하여 기와를 얹은 문화주택들이 사이좋게 렬을 맞추어 들어섰고 그앞으로는 사래긴 강냉이밭들과 그 끝에 생평동이라고 이름을 가진 무연한 논벌이 기름기가 번지르르한 흙밭들을 뒤집고 누웠는데 그우에 흙갈이한 개바닥 흙과 거름무지들이 무겁게 실려있다. 부드러운 바람결에는 두엄내가 구수하게 실려있다.

거름무지들은 많기도 하다.

논에도 밭에도 어느 포전을 돌아보아도 거름무지들이다. 봄을 약속하는 한낮의 해벌에 뜬 김이 서린 거름무지마다에는 아지랑이가 아물거려 눈시울이 다 아플지경이다.

몸의 운무가 서린 가없는 하늘에 햇솜같은 흰구름송이 몇점이 두둥실 떴다. 그 하늘아래 저 멀리 잇닿은 논벌로 방금 두엄무지에서 파서 실은 잘 썩인 거름들을 적재함이 넘쳐나게 가득가득 실은 빨간색, 파란색 트랙트들이 꼬리를 물고 달려가고

있다.

올해 농사차비를 실속있게 해놓은것이 첫눈에 알리는 거름무지들에서 이곳 농장원들의 수고를 새삼스럽게 헤아려보게 되는 우리는 군당위원회에 들렀을 때 한 일꾼이 것처럼 이곳 농장에 대해 자랑에 넘쳐하던 이야기가 십분 리해되였다.

점심밥을 먹고나서 포전을 돌아보려고 나서던 우리는 농장사무실뒤 안침한곳에서 진거름이 담긴 삼태기와 호미를 든 이곳 농장 책임일꾼 김희수동무와 마주쳤다.

했을 때 우리는 놀라움을 어쩔수 없었다. 농장책임일꾼이 일하러 오갈 때마다 삼태기를 들고다니며 길가에 널린 집짐승들의 진거름을 거두어모으는것도 놀라운것이지마는 크고작은 거름더미마다에 이름을 써붙인 패말뚝이 꽂혀있었기때문이었다.

《저 거름무지를 좀 보십시오.》

김희수동무는 제일 큰 거름무지에 박혀있는 패말뚝을 가리켰다.

《오만수》라고 쓴 이름석자가 안겨왔다.

오만수, 그는 이곳 리당비서이다. 그 량좌우견으로 리당일꾼들과 관리일꾼들의 이름이 주의를 끌었다.

우리에게는 구태여 농장에서 지난날 어떻게 하여 정보당 알곡소출을 더 내였으며 당면과업으로부터 농장전반사업이 군적으로 앞서나가고있는가를, 그리고 올해 농사차비에 대하여서도 설명이 필요치 않았었다.

그 모든 사연을 이 패말뚝과 거름더미가 현실로써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지 않는가.

성실한 농사군한테는 나쁜 땅이 없다는 말은 오랜 세월이 땅과 더불어 축적된 경험에서 생겨나 하나의 좌우명으로 되고있는것이라.

농민의 본분은 한알의 낱알이라도 더 많은 소출을 내는것인데 그러자면 땅을 살찌워 힘을 키우는 것이다. 할진대 지력을 높이는것은 농민들의 기본일거리며 농사에서 근본문제라고 할수 있다. 땅을 살찌우기 위해 질 좋은 거름을 두고 마음을 쓰며 아글타글 애쓰는 사람, 몸에 거름내, 흙내가 풍기는 사람이 오늘의 농장 지휘관들이요, 진짜배기실농군이 아니겠는가.

리당비서를 비롯한 일꾼들이 이렇듯 거름생산에 앞장에 서니 온 농장이 따라서기마련인 것이다.

저 거름무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일 년 열두달 나날이 높아지면서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름생산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말없는 조직자, 선전자이기도 하다.

우리는 내심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이곳 농장에서는 포전에서 일손을 잡을 때를 내놓고는 사철 어느 한시각도 거름생산을 소홀히 해본 적이 없다. 여름철에는 논두렁 발머리풀을 말끔히 베여 퇴적장에 쌓아 썩여내었고 양, 돼지 우리에 깃을 넉넉히 깔아주어 절인 김이 풍기는 거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터로 오가면서 집오래에 널린 집짐승들의 진거름을 한덩어리라도 흘려보낼세라 거두어 거름더미를 높여가는 것이었다.

하여튼 거름이 될만한 것은 지푸라기하나 허투로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보면 다른 농장에 비해 알곡소출이 높은 것은 이런 진짜배기 실농꾼들이 흘리는 성실한 땀의 대가가 아니겠는가.

하기에 우리한테는 논밭에 실어낸 거름더미들이 무심히 보이지 않았고 그 거름무지를 대할 때면 이곳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수고가 헤아려지면서 올해에도 포전마다에서 알찬 만풍년의 낱알이 쏟아지리라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된다.

2. 《당에서 된다고 했소!》

이곳 농장을 돌아보느라 보면 보이는 것 듣는 것이 모두 새롭고 깊은 감동을 자아내지만 류다르게도 주의를 끄는 것은 계사니의 울음소리이다.

어느 농가에서나 종자계사니를 대여섯마리씩 키우고 있다.

농장에 도착한 다음날 점심밥을 먹고 합숙식당을 나서던 우리 일행은 계사니의 청높은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합숙동컨 나즈막한 둔덕우에 자리잡고있는 집틀 안에서 계사니 울음소리가 여느 집보담도 우렁찬데 보기만 해도 탐스럽게 투실투실 살찐 얼룩계사니들이 마치도 경각성 높은 보초병마냥 한발씩 되는 긴 목을 빼들고 등기적거리며 거니는 양을 보느라니 마음이 저도 모르게 흐뭇해진다. 할진대 그것을 키우는 사람들의 심정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우리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그 집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그 집이 리당부비서 김흥빈동무의 집일줄

이야, 그는 계사니를 잘 키워 전국축산모범일꾼회의에 참가하기까지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사니를 대대적으로 기를데 대한 가르치심을 받들고 농장에서 제일 먼저 계사니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리당부비서 김흥빈동무였다. 말하자면 그의 집은 농장에서 계사니원종장인 셈이었다.

어떻게 되어 부비서동무가 계사니를 기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묻자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그는 천천히 입을 뗐다. 했으나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열정이 넘쳐있었다.

《어떻게 기르게 되었는데가구요... 그것이야 명백하지 않습니까. 전 당일꾼이니까요.》

당일꾼! 당일꾼이기때문에 새로운 집짐승도 남먼저 길러야 한다!

이 얼마나 가슴뜨거운 말인가.

《또 한가지는 이번 일에서만은 우리 리당비서동무한테 양보하지 않으려는 결심이였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리당비서동무한테 양보하지 않으려는 결심을 했다는 것은?...》

《물론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리당비서동무를 따라앞선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으니까요.》

김흥빈동무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리당비서 오만수동무는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린 영예군인이다.

이곳 리당비서로 23년, 농촌 당일꾼으로서 그가 못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언제나 이신작척하는 사업방법이다. 이것은 그의 몸에 완전히 체질화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리당위원회에서 풀베기전투문제가 토의된 이튿날이면 먼저 낫을 들고 나섰고 흙갈이문제가 토의된 날 저녁이면 삽을 쥐고 나섰다.

옷물이 맑으면 아래물도 맑기마련이다.

그와 함께 부비서로 7년째 일해오고있는 김흥빈동무는 오만수동무한테서 배우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매번 충동을 반군하는 것은 빈틈없는 조직사업과 당일꾼으로서의 이신작척하는 사업방법이었다.

그래서 당위원회에서 계사니를 대대적으로 기를데 대하여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한 날 그런 결심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결심은 곧 실천에 옮겨졌다.

하지만 일은 그리 쉽게 되지 않았다.

그의 안해는 계사니를 순수 비알곡먹이로 기를수 있다는것을 끝이 듣지 않았고 더우기는 산기슭에 내놓아 방목하여 기른다는 말에는 손을 내저었다.

《그게 뭐 염소나 양이라구 방목을 한단 말이요. 내 원 계사니를 방목해서 기른다는 말은 나이 40에 듣다 처음이웨다.》

하지만 김홍빈동무는 조금도 실망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예순이 넘은 그의 어머니도 도와나섰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있는데 멀지 않은곳에서 《땡-땡...》 종소리가 유정하게 울려왔다.

우리는 무심히 스쳐버리려는데 김홍빈동무는 엉겁결에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불에 덴 사람처럼 화를 놀라는것이였다.

《아하 이거 야단났군요. 신선놀음에 도끼자루씩은줄 모른다고 제자랑만 하다가 지각생이 됐군요, 랑해하십시오.》

하면서 책장에서 학습노트를 성급히 꺼내드는것이였다.

《지각생이라니요?》

《수업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고급당학교 졸업생이 지금은 농업전문학교 통신수업생이지요. 2학년생이랍니다.》

의아해하는 우리 눈길을 받자 그는 어딘가 멋적은듯, 하면서도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것이였다.

《어찌겠습니까, 시대는 전진하고 과학은 발전하니까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요. 리당위원회 분공입니다. 말하자면 학급반장이라 할가요? 허허...》

하고 즐겁게 웃고는 문밖을 나서더니 종주먹을 부르짖고 동구길로 달려가는것이였다.

우리는 그의 뒤모습에서 한동안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고등교육을 받은 그가 농업전문학교통신수업생이라- 그러고보면 농사일뿐만아니라 과학지식을 소유하는데서도 당일군이 앞장서고있는것이다.

우리는 그의 안해한테서 이야기를 마저 듣기로 하였다.

성품이 순박한 그의 안해는 꾸밈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였다.

《처음엔 갓 까낸 새끼계사니를 아홉마리 기르기 시작했었지요. 전 주인모르게 알곡먹이를 내다주기까지 했답니다. 도저히 계사니가 풀만 먹고 자란다는게 잘 믿어지지 않더군요...》

그는 쑥스러운듯 얼굴을 붉히며 웃음을 지었다.

마당안에서 계사니들이 강냉이짚을 쭈서먹고있는 모양이 창너머로 내다보인다.

《한달도 못가서 다 죽이였답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죽이기도 했고 우리건사를 잘해주지 못해서 쥐한테 피해를 보기도 했어요. 그다음엔 석달이 됐다는 다 큰걸 가져다 기르기 시작했었지요. 그걸 시중하느라구 저희 시어머니가 수고 많았답니다.》

그런데 신통히도 계사니들이 풀만 먹고 잘 자라는게 아니겠어요.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때까지 저 산굽이를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그것이 신기하기두 해서 주인한테 정말 계사니를 풀만 먹여 기를수 있겠다고 했더니 벌컥 성을 내지 않겠어요.

〈여보, 당에서 된다고 했소.〉 라고 말입니다.》

그의 안해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맺었다.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당에서 된다고 했다! 당에서 된다고 하면 무조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 당일군, 당의 방침이 나오면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보여주며 그 관철에로 불려일으키는 당일군! 이런 당일군들이 오늘 사회주의 모든 초소에 지켜섰기에 당과 대중이 일심동체가 되여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당일군을 키워낸 이곳 리당비서 오만수동무를 한시바삐 만나보고싶은 조바심을 어쩔수 없었다.

3. 땅의 향취

이른새벽이였다.

단잠에 들었던 우리는 합숙취사장에서 복적거리며 무엇인가 서두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어머니, 밥이 다 됐나요. 밥?》

몹시 험뎌버치는 젊은이의 목소리.

《왜 이렇게 보채나. 지금이 몇시인데?》

창너머 재빛하늘에는 못별들이 새벽잠에 취한듯 조을고있다.

《어머닌 정말 썸판이 없군. 벌써 발으로 나가셨는데.》

《발으로라니? 누가...》

《차, 이런 리당비서아바이가 벌써 흠뻑이하러 발으로 가요. 옹히 할수 없군.》

젊은이는 입을 찹 다시더니 밖으로 뛰쳐나갔다.

합숙이 설렁거렸다.

너자호실문이 열리더니 말자국소리가 다급하게 쿵당쿵당 울리더니 어둑속으로 잣아들었다.

우리는 웬일인가 하여 주섬주섬 자리를 거두고 문을 나섰다.

밤새 보금자리를 틀었던 젖빛안개도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이른새벽이다.

저쪽 집오래에서 계사니들이 껍-껍- 거리며 온 동네의 잔을 깨우는데 청아한 닭울음소리가 아직 그 누구의 입김으로도 흐려지지 않은 새벽대기속으로 퍼져간다. 농쟁기들이 부딪치는 소리와 함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목소리들도 두런두런 들려오다 가는 어둠속으로 멀어져간다.

한쪽귀가 뚫아든 하현달이 서전에 걸려 희미한 빛을 던지고있다.

우리는 새벽녘의 어둠속에서 농장원들의 흐름속에 섞이였다.

벌써 산기슭다락밭들 여기저기서 흙을 나르고있는 모습들이 보이였다.

그들속에서 기술일군 박동무의 모습도 볼수 있었고 리당일군 김흥빈동무와 장동무의 얼굴도 찾아볼수 있었다.

저쪽 산비탈에서는 서로 승벽을 겨루는 소리가 들려오고 뒤이어 호탕한 웃음소리가 마냥 즐겁게 터져오르곤한다. 참으로 정신도 마음도 새로운 창조적 열정과 삶의 희열로 솟구치게 하는 이른새벽의 흙갈이전투장이였다.

우리는 마침 부식토가 무득히 담긴 질통을 지고 와서 밭에 쏟고 허리를 펴는 농장의 한 일군과 마주섰다.

《흙갈이작업을 이렇게 날뽕기전부터 합니까?》

《허허, 어떻게 알고 나왔습니까. 이건 기본작업이 아니랍니다.》

그 일군은 사람좋은 얼굴에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기본 작업이 아니라니요?》

《예, 일인즉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난 김동무는 담배 한대를 붙여 물고나서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작년말에 흙갈이를 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전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장에서는 이미전부터 겨울철이면 개바닥흙을 파서 해마다 180 정보씩 논에 흙갈이를 하곤 했으니까요.》

《아니, 이미전부터 흙갈이를 해왔단 말입니까?》

우리 일행중에서 누가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장이 다른 농장보다 알곡소출을 더 낸 비결이 바로 해마다 흙갈이를 한데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지력을 높이는건 농사

짓는 사람의 첫째가는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웁은 말이다. 국가에서는 어느 농장이나 다 똑같이 정보당 한해서 비료와 농약을 보내주고있다하지만 알곡생산량은 똑같지 못하다.

그런즉 땅의 지력을 높이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날저녁이었습니다. 우리 일군들은 농장 포전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리당비서 오만수동무의 낯색은 심중하더군요.

말 한마디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건넌 오만수동무는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우리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자주 충신과 효자에 대한 말을 입에 올리군하지만 아직 멀었소.

지력을 높여야 소출을 많이 낸다는건 자명한 리치인데 우린 어째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고서야 이렇게 포전길을 걷게 했소? 어째서 논에는 흙갈이를 하면서 강냉이밭에는 흙갈이할 생각을 못가졌는가 말이요.〉 하더라말입니다.

리당비서동무의 말을 듣는 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한 농장을 책임진 리당비서나 저의 임무가 다를바가 무엇이려만 어째서 수령님의 교시를 놓고 내놓은 일보다도 하지 못한 일을 두고 더 마음쓰려하는 그 격차가 어디서 생긴것이겠습니까. 어째서 저는 리당비서동무처럼 그런 높은 자세에서 수령님의 교시를 접하지 못하였을가 하고 말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심중한 이야기였다.

비단 이곳 농장일군들에게만 한한 문제가 아니였다. 아직도 일부 일군들은 비료가 부족하오, 농약을 더 내오, 로력이 어떻소하는 편향이 없지 않으니 말이다.

이곳 농장은 오래전부터 지원로력없이 자체힘으로 농사를 짓고있다. 그런 농장의 흙갈이전투가 아무리 어렵고 중요하다 해도 지원로력을 받으랴.

이렇게 되어 리당위원회의에서 흙갈이전투문제가 토의되었고 총돌격전이 벌어졌다. 평지밭, 기본포전으로 삭도가 늘어지고 레루가 뻗었다.

거름생산을 비롯한 모든 영농차비도 동시에 밀고나가야 했다.

모든것이 긴장했다. 로력도, 자재도, 시간도...

리당비서 오만수동무는 예비를 짜내던끝에 집오래밭들과 산자락의 작은 패기밭들은 기본작업시간 외에 해제끼기로 농장원들을 불러일으키고 자기가 먼저 이른새벽에 나섰던것이였다.

당일군의 이신작적- 이것은 위력한 견인력과 추

동력을 가지는 말없는 조직방법이다.

기발을 따라 대오가 흐르듯이 리당일군을 따라 이처럼 새벽마다 전투대렬이 편성되군하는것이 아닌가, 실로 리당비서의 이러한 모범은 얼마나 값비싼것인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제일 큰 감동을 받은 것이 리당일군들을 비롯하여 농장일군들로부터 분조장에 이르기까지 이신작척하는 사업기풍이 세워져있는것이였다. 일군들이 대오의 기수가 되니 어찌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수 있으랴.

리당비서의 이신작척-그것은 솔선 모범으로 대중을 긍정감화하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돌격으로 부르는 말없는 구령이기도 하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 대한 혁명전사의 자세가 어떠한야함을 보여주는 산모범이때문인것이다.

감동으로 고삐치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며 걸던 우리는 무춤 한자리에 못박히듯 서버렸다.

젊은이들속에 섞이여 날렵하게 움직이는 리당비서의 모습을 띠어보았던것이다.

다만 옷몸동작만이 여느 사람들과 달리 부자연스럽다. 그는 영예군인이다. 조국을 위한 성전에서 오른팔을 부상당했던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영예군인들을 어떻게 보살펴주고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안다.

하지만 영예군인 리당비서 오만수동무는 예순이 넘은 오늘 이 아침도 대오의 앞장에서 흠뻑이전투를 하고있었다. 어느 누가 그의 모습을 보고 예순이 넘었다고 하랴.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그는 청춘의 열정으로 젊음을 안고 산다.

그의 모습을 보느라니 가슴속에서 불뭉치같은것이 울컥 치밀어올라 우리는 말없이 누워있는 대지에 눈길을 보냈다.

아득한 태고로부터 인간은 땅과 함께 살아왔었다. 근면한 이 나라 농민들은 이 땅에서 참된 삶을 구가하며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던가.

수수천년 조상대대로 내려오며 피땀으로 쪼든 저 땅, 기갈에 시달려 갈라터진 대지, 황폐한 먼지만을 피워올리던 저 대지, 정녕 자연의 혜택으로도 오랜 세월의 흐름으로도 가꾸어 살찌우지 못했던 이 땅이 오늘 주체농법의 혜택아래 청춘기를 맞이하였으니 인간도 젊어지고 땅도 젊어져 이 나라 농민들의 숙원이 저 대지우에 활짝 꽃피는것이리라.

마을쪽에서 푸근한 봄기운을 품은 바람이 불어왔다. 어쩌면 이 벌의 주인들의 호흡의 열기가 스배여 있는 바람결에는 들크무레한 특유한 땅의 향취가 끝없이 풍겨온다.

땅의 향취만이 아닌 이 땅을 가꾸고 살찌우는 리당비서 오만수동무와 같은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성실한 인간의 향기가 더 짙어 우리의 가슴은 그토록 취하는것이 아닌가!

땅의 향취, 인간의 참된 향기가 질을 때 난알은 알차게 익는것이리라.

×

향봉리 마을 한복판에 우리 당이 제시한 혁명적 구호가 걸려있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투쟁과 혁신으로 부르는 당의 이 혁명적구호, 리당일군도 농장일군도 늘 이 구호를 바라보며 이 구호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작업반 분조들에 내려가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고있다.

언제나 변함이 없이...

제철소의 겨울 외 1편

권강일

뭉게치는 흰구름에
충천하는 화광에
눈송이도 허공중에 녹아내린다

열기를 내뿜으며 엇갈리는 남비차들
차판마다 실려가는 강채더미들
웅글은 송풍기소리 그 더운 숨결에
소한 대한 강추위도 다 녹아흐른다

갑옷인양 작업복을 근엄하게 펼쳐입고
구내길을 바삐 오가는 용해공들
신심 넘친 그 웃음이, 넓은 가슴들이
훈훈한 바람을 실어오는가

아, 이 뜻깊은 년대의 첫아침
이 제철지구 노을비낀 하늘아래
철숲을 흔들며 흔들며
얼마나 뜨겁게 울려왔던가
새해 신년사를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귀에 익은 음성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시려
우리 조국을 더욱 빛내이시려
한평생을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구절구절을 가슴에 새기며

늙은 로장이
조용히 눈시울을 적시고
젊은 용해공들이 로문앞에
불보다 뜨거운 맹세를 다졌거니

그 마음이더라 숨결이더라
다급하게 울리는 저 출강종소리
용광로의 큰 가슴에 흘러드는
저 세찬 열풍소리 불바람소리

뜨거움이 젖어흐른다
천정기중기 저 들보에서
기적을 웨치고있는 속보에도
강채산이 쌓인다고 넘쳐난다고
무선기에서 튀어나오는 성급한 목소리에도

아, 류달리도 들끓어 훈훈한
이 겨울이여
내리는 눈송이도 불보라에 싸여
불꽃으로 날리는 제철소의 겨울이여

봄 여름 초목이 싹트고 자라오르듯
이 겨울날에
철의 숲 길길이 자라오른다
충성과 효성으로 가슴뜨거운
우리 로동계급의 심장에 받들려
조국의 강철숲이 솟아오른다

후배들에게

만약 내 그 시절로 돌아가
다시 대학을 다닌다면
시간을 아끼리라
나날을 더 보람있게 설계하리라

나의 번호가 있는 그 열람실자리를

하루도 비우는 일, 없으리라
도서관의 그 많은 장서를
독서계획에 빠짐없이 적어넣으리라

강당앞에 나붙는 강의일람표를
흘려보는 일 없으리라

그 한강의를 위해서도 머리가 흰
교수의 말을 깊이 새기리라

스승들을 더 많이 알고 찾아가고
친구들은 적게 두리라
탐구라는 진지한 벗과
늘쌍 마주하리라 속삭이리라

만약 내 다시 그 시절을 산다면
청춘의 열정이 충동이는 유혹을
좀더 분별있게 대하리라
기숙사호실의 떠들썩한 웃음으로 하여
열방에서 벽을 두드리는 일 없으리라
봄날의 유원지의 산책을
될수록 후날로 미루리라

대학시절은 기쁘고 영광이어도
누리기만 하면 다만 그날뿐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
졸업후의 긴긴날을 두고

보람과 웃음을 피워주더라
조국의 크나큰 믿음속에 살게 하더라

아, 사랑하는 후배들이여
대학시절에 한껏
탐구열로 이마를 덥히고도
대학을 떠나 멀리서 세월이 흐르면
후회되는 이 마음을 헤아리라

대학생시절은 그 시절로 끝나도
지식인들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시대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
높으신 뜻을 받들어사는
영광스런 삶이 앞에 있거니

오, 바라건대
할일은 많은데 그 시절이 짧음을
잊지 말기를 명심하기를
하루하루를 쪼개여쓰기를!

당의 작가들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봄빛이 무르녹는 4월의 어느날 우리는 창작전투
로 들끓는 조선문학창작자 소설창작실을 찾았다.

지금 력사적인 회답서한의 뜻깊은 구절구절이 소
설가들의 심장을 한없이 격동시키고있다.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작가들을 참으
로 값높은 삶의 높이에 내세워주시였다.

이 크나큰 신임과 기대는 우리 소설가들을 더없
이 격동시켰고 무한대의 힘과 열정을 가지고 사상
예술적으로 우수한 소설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도
록 끝없이 떠밀어주고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창작하고있는 소설작
품들중에서 성과의 일부를 소개하려고 한다.

크나큰 믿음은 충성을 낳기 마련이다.

력사적인 회답서한을 받아안은 모든 작가들이 그
러했던것처럼 소설가 허춘식동무도 자기가 창작하
고있는 장편소설 《북부철길》의 집필에 여념이 없
었다.

그는 밤이 깊도록 쉬임없이 펜을 달리였다. 하늘
에서 언제나 인민을 첫 자리에 내세워주시는 친애하는지도자

의 못별들만 총총한 길은 이 밤, 그는 잠시 펜을 멈
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할수록 당의 신임과 기대는
더없이 크고 위대한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와 작가, 수령과 전사간에 맺어지
는 이 위대한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견주지
못할것이였다.

그의 머리속에는 지난 80년대의 마지막해인 198
9년 1월초 어느날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한
시인을 만나주시였던 그 일이 우렁이 떠올랐다.

새해벽두에 또 한편의 명가사를 창작한 시인을
만나주신 그이께서는 그의 창작성과를 축하해주시
면서 우리 당과 땀수 없는 진정한 협력군이라는 크
나큰 믿음으로 시인, 작가들을 내세워주시였던것이
다.

시인은 자기들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이 그대로
인민에 대한 믿음이고 사랑임을 깊이 느끼였다.
시인은 영광의 그자리에서 우리 당 건설과 활동

동지의 사랑의 위대한 세계를 한없이 숭고한 감동속에 받아안았

다...

허춘식동무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렇다. 우리 당의 철학과 사상에, 우리 당의 روشن과 정책, 우리 당의 활동과 업적에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위대한 서사시가 있는것이다.)

그는 우리 청년건설자들의 영웅서사시가 수놓아져있는 북부철길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장편소설 《북부철길》을 품위있게 창작하여 독자들앞에 하루빨리 내놓을 결심을 또다시 하였다.

장편소설 《관북의병장》으로 독자들과 한층 가까와진 력사소설가 리유근동무 역시 창작전투의 긴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다.

그는 지금 장편소설 《홍경래》에 대한 추고작업을 거의 끝내고있다.

회답서한을 받아안고 분과 초를 쪼개가며 일하고있는 그의 심정은 남달리 뜨거웠다.

자기자신에게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창작활동의 걸음걸음을 떠밀어주고있는 당의 은정이 한없이 고마왔다.

그는 수령과 작가, 령도자와 작가의 관계에서 가장 감동깊고 위대한 장을 펼친것이 우리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건설력사라고 세상에 긍지높이 말하고싶었다.

진정 믿음과 사랑으로 보살피며 이끌어주는 그 손길따라 우리 작가들이 오르고 또 오른곳이 어디있는가.

1989년 4월 어느날 뜻깊은 자리에서 두 시인을 만나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옆에 갈라세우시고 혁명을 함께 하는 동행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동무들은 한때 길을 같이 가다가 헤어질 길동무들이 아니라고, 동무들은 즐거울 때 어려울 때도 당과 운명을 같이할 참다운 동행자들이며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생사운명을 함께하는 진정한 동행자들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던것이다.

혁명을 함께 하는 동행자!

감동깊은 믿음과 사랑에 이끌리어 올라선 우리 작가들의 영광의 자리는 이처럼 값높고 높이 빛나는것이였다.

참으로 우리 작가들의 인생도 문학도 모두다 오늘처럼 영광으로 빛을 뿌릴수 있는것은 조선의 빛나는 로정과 함께 발전하여온 수령과 작가, 령도자와 작가의 관계로만 풀이될수 있는것이다.

그것은 또한 수령과 령도자의 위대한 품모와 함께 수령과 령도자의 위대한 정치에 대한 완전한 대혹속에 우리 작가들이 살고있는 로동당시대에 대한 그들의 체험으로만 이야기될수 있다.

이미 중편소설 《새벽별》로 독자들과 일정하게

사귄 녀류소설가 최상순은 중편소설 《관리위원장》을 년중으로 출판에 회부하려고 모든 힘을 다하고있다 한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현지창작생활을 하고있는 그의 가슴속에도 회답서한의 구절구절이 순간마다 미치여 창작활동을 떠밀어주고있었다. 위대한 손길따라 우리 작가들은 우리 혁명과 건설의 년대들을 인민대중과 함께 걸어왔다.

이렇게 인민에게로, 인민에게로 끊임없이 떠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손길따라 작가들은 언제나 인민대중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사상감정을 담아 붓을 들고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우리 문학을 장식하여오지 않았던가.

참으로 작가들에게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우리 문학이 올라설 독창적인 경지, 창작리론과 실천상의 새로운 문제들을 밝혀주어도 그리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을 헤아려도 그 모든것을 인민대중으로부터 출발하고 인민대중으로 일관시켜나가는것이 당과 수령의 위대한 손길이였다.

그는 지금 마감짓고있는 중편소설 《관리위원장》을 더 훌륭히 결속하려고 충성의 한초한초를 보내고있다.

우리와 만난 조선문학창작사의 한 일군은 자랑에 넘쳐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지금 우리 소설가들이 벌리는 창작전투는 그 어느때보다도 비등된 열의속에서 진행되지요. 많은 장, 중편소설들이 년중으로 출판될 예견입니다.》

장편소설들인 《기념비》(김삼복), 《씨앗》(한운), 《환희》(김봉철), 《새땅》(현희균), 《열풍》(김응호), 장편실화소설 《시대의 념원》(리호인)과 중편소설들인 《청춘시절에 대한 이야기》(김홍우), 《대양만리》(김정남), 《영생의 권리》(전홍식), 《빛나는 길》

(김길환)이 바로 그러하다.

또한 많은 장, 중편소설작품들이 초고단계에서 맹렬히 전진하고있다.

실로 믿음과 기대를 담은 뜻깊은 회답서한이 모든 소설가들의 심장을 한없이 격동시키고있다.

로동당시대의 작가로서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되는것은 우리 나라의 문필가들만이 지닐수 있는 특전이며 최대의 영광이고 행복이다.

우리는 소설가들의 창작사업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조선문학창작사 소설창작실을 떠났다.

본사기자

인민군절의 아침에

김기호

2월의 봄빛이 어리고
4월의 해빛이 넘치여
이 아침은 이리도 따사로운것인가
꽃들도 반겨웃고 새들도 노래하는
4월 25일! 인민군절의 아침

초소와 초소마다
흘날리는 꽃보라속에
인민대표단들이 들어서고
예술단들이 찾아와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는 명절이어!

눈시울 뜨거워라
한장의 위문편지를 뜯어봐도
뜨거운 정이 넘쳐나고
하나하나의 위문품에도
인민의 지성이 뜨겁게 깃들어있나니

비바람 부는 날에도
눈보라 치는 밤에도
조국의 안녕을 지켜온
전사의 성스러운 복무의 영예가
온 나라의 축복속에 부푸는 이 아침

얼음장이 서걱이는 강물을 헤치고
구름발이 스치는 산밭을 넘으며
훈련의 더운 땀을 뿌려온 보람이
후방인민들의 이야기속에 꽃피는 이 아침

언제나 그러하시듯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 아침도 어느 구분대를 방문하시리
친자식들 만나신 어버이처럼
초병들의 손도 일일이 잡아주시리

세상에 어느 나라 군대
어느 나라 전사들이 이렇듯
당과 수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인민의 뜨거운 축복속에
혁명의 총창을 빛내일것이라

아,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한 군사의 영재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전사
그이의 군대로 복무하는 긍지
끝없이 충성하는 영광이어

빛내가리라
30년대 백두산 기슭에서
한별을 우러러 높이 들었던 총
90년대 언덕에서
향도성을 우러러 반들어총 했나니

그 어떤 광풍이 불고
그 어떤 불구름이 휘몰아쳐도
찬란한 향도의 손길을 따라
신념의 총창높이 나아가는 길
전사들의 앞길엔 승리만이 있으리
충성의 한길엔 영광만이 빛나리

고전소설 《옥린몽》의 사상예술적특성에 대하여

윤동일

우리 나라 중세소설문학의 발전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는 고전소설 《옥린몽》은 《조선고전문학선집》 14, 15 권으로 편찬되어 지금 광범한 독자들속에서 널리 읽히고있다.

이 소설의 작자에 대하여 일부 책에서는 《회현》의 저서라고 쓰고있다.

그러나 《회현》이라는 호를 가진 사람으로는 리정작과 조관빈이 알려져있는데 둘이 다 동방급제자로 숙종년간(1675~1720년)에 활동한 사람들이고 보면 누구라는것이 명백치 않으며 다른 저서에 회현 리정작이 김만중의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를 보고 이 소설을 썼다는 기록도 있으나 1937년판 《조선인명사서》에 그의 문학창작과 관련한 자료는 소개되지 않은것으로 보아 확실한 믿음은 주지 못하고있다.

이 소설의 창작년대에 대하여서도 정확한 기록은 없고 다만 작품전반에 추구되어있는 주제사상적내용과 예술적풍격, 문체상특성으로 하여 대체로 18세기경에 창작된것으로 추론하고있다.

고전소설 《옥린몽》은 주제사상적내용에서 볼때 가정류리소설에 속하며 주로 류씨가문을 중심으로 한 양반상층부의 생활을 반영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독자들속에서 널리 읽히고있는것은 이 소설에 우리 인민의 민족적감정이 반영되어있고 동시에 중세기 우리 인민의 생활적인 요구와 념원이 담겨져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예술은 민족과 동떨어진것이 아니며 민족의 력사와 련결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일정한 력사적시대의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생활풍습 같은것을 반영하고있습니다.》

문학과 예술은 항상 민족의 력사와 련관되어있으며 그 시대의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생활풍습을 반영하고있다.

고전소설 《옥린몽》은 비록 《구운몽》이나 《사씨남정기》와 같이 중국을 무대로 하여 사건을 전개하고있으나 소설에서 작가가 힘주어 강조하고있는 시대적배경은 조선봉건왕조사회의 현실이다.

조선봉건왕조국가가 성립된 이래 고질적인 악습으로 존속되어온 사화, 당쟁은 17세기이후에도 그치지 않았으며 그것은 나라의 정치를 어지럽히고 왕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의 도덕적파산을 촉진시

켰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인조반정》과 《기사환국》, 숙종왕의 인형왕후폐위사건과 영조왕의 장헌세자살해사건 등이 그러한 실례로 된다.

《옥린몽》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바로 이러한 사회력사적인 환경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소설에는 비교적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며 복잡한 사건들이 전개되고있다.

여기서 축을 이루는것은 류혜란과 려교란의 대립되는 성격을 통하여 밝혀지고있는 봉건사회의 일부 다처제적가족제도하에서의 가정류리문제이다.

소설은 당대의 이름난 재상인 류담이 정부인과 더불어 늙도록 자식도 없이 지내다가 마침내 옥같은 딸과 준수한 아들을 보게 되는 밝은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나 류혜란이 간악하기 이룰데 없는 려교란과 범경문의 후실로 되면서부터 복잡한 이야기로 번져진다.

워낙 질투심이 많고 악행에 이골이 난 려교란은 류혜란과 범경문이 약혼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어명으로 그들의 혼사를 방해하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별의별 흉계를 다 꾸민다. 지어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것이 두려워 시녀인 춘교를 독살하며 악한들을 사촉하여 류원의 일가까지 해치려 한다.

그리하여 어지고 착한 류혜란은 애매한 루명을 쓰고 령릉으로 귀양가며 류원은 사랑하는 안해와 자식의 행처도 모르는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류원남매가 겪게 되는 이러한 불행과 고통은 마침내 운흥과 리소칠, 설빙심과 같은 의리깊은 인간들에 의하여 해결되며 악당들은 처형되고 류씨일가는 그지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소설에서는 류씨일가의 이러한 운명을 통하여 가정의 흥망성쇠 즉 집안이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무엇에 의하여 좌우되는가를 형상적으로 밝혀내고있다.

그러나 소설은 다만 한가정의 흥망성쇠만 보여준것이 아니라 류씨일가의 곡절많은 운명을 통하여 당대의 불합리한 현실과 사회적모순을 제기하였으며 동시에 어지러운 정치의 뒤생활을 밝혔다.

따라서 이 소설의 주제는 세태생활 그자체가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성격을 띠고있으며 이 시기 인간들의 생활적인 요구와 념원을 담고있다.

소설에서 작가가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는것은 우선 인간들의 도덕적류리에 대한 문제이다.

물론 인간들의 도덕적류리에 대한 문제는 조선봉

건왕조시기의 어지러운 사회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선행시기의 《사씨남정기》를 비롯한 많은 소설들에서 제기되고있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그것이 황제를 비롯한 권력상충부와 결부된것으로 하여 보다 심각성을 띠고 있다.

범경문이 이미 류혜란과 약혼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어명으로 러교란과의 혼사를 강요받았을 때 그것은 벌써 비극을 안고있는 재앙의 불씨였다.

러교란으로 말하면 황실의 족속인데다가 우로는 권력이요 아래로는 악당들에 의지하여 세상에 못하는것이 없었다.

대바르고 정직한 사람들을 모해하는것은 물론 목숨까지 희롱하였으며 재판과 같은 나라의 정사도 순간에 역전시키는 《교녀》의 전형이었다.

그러나 류혜란이 아무리 어지고 착한 성품을 지녔다고 해도 막강한 권력에 의지하고있는 불의앞에서는 수난자의 운명밖에 지닐수 없었으며 따라서 인간의 도덕적분리를 지키는데서 류혜란이 안고있는 극적과제는 선행시기의 소설들에서보다 몇갑절 더 어려운것이였다.

선행시기의 소설들에서는 주인공들이 음모군인 《교녀》나 간신들의 악행을 극복하면 그만이었으나 이 소설에서는 황제와 그 족속들의 무지한 권력에 맞서야 하였다. 그러므로 갈등은 더욱 심각하게 설정되고있다.

범경문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사건들과 류원과의 혼사를 앞두고 후궁으로 삼으려는 황제의 부당한 처사에 죽기로 맞서는 장소저의 항거는 자못 치렬하기 그지없다.

소설은 황제와 그 족속들의 무지한 권력과 그에 굽히지 않고 꺾끗이 항거하는 궁정적주인공들사이의 첨예한 갈등관계를 통하여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위장된 봉건통치배들의 도덕적부패성과 전제군주제도의 반인민적이며 비인간적인 정체를 신랄하게 폭로비판하였다.

인간의 고상한 도덕적분리문제를 황제를 비롯한 권력지배층의 전횡과 결부시키고 궁중내부생활까지 파헤치면서 보다 심각하게 제기하고 해명한 바로 여기에 가정분리문제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가지는 커다란 사회정치적의의가 있다.

소설에서는 불교승려들의 형상을 통하여 위신으로 가득찬 불교의 허황성과 반인민성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비판하고있다.

결으로는 《공덕》과 《자비》에 대하여 떠들면서도 흉악하기 이를데 없는 리희인을 도와 류재교의 애인인 장소애를 가로채는데 적극 협력하는 녀승 담현의 형상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담현으로 말하면 류원의 아들 류재교를 모해하려

다가 실패하고 기생인 설빙심을 겁탈하려다가 그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아 음험한 야심으로 가득차있는 리희인과 한짝이 되어 날뛰는 냉철의 고모벌되는 사이이다.

그러한 그가 자기 가문의 추행사에는 아닌보살을 하고 제법 목청을 다듬어 불도를 력설한다는것 자체가 벌써 기만이며 위선이다.

소설에서는 담현이 리희인의 손발이 되어 장소애를 랍치하는데 적극 야합하며 승려의 가면마저 벗어던지고 불의를 강요하여나서는것을 통하여 권력에 아부하며 그들의 사상적도구로 리용되여온 불교교리의 위선성과 반인민성을 잘 드러내보여주었다.

불교의 위선성과 기만성에 대한 비판은 류배지에서 일시 승려들과 함께 지내는 류혜란의 입을 통해서도 주어지고있다.

령원이 불교의 자비심에 대하여 력설하고있을 때 류혜란은 《불가에서 못생명을 이끌어주는 덕화가 독사나 맹호에게까지 미친다면 악한 사람을 만나도 그의 악한 마음을 몰라보니 이렇게 되면 옳은것만 내세워야 하는 몇몇한 리치에 거슬리는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는데 이것은 불교의 위선성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아닐수 없다.

류원남매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운회복의 전기간에 걸쳐 현묘진인의 《명험》에 대하여 일관하게 강조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승려들에게 둘러진 이러한 비판은 당시 인민들의 사회계급적각성과정의 반영인 동시에 중세기적인 종교적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시대적지향을 반영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 소설에서 반침략애국주의에 대한 문제는 간과할수 없는 문제의 하나이다.

예로부터 외래침략자들의 침입을 무수히 받아온 우리 인민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도 임진조국전쟁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전란은 사람들에게 심중한 고통을 남기였으며 외적을 무찌르는 싸움에서 용맹할것을 추동하였다.

이 소설에서 적이 방대한 병력으로 쳐들어왔을 때 류원이 자진하여 전장으로 탄원하는것은 이 시기의 양양된 시대적기분의 반영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손에 활이나 화살을 잡아본 일은 없으나 나라의 위기를 한몸에 막아나서는 류원의 형상과 적들의 시체로 들판을 덮으며 승승장구하는 군사들의 모습은 반침략애국투쟁에 떨쳐나섰던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모습을 그린것으로써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있다.

소설에서 범경문의 형상은 다른 측면에서 반침략애국주의사상을 강조해주고있다.

적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뜻밖에도 인질로 잡혔을 때 범경문이 겪는 고초란 이루 헤아릴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겁내지 않으며 완강한 의지와 굳은 절개로 원썬들을 전멸케 한다. 무릎을 꿇을 것을 강요하는 놈들에게 개돼지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소리높이 단죄하는가 하면 갖은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곳곳이 절개를 지켜나가는 범경문의 형상은 죽을지언정 굽히지 않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민족적절개를 보여준것으로써 깊은 여운을 남기고있다.

소설에 그려진 류원과 범경문의 이러한 형상은 외적의 침입을 당하여 어찌할바를 모르는 황제나 문무대작들과 대조되는 형상으로서 외적을 물리치고 반드시 나라의 안전을 이룩하고야말 우리 인민의 애국적념원과 불굴의 의지를 반영한 의의깊은 형상이다.

소설에서는 여러가지 사회정치적인 문제들을 인간의 량심과 의리에 관한 문제와 밀접히 결부시켜 형상하였다.

인간의 량심과 의리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나 이 시기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17세기이후 더욱 격화된 당쟁의 소용돌이속에서 봉건통치배들은 일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량심과 의리를 저버리는것쯤은 다반사로 여기고있었다.

지어 량심에 위기가 온자들이 《량심》과 《충의》를 주관하며 조정에서 득세하고 퇴물이 없이는 한치의 벼슬도 할수 없었으며 재판까지 룹락된것이 이 시기의 기막힌 사회현실이었다.

따라서 인간의 량심과 의리를 고수하는것은 이 시기의 어지러워진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나라의 정치를 안정시키는 사회적문제와 련관되어있었다.

《옥린몽》에서 작가가 권선징악을 바탕으로 하면서 량심과 의리에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는 것도 바로 이런 사정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소설에서는 인간의 량심과 의리에 대한 문제를 주로 긍정적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밝혀내고있는데 특히 주목되는것은 시비 운홍이나 배군인 리소철, 기생 설빙심과 같은 비천한 출신의 인물들을 아름다운 인간미덕의 소유자로 그려내고있는 사실이다.

무고한 죄명을 쓰고 녀자의 몸으로 류배살이까지 하게 된 류혜란을 사심없는 헌신적인 노력으로 구원하는 운홍이나 류원일가의 불행과 고통을 가쳐주는 리소철, 설빙심의 형상은 당대사회에서 인간의 진정한 량심과 의리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예술적해명인 동시에 어지러운 봉건사회의 현실속에서도 아름다운 인간품성을 고이간직하여나가는 인민적형상이라고 할수 있다. 소설은 이와 같이 당대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인간의 량심과 의리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그것을 단순히 인간의 세태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로서가 아니라 사회적문제와 결부시켜 형상적으로 해명함으로

써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고있다.

이 소설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것은 예술적형상에서도 성과를 거두고있기때문이다. 소설은 수십명에 달하는 각계각층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주인공들의 웅근 한생애에 가까운 복잡한 사건들과 운명문제를 다루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흥미를 자아낼수 있게 이야기의 흐름을 계속 고조시키는 방향에서 조직하고있으며 극적인박감을 조성하면서 구성을 면밀하게 짜고있다.

소설은 류담이 늦게야 딸자식과 아들을 보게 되는 평범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나 류혜란이 범경문에게 황실의 족속인 려교란과 더불어 시집가는데서 점차 극성을 띠고 발전하게 되며 려교란과 취섭이 거듭 공모하여 류원까지 해치려는데서 더한층 긴장감을 자아낸다.

또한 련속되는 갈등관계의 조성도 긴장감을 자아낸다.

소설의 전반부에서는 황제와 그 고속들인 려교란, 태원공주 등과의 갈등이 주어져있고 후반부에서는 당대의 읍모가이며 간신인 리문호, 리희인 등과의 갈등이 조성된다. 갈등관계의 이러한 조성은 황제로부터 악질관료배들의 추악한 정체를 낱알이 폭로하면서 사건의 흐름을 극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 소설에 리용된 고진감래식구성조직은 《사씨남정기》와 같은 선행시기의 소설에서도 볼수 있지만 이 소설의 경우에는 생활반영의 폭이 보다 넓으며 훨씬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여 복잡한 관계로 얽히면서도 정연한 사건체계를 이루고있는것으로써 이채를 띠고있다.

따라서 소설은 독자들의 머리속에 더 강한 인상을 남겨놓고있다.

소설이 거둔 예술적형상의 성과는 등장인물들의 개성화된 성격창조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소설에는 비교적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다 각이한 계급계층의 처지를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개성적인 인물들로 그려지고있다.

같은 신분의 인물인 경우에도 그들의 성격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다.

범경문의 두 안해가 적대적인 관계에서 서로 뚜렷이 대조되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작가가 현모량처의 리상적인 인물로 내세우고있는 류혜란과 류원의 안해 장씨사이에도 서로 자기의 얼굴모습을 달리하고있다. 작가는 류지란의 입을 빌어 다같이 어질고 서로 화목하게 한집안을 꾸려나가는 류원의 두 안해를 평하기를 《태액지 려못우에 려꽃 한송이 피여있어 푸른 물우에 솟아있는 그 붉은 꽃을 바라보면 아름답기 그지없사오나 꺾기는 어려우니 이것은 <군자향> 이라 장부인께 비길수 있》으며 《인적 드문 골짜기에 란초 한떨기 자라있어 거치른 풀설

에서 향기를 뿜나니 이것은 《왕자방》이라 리부인께 비겨 마땅하》다고 하였다. 설빙심에 대해서는 또한 《동산에 오얏꽃은 봄벌말을 사랑하고 앞산의 푸른 대는 눈서리를 이겨내니 고운듯 미운듯 굳센듯 약한듯 헤아릴수 없사오니 이것은 설량이라 해야》 할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작가가 매 사람들의 인물형상에 개성화를 힘주어 추구했다는것을 말해준다. 소설에서 류원의 아들 류재교의 형상은 특별한 관심을 끌고있다. 그는 비록 명문가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봉건사회의 어지러운 현실을 일찍부터 체험하면서 류다른 성장의 길을 걷는다.

려교란이 보낸 악한들에 의하여 목숨을 잃을번한 때로부터 리소칠을 따라 민간인들의 고달픈 생활처지를 체험하기도 하고 살길을 찾아 이리저리 떠다니기도 하며 때로는 옛적의 시구를 외었다가 리소칠의 안해 손초랑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한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그는 열두살의 어린 나이에 과거에 응시하여 뛰어난 필체와 드넓은 견문으로 황제를 비롯한 고관대작들을 놀래우고 태자를 교육하는 비서 저작랑 겸 동궁 시독관의 벼슬을 받는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그가 당대의 뛰어난 《인결》로 부각되어있는 류원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봉건사회의 격식화된 틀에서 벗어나려는 지향을 가진 인물로 형상되고있다는것이다.

《신동파》의 응시장면에 묘사되어있는바와 같이 과거문제에는 다 각각 자기의 글체가 있는데 유독 류재교의 글은 옛것을 본따거나 어디에도 구애됨이 없이 모두가 격식에서 벗어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을 구체할 재주요 나라를 다스릴 보배》라고 극구 찬양되고있는것은 당대 량반사대부들의 사대주의적이며 모방주의적인 문풍과 생활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무너져가는 봉건말기의 시대적요구를 반영한 탐구된 성격이라고 볼수 있다.

소설은 당대봉건사회의 최하층신분을 가진 시비들에 대해서도 개성적인 인간들로 그리고있다.

부정인물계렬에서 볼 때 상전인 려교란의 비위를 맞추며 온갖 간악한 음모를 꾸미다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취섭이나 어리숙하여 본의 아니게 자기 주인을 해치려는 악당이 되었다가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춘교 등은 권선징악의 견지에서 설정된 인물들이면서도 각기 자기의 성격적묘를 가지고있다.

공정인물계렬에서도 남다른 슬기와 용맹으로 목숨을 걸고 주인공 헤란의 몸에서 치욕의 루명을 벗겨주고 의리를 지켜 떳떳이 자결하는 운홍이나 기타 인물들이 다 성격의 논리와 생활의 논리에 맞게 뚜렷한 표상을 남기고있다.

소설의 이러한 인간성격들은 당시에 제기되고있

던 사회적인 문제를 형상으로 해명하고 어지러운 정치의 리면세계를 폭로하며 봉건사회의 악덕과 부정의를 가슴저리게 느끼도록 하는데서 적극적인 작용을 하고있다.

《옥린몽》은 소설적인 언어묘사의 측면에서도 중세소설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소설은 우리 나라 중세소설에서 흔히 보게 되는 지나친 과장법은 될수록 피하고 자연묘사와 인물묘사, 생활세태묘사에서 현실감이 나도록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내고있다.

고을의 원으로부터 중앙으로 소환되어온 설억에게서 잃었던 아들을 찾게 된 경위를 들은 류원이 기쁨에 넘쳐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장면의 묘사가 그 실례로 된다. 평생 헤엄비거나 급히 걸어본 일이 없지만 신발뒤축이 꺾어지는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류원, 너무도 기쁜 나머지 마루우에 채 올라 서지도 못한채 방안을 향해 소리치는 류원...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인공의 심리세계며 고조된 흥분상태를 눈앞에 선히 그려볼수 있고 진실한 생활을 감득할수 있다.

소설은 또한 이 시기의 다른 소설들에 비하여 내면독백을 많이 쓰고있는데 이것은 등장인물들의 내면세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보여주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그러나 이 소설은 아직 중세소설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우선 류씨일가와 부정인물들과의 갈등이 운명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에서 황제의 《은총》을 내세움으로써 작품의 비판적기백을 약화시키고있으며 류원, 범경문, 류혜란과 같은 긍정인물들을 지나치게 리상화하여 그리고있다.

사실 당대사회에서 《어진 임금》이나 채색이 완비된 《출중한 인물》이란 공상에 지나지 않는것으로써 이것은 봉건군주를 절대화하던 이 시기 인간들의 세계관적제한성과 봉건제도자체를 부인할수 없었던 이 시기의 사회력사적인 제한성의 반영이다.

소설은 또한 이 시기의 다른 소설들에 비하여 사실주의적묘사에서 현저한 발전을 보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불교의 령험에 의한 《꿈이야기》형식과 고진감래식들을 답습함으로써 다주인공일대기의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원본이 한자로 씌여짐으로써 광범한 대중에게 널리 읽히우지 못한 제한성도 가지고있다.

그러나 이 소설은 인간들의 도덕적륜리문제속에 많은 사회적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제기하고 높은 수준에서 형상으로 해명한것으로 하여 18세기 우리나라 중세소설의 발전정형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학유산으로 된다.